**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Vol. 4.
Published Semiannually by
**The Institute for Biblical Text Research of the Korean Bible Society; February 1999**

# Table of Contents

**• Paper •**

[Kor.] Sample Pages of Korean Scholarly Edition of *BHQ* -Ruth
---------- Young-jin Min / 7

[Kor.] Sample Pages of Korean Scholarly Edition of *BHS* -Psalms
---------- Jung-woo Kim / 24

[Kor.] Sample Pages of Korean Scholarly Edition of *NA* -James
---------- Chang-nack Kim / 35

[Kor.] Sample Edition of Korean Chronicles and Its Synoptic Parallels in Samuel, Kings, and Related Biblical Texts
---------- Samuel Cheon / 46

[Kor.] Remarks on Reference in *Korean Revised Version*
---------- Mu-yong Jeon / 65

[Kor.] Review of Three Korean New Testament Versions
---------- Tae-ryong Kim / 101

[Kor.] Korean Translation of the General Introduction, Symbols and Abbreviations, Definitions and Abbreviations for Terms Used to Characterize Readings, and Glossary of Common Terms in The Masorah Parva of *BHQ*
---------- Young-jin Min / 121

# 「BHQ」 룻기의 본문비평장치 해설

## BHQ 룻기 1:1-22의 학문용 편집의 견본 페이지

민영진*

## 1. 기초 본문과 대조 본문

BHQ 룻기의 본문비평장치 편집자는 얀드바르드 (Jan de Waard)이다. 그가 사용한 히브리어 기초 본문은 러시아 세인트 피터스벅 러시아국립도서관에 보관된 피르코비치 컬렉션의 레닌그라드 사본 B19a ($M^L$)이다. 편집자가 사용한 것은 미국 캘리포니아 클래어몬트 고대성서사본 센터를 위해 부르스와 케넷 주커만이 만든 그 사본의 사진판과 천연색 투명 필름 421-423r이다. 이 투명 필름은 대한성서공회 성서학문헌정보자료실에서도 한 부를 보관하고 있다. 이 투명 필름은 상태가 대단히 좋다. 오히려 원본을 보는 것보다 이 필름으로 본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할 정도이다. 필사본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이 투명 필름에서는 더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BHS 4판의 룻기에서도 고쳐지지 못했던 한 오기를 편집자는 이 투명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고칠 수 있었다고 한다.

편집자는 이 기초 본문 ($M^L$)을 두 개의 주요 티베리아 사본과 대조하였다. 하나는 "알렙포 코덱스" ($M^A$)이고 다른 하나는 "케임브리지 Add. 1753" ($M^Y$)이다. 알렙포 코덱스는 M. Gosgen Gottstein, *The Aleppo Codex: Vol. I The Plates,* (Jerusalem: Magnes, 1976)에 있는 것이다. "케임브리지 Add. 1753"은 14-15 세기경의 사본으로서 성문서 전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 사본은 예멘에 있던 벤 아셰르 학파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본 중의 하나로 알려진 것이다. 편집자는 이 두 티베리아 사본과 레닌그라드 사본 사이의 두드러진 차이를 본문비평장치에 지적해 놓았다. 이 밖에도 현재의 BHQ 룻기가 이전의 BH 시리즈의

---

* 대한성서공회 부총무, 성경원문연구소 소장, 구약학

룻기와 다른 점은, 이것이 대마소라와 소마소라를 $M^L$에 있는 그대로 다 편집하여 실었다는 것과 대마소라를 「주석」에다가 영어로 번역해 놓았다는 점이다.

편집자는 본문비평장치에서 기초 본문을 사해사본 2QRuth와 4QRuth과도 대조하였다. 사해사본 2QRuth는 M. Baillet, J. T. Milik, and R. de Vaux, *Les "petites grottes" de Qumrân* (Oxford: Clarendon Press, 1962), 사해사본 $4QRuth^a$와 $4QRuth^b$는 E. Tov (ed.), *The Dead Sea Scrolls on Microfiche* (Leiden: E. J. Brill, 1993)의 것을 사용하였다.

기초 본문과 대조한 그리스어 역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자료를 사용하였다: 1) A. E. Brooke - N. McLean, *The Old Testament in Greek, Vol. 1, The Octateuch, Part IV: Joshua, Judges and Ruth* (London, 1917) 887-897; 2) Alfred Rahlf's manual edition *Septuagin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9); 3) Alred Rahlf's *Das Buch Ruth griechisch als Probe einer kritischen Handausgabe der Septuaginta* (Stuttgart: Würtembergische Bibelanstalt, 1922); 4) Alfred Rahlf's *Studie über den grichischen Text des Buches Ruth* (Berlin: Weidmannsche Buchhandlung, 1923)

편집자가 기초 본문과 대조한 헥사플라 자료는 다음 두 가지이다. 1) F. Field (ed.), *Origenis Hexaplorum quae supersunt I* (Oxford, 1875; photomechanical reprint Hildesheim: Gerg Olms, 1964); 2) Bernardus de Montfaucon, *Hexaplorum Origenis quae supersunt* (Paris: Ludovicum Guerin, 1713)

고대 라틴어 역 자료로서는, 다음 두 자료를 사용하였다. 1) S. Berger, "Notice sur quelques textes latins indédits de l'Ancien Testament", *Notices et extraits des manuscrits de la Bibliothèque Nationale et autres bibliothèques*, Tome XXXIV, 2 (Paris, 1893) 122-126에 있는 룻기 사본 Madrid, Bibl. Univ. 31, fol. 80b-81b; 2) J. Cantera Ortiz de Urbina, *Vetus Latina - Rut* (Madrid-Barcelona: Seminario Filologico Cardenal Cisneros, 1965)

불가타는 다음 두 자료를 사용하였다. 1) 로마의 베네딕트 수도사들이 편집한 *Biblia Sacra iuxta latinam vulgatam versionem: Libri Iosue Iudicum Ruth* (Rome: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39); 2) R. Weber OSB (ed.), *Biblia Sacra iuxta Vulgatam Versionem*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4)

시리아어 역 페쉬타의 경우는 비평적 편집이 없다. 편집자가 사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자료이다. 1) A. M. Criani (ed.), *Translatio Syra Pescitto Veteis Testamenti* (Mediolani: J. B. Pogliani, 1883) 213-214 r. 사진석판본에 반영되어 있는 코덱스 암브로시아누스 사본의 룻기; 2) 모술의 도미니크 수도사들이 편집한 *Biblia Sacra iuxta Versionem Simplicem quae dictur Pschitta* (Mausili: Typis

Fratrum Praedicatorum, 1887); 3) *The Syriac Bible* of S. Lee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1979)

시로-헥사플라는 그리스어 역 본문 역사 재구성에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시로-헥사플라는 헥사플라의 그리스어 본문을 엄격하게 축자적으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이다. 편집자는Paul de Lagarde (ed.), Bibliothecae Syriacae (Gottingae" Horstmann, 1892) 186-190를 사용하였다.

타르굼은, 1) 바티칸 도서관에 있는 1294년 사본 Urbinas Ebr.1을 사용하였다. 이 밖에 2) Alexander Sperber (ed.), *The Bible in Aramaic IVA: The Hagiographa* (Leiden: Brill, 1968); 3) P. de Lagarde (ed.), *Hagiographa Chaldaice* (1873); 4) Etan Levine (ed.), *The Aramaic Version of Ruth*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3)

## 2. 해설을 위한 몇 가지 원칙과 안내

1) 이 해설은 하나의 견본 페이지를 제시하려한 것이므로 룻기 1장의 본문비평장치만을 해설한다.

2) 본문비평장치에 올라 있는 히브리어와 고대어 역본의 본문은 다 우리말로 번역하여 괄호 안에 넣었다. 우리말 번역이 원문의 구조를 적절하게 밝히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말 번역과 영어 번역을 병기하여 효과를 살려 보려하였다. 이 때는 우리말 번역을 먼저 제시하고 영어 번역은 각괄호 속에 넣었다. 고대어 번역이 마소라 본문(ML)과 다를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본문 번역 외에 해설자의 설명을 더 첨가하였다.

3) 고대어 번역을 가리키는 약자나 부호는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독자들은 최소한 고대어 역본의 부호나 약자는 BHQ의 서문을 보고서 익혀두기를 바란다.

4) 히브리어 본문 인용은 자음으로만 표기하였다. 발음을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로마자로 음역하여 나타내었다.

5) 문제가 되는 본문의 성격에 대한 편집자의 판단은 본문비평장치에서 괄호 속에 들어 있는데, 모두 "약자"를 사용하였다. 영어 약자 다음에 우리말 번역을 병기하였다. 읽기의 성격규명과 관련된 약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BHQ 서론의 성격규명 약자 해설을 보기 바란다.

6)「주석」에 들어 있는 소마소라와 대마소라 영어 번역은 우리말로 번역하여

7

תרין פסוק מיחדין ולית זוגה ויהי רעב בארץ ב̇ בטע וירד אברם וילך איש

# RUTH רות

1 ¹ וַיְהִ֗י בִּימֵי֙ שְׁפֹ֣ט הַשֹּׁפְטִ֔ים וַיְהִ֥י רָעָ֖ב בָּאָ֑רֶץ וַיֵּ֨לֶךְ אִ֜ישׁ ה̇. ב̇ חד מל וחד חס
2 מִבֵּ֧ית לֶ֣חֶם יְהוּדָ֗ה לָגוּר֙ בִּשְׂדֵ֣י מוֹאָ֔ב ה֥וּא וְאִשְׁתּ֖וֹ וּשְׁנֵ֥י בָנָֽיו׃ ² וְשֵׁ֣ם ל̇
הָאִ֣ישׁ אֱ֠לִימֶלֶךְ וְשֵׁ֨ם אִשְׁתּ֜וֹ נָעֳמִ֗י וְשֵׁ֣ם שְׁנֵי־בָנָ֣יו ׀ מַחְל֤וֹן וְכִלְיוֹן֙
3 אֶפְרָתִ֔ים מִבֵּ֥ית לֶ֖חֶם יְהוּדָ֑ה וַיָּבֹ֥אוּ שְׂדֵי־מוֹאָ֖ב וַיִּֽהְיוּ־שָֽׁם׃ ³ וַיָּ֥מָת
4 אֱלִימֶ֖לֶךְ אִ֣ישׁ נָעֳמִ֑י וַתִּשָּׁאֵ֥ר הִ֖יא וּשְׁנֵ֥י בָנֶֽיהָ׃ ⁴ וַיִּשְׂא֣וּ לָהֶ֗ם נָשִׁים֙ ב̇. מג
מֹֽאֲבִיּ֔וֹת שֵׁ֤ם הָֽאַחַת֙ עָרְפָּ֔ה וְשֵׁ֥ם הַשֵּׁנִ֖ית ר֑וּת וַיֵּ֥שְׁבוּ שָׁ֖ם כְּעֶ֥שֶׂר שָׁנִֽים׃ ל̇ וחס. ל̇
⁵ וַיָּמ֥וּתוּ גַם־שְׁנֵיהֶ֖ם מַחְל֣וֹן וְכִלְי֑וֹן וַתִּשָּׁאֵר֙ הָֽאִשָּׁ֔ה מִשְּׁנֵ֥י יְלָדֶ֖יהָ
6 וּמֵאִישָֽׁהּ׃ ⁶ וַתָּ֤קָם הִיא֙ וְכַלֹּתֶ֔יהָ וַתָּ֖שָׁב מִשְּׂדֵ֣י מוֹאָ֑ב כִּ֤י שָֽׁמְעָה֙ בִּשְׂדֵ֣ה ל̇. ל̇ וחס ב̇ כתב ה̇
7 מוֹאָ֔ב כִּֽי־פָקַ֤ד יְהוָה֙ אֶת־עַמּ֔וֹ לָתֵ֥ת לָהֶ֖ם לָֽחֶם׃ ⁷ וַתֵּצֵ֗א מִן־הַמָּקוֹם֙
אֲשֶׁ֣ר הָֽיְתָה־שָׁ֔מָּה וּשְׁתֵּ֥י כַלֹּתֶ֖יהָ עִמָּ֑הּ וַתֵּלַ֣כְנָה בַדֶּ֔רֶךְ לָשׁ֖וּב אֶל־ ב̇ חד מל
8 אֶ֥רֶץ יְהוּדָֽה׃ ⁸ וַתֹּ֤אמֶר נָֽעֳמִי֙ לִשְׁתֵּ֣י כַלֹּתֶ֔יהָ לֵ֣כְנָה שֹּׁ֔בְנָה אִשָּׁ֖ה לְבֵ֣ית ב̇. ב̇. ב̇ בנתי בנתי
אִמָּ֑הּ יַעֲשֶׂה֩ יְהוָ֨ה עִמָּכֶ֜ם חֶ֗סֶד כַּאֲשֶׁ֧ר עֲשִׂיתֶ֛ם עִם־הַמֵּתִ֖ים וְעִמָּדִֽי׃ יעש ק̇
⁹ יִתֵּ֤ן יְהוָה֙ לָכֶ֔ם וּמְצֶ֣אןָ מְנוּחָ֔ה אִשָּׁ֖ה בֵּ֣ית אִישָׁ֑הּ וַתִּשַּׁ֣ק לָהֶ֔ן וַתִּשֶּׂ֥אנָה ב̇

**1:1** בִּימֵי֙ שְׁפֹ֣ט הַשֹּׁפְטִ֔ים G$^{Mss}$ (V) (T) | ἐν τῷ κρίνειν τοὺς κριτάς G | ܒܝܘܡ̈ܝ ܕܝ̈ܢܐ S (facil-synt) ✤ • וּשְׁנֵ֥י בָנָֽיו׃ G$^{Mss}$ V T | καὶ οἱ υἱοὶ αὐτοῦ G S (implic) • **2** אֱלִימֶ֖לֶךְ G$^{Mss}$ V S T | ᾿Αβιμέλεχ G • וַיִּֽהְיוּ G T | וישבו 4QRuth$^{a}$ (assim 1:4 ?) | *morabantur* V (transl ?) | ܠܡܥܡܪ S (transl ?) ✤ • **3** אִ֣ישׁ נָעֳמִ֑י G V S T | *vir eius* La • **5** מִשְּׁנֵ֥י יְלָדֶ֖יהָ וּמֵאִישָֽׁהּ׃ G$^{O}$ V T | ἀπὸ τοῦ ἀνδρὸς αὐτῆς καὶ ἀπὸ τῶν δύο υἱῶν αὐτῆς G S (chron order) ✤ • **6** וְכַלֹּתֶ֔יהָ T | prec δύο G (V) S • **7** בַדֶּ֔רֶךְ G V (T) | > La S ✤ • **8** לִשְׁתֵּ֣י G$^{Mss}$ T | > G V S • אִמָּ֑הּ G T | πατρὸς (πατρικὸν) αὐτῆς G$^{Mss}$ (assim-cultur) | *matris vestrae* La V (assim-pron) | *patris vestri* V$^{Mss}$ (assim-cultur + assim-pron) | ܐܒܘܟܝܢ S (assim-cultur + assim-pron) • **9** לָכֶ֔ם G V | foll ἔλεον G$^{L}$ S (ampl) | foll אגר טב שלים T (midr) ✤ •

# 룻기

**1** [1]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2]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3]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4]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십년 즈음에 [5]말론과 기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6]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8]나오미가 두 자부에게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여호와께

1:1 **בימי שפט השפטים** (사사들이 사사의 직무를 수행하던 때에 [in the days of the judging of the judges]) G[Mss] (V) (T)도 같은 본문 전승을 반영 | G에는 εν τω κρινειν τους (사사들이 사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in the judging of the judges]). G에는 "...하던 때에 (in the days of)"라고만 되어 있다. 히브리어 **בימי** (...하던 때에 [in the days of])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 시리아어역 페쉬타에는 **שפט** (사사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사사들의 때에 (in the days of the judges)"라고만 되어 있다.ܒܝܘ̈ܡܝ ܕܝ̈ܢܐ (facil-synct 구문을 쉽게 한 것) ♣ • **ושני בניו** (그의 두 아들 [and two of his sons]) G[Mss] V T도 같은 본문 전승 반영 | G에는 και οι υιοι αυτου (그의 아들들 [and his sons]). S 역시 같은 본문 전승을 반영한다. G S 둘 다 (implicit 함축). **ושני**(그리고 ...의 둘 [and two of])에서 **שני** (...의 둘 [two of])가 반영되지 않았다 • 2 **אלימלך** (엘리멜렉) G[Mss] V S T에도 같은 본문 전승이 반영되어 있다. | G에는 Αβιμελεχ (아비멜렉) • **ויהיו** (그들은 [거기에서] 있었다 [and they were <there>]) G T에도 같은 본문 전승이 반영되어 있다. | 4QRuth[a]에는 **וישבו** (그들은 [거기에서] 살았다 [and they dwelt there]) 이것은 (assim. 1:4? 1:4와의 동화?) | V에는 *morabantur* (그들은 머물러 있었다 [they were staying]) (transl? 번역상의 조정?) | (그들은 거주하였다) ܠܡܥܡܪ S (transl? 번역상의 조정) ♣ • 3 **איש נעמי** (나오미의 남편 [Naomi's husband]) G V S T | *vier eius* (그의 남편) La • 5 **משני ילדיה ומאישה** (두 아들과 남편을 [여의었다] [from two of her sons and from her husband]) G[O] V T | απο του ανδρος αυτης και απο των δυο υιων αυτης (남편과 두 아들을 [여의었다] [from her husband and from her two sons]) G S (chron order 사건 발생 순서를 따라 진술함) ♣ • 6 **וכלתיה** (그의 며느리들 [and her daughters-in-law]) T | prec δυο "two" (앞에 "둘"이 있다). "그의 두 며느리들" G (V) S • 7 **בדרך** (길에서 [on the road]) ([그들이] 길을 [나섰다]) G V (T) | > La S "길에서"라는 말이 La와 S에는 없다. ♣ • 8 **לשתי** (두 [며느리] two) G[Mss] T | > G V S에는 "둘"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 **אמה** (그의 어머니[의 집] [her mother('s house)]) G T | πατρος (πατρικον) αυτης (그의 아버지 [남자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집안>]) G[Mss] (assim-cultur) | *matris vestrae* (너희 어머니들의) La V (assim pron 대명사 동화) | *patris vestri* (너희 아버지들의) V[Mss] (assim-cultur + assim pron 문화 동화와 대명사 동화의 결합) | ܐܒ̈ܗܝܟܝ S (너희 나라 너희 부모의 집 [your country and the house of your parents]) (assim-cultur + assim pron 문화 동화와 대명사 동화의 결합) • 9 **לכם** (너희에게 [to you]) G V | foll ελεον (자비 [mercy]) G[L] S(ampl 확대)| foll **אגר טב שלים** (좋은, 충분한 보상 [a good, full reward]) T (midr 미드라시) ♣ •

ח̇ בטע וסימנה̇ ויצא נה בשבעתיכם מאפליה קפדה בא ובאת שמה ובאו שמה וישבו בה ותאמרנה לה :: ותרין ומזון לכלא בה וחביר.
לאנשים ו̇ פתח וסימנ̇ התחזקו ב̇ בו ולקחתי את לחמי ויצקו לאנשים קחו נשים והולידו והיו לכם לאנשים וחד ויעש דוד לאבנר.
אל אשר ה̇ וסימנהון ועתה לך נחה והתנחלתם יהיה שמה הרוח וקרבו תלכי אלך :: וחלופהון אשר אל ו̇ ועשית שתי טבעת זהב וחבירו ויהי ככרא יהודי ויבא אתי והבנין אשר ומחוצה לשער.
עמך ה̇ וסימנהון והשביע הכהן בפרסות נשים ושכחי רות.
ותהם ג̇ הארץ הקריה כל העיר.

ב̇ ומל . ח̇ בטע קוֹלָן וַתִּבְכֶּינָה׃ 10 וַתֹּאמַרְנָה־לָּהּ כִּי־אִתָּךְ נָשׁוּב לְעַמֵּךְ׃ 11 וַתֹּאמֶר 10
ג̇ נָעֳמִי שֹׁבְנָה בְנֹתַי לָמָּה תֵלַכְנָה עִמִּי הַעוֹד־לִי בָנִים בְּמֵעַי וְהָיוּ לָכֶם
ו̇ . ג̇ . ב̇ לַאֲנָשִׁים׃ 12 שֹׁבְנָה בְנֹתַי לֵכְןָ כִּי זָקַנְתִּי מִהְיוֹת לְאִישׁ כִּי אָמַרְתִּי 12
ב̇ יֶשׁ־לִי תִקְוָה גַּם הָיִיתִי הַלַּיְלָה לְאִישׁ וְגַם יָלַדְתִּי בָנִים׃ 13 הֲלָהֵן 13
ל̇ . ב̇ . ל̇ תְּשַׂבֵּרְנָה עַד אֲשֶׁר יִגְדָּלוּ הֲלָהֵן תֵּעָגֵנָה לְבִלְתִּי הֱיוֹת לְאִישׁ אַל בְּנֹתַי
ב̇ חס א כִּי־מַר־לִי מְאֹד מִכֶּם כִּי־יָצְאָה בִי יַד־יְהוָה׃ 14 וַתִּשֶּׂנָה קוֹלָן 14
וַתִּבְכֶּינָה עוֹד וַתִּשַּׁק עָרְפָּה לַחֲמוֹתָהּ וְרוּת דָּבְקָה בָּהּ׃ 15 וַתֹּאמֶר 15
ל̇ . ב̇ . ב̇ הִנֵּה שָׁבָה יְבִמְתֵּךְ אֶל־עַמָּהּ וְאֶל־אֱלֹהֶיהָ שׁוּבִי אַחֲרֵי יְבִמְתֵּךְ׃
16 וַתֹּאמֶר רוּת אַל־תִּפְגְּעִי־בִי לְעָזְבֵךְ לָשׁוּב מֵאַחֲרָיִךְ כִּי אֶל־אֲשֶׁר
ה̇ וחד ועמך ב̇ דכ̇ פס תֵּלְכִי אֵלֵךְ וּבַאֲשֶׁר תָּלִינִי אָלִין עַמֵּךְ עַמִּי וֵאלֹהַיִךְ אֱלֹהָי׃ 17 בַּאֲשֶׁר 17
תָּמוּתִי אָמוּת וְשָׁם אֶקָּבֵר כֹּה יַעֲשֶׂה יְהוָה לִי וְכֹה יֹסִיף כִּי הַמָּוֶת
ב̇ ובין עצומים . ל̇ יַפְרִיד בֵּינִי וּבֵינֵךְ׃ 18 וַתֵּרֶא כִּי־מִתְאַמֶּצֶת הִיא לָלֶכֶת אִתָּהּ וַתֶּחְדַּל 18
ב̇ . ב̇ לְדַבֵּר אֵלֶיהָ׃ 19 וַתֵּלַכְנָה שְׁתֵּיהֶם עַד־בֹּאָנָה בֵּית לָחֶם וַיְהִי כְּבֹאָנָה 19
ג̇ בֵּית לֶחֶם וַתֵּהֹם כָּל־הָעִיר עֲלֵיהֶן וַתֹּאמַרְנָה הֲזֹאת נָעֳמִי׃ 20 וַתֹּאמֶר 20

**9** קוֹלָן G S T | קולם 4QRuth[a] | prec ἑκάστη $G^{L}$ | *quae elevata voce* V ✤ • **12** לֵכְןָ $G^{O}$ V T | > G S | διὰ τοῦτο $G^{Mss}$ (differ-vocal: לָכֵן) ✤ • הַלַּיְלָה V T | > G S (euphem) | λελαϊκωμένην (λελακκωμένη) $G^{Mss}$ (via חֲלִילָה ? err-graph ?) | βεβηλωμένη α' (via חֲלִילָה ? err-graph ?) | *odie* La (euphem) ✤ • **14** לַחֲמוֹתָהּ 4QRuth[b] | foll καὶ ἐπέστρεψεν εἰς τὸν λαὸν αὐτῆς G (explic) | foll *et habiit* La (explic) | foll *ac reversa* V (explic) | foll ܘܗܦܟܬ ܠܐܘܪܚܗ̇ S (explic) | foll ואזלת לאורחה T (explic) ✤ • **15** שׁוּבִי (V) T | foll δὴ καὶ σύ G S (emph) ✤ • **19** וַיְהִי כְּבֹאָנָה בֵּית לֶחֶם $G^{Mss}$ (V) S T | > G (homtel) • וַתֵּהֹם T | καὶ ἤχησεν G (via וַתָּהֹם ? ) | *audibit* La (interp) | *velox ... fama percrebuit* V (interp) | ܫܡܥܬ S (interp) ✤ •

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0]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11]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12]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찌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13]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14]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좇았더라 [15]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6]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라 [19]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1)나오미냐 하는지라 [20]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9 קולן (그 두 여자들의 목소리 [their voices]) 옛 여성 쌍수(雙數), 두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여 운 것을 말한다 G S T | קולם (그 [남자/여자]들의 목소리 [their voices]) 세 여성이 모두 소리 높여 운 것을 뜻한다 4QRuth[a] | prec εκαστη G[L] | *quae elevata voce* (소리를 높혀 [운] 그들[여인들]) V ♣ • 12 לכן *lēknâ* (가거라 [go along]) "끝 *h*" 없이 불완전한 형태로 쓰여 있으나, 마소라 모음 부호는 *lēknâ*로 읽고 있다. G[O] V T| > G S δια τουτο (그러므로 [therefore]) G[Mss] (differ-vocal: 모음화의 차이 לכן *lākēn*) 같은 자음은 *laken*으로 읽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뜻이 "therefore, 그러므로"이다 ♣ • הלילה (오늘밤 [tonight] [the night]) V T | > G S (euphem 완곡법) 외설스럽다고 하여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 λελαικωμενην (λελακκωμενη) (불경스런 [profaned]) G[Mss] (via חלילה *halilah* ? err-graph ?)| βεβηλωμενη α′ (via חלילה halilah ? err-graph ?) G[Mss]와 α′에는 밖으로 드러나는 성적인 언외의 함축 의미가 있다. (설령 내가 한 남자와 불미스러운 관계를 가져... [if I were to be profaned by a man]) | *odie* (오늘) La (euphem 완곡법) ♣ •14 לחמותה (그 [여자]의 시어머니에게) 4QRuth[a] | foll και επεστρεψεν εις τον λαον αθτης ([오르바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and she returned to her people]) G (explic 함축의미명시) | foll *et habiit* (그리고 그[여자]는 갔다) La (explic 함축의미명시) | foll *ac reversa* (그리고 그[여자]는 돌아갔다) V (explic 함축의미명시) | foll ܘܗܦܟܬ ܘܐܙܠܬ S (explic 함축의미명시) ([오르바는] 돌아서 갔다 [and she turned and went]) | foll ואזלת לאורח T (explic 함축의미명시) ♣ • 15 שובי (돌아가거라 [turn]) (V) T | foll δη και συ (너도 [you too]) G S (emph 강조) 첨가 ♣ • 19 ויהי כבאנה בית לחם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and when they arrived in Bethlehem]) G[Mss] (V) S T | > G (homtel 유사문미탈락) • ותהם (흥분하였다 [was excited]) T | και ηχησεν (큰소리로 말하다 [resound]) G (via ותהם *wattaham* ?) | *audibit* (그는 들었다) La (interp 해석) | *velox .... fama percrebuit* (빠른 상태로 ... 소문이 널리 퍼졌다) V (interp 해석) | ܚܕܝܬ S (기뻐하다 [rejoice]) (interp 해석) ♣ •

קוצרים ד מל והנה בעז ושלאח ושלא ושלאחר.
הלוא ט מל בכתוב וסימנהון שמעת צויתי משנאיך יתעו כתובים דמגלת אסתר
תאנף בנו ביראת כה עשו הטא שלמה מלך.
בשדה ה רפיין וסימנה לא נעבר בשדה לא נטה הוי מגיע בית אל תלכי ללקט
ולא־יפגעו בך בשדה אחר.

אֲלֵיהֶן אַל־תִּקְרֶאנָה לִי נָעֳמִי קְרֶאןָ לִי מָרָא כִּי־ הֵמַר שַׁדַּי לִי ה . ל חס . ל כת א
21 מְאֹד: 21 אֲנִי מְלֵאָה הָלַכְתִּי וְרֵיקָם הֱשִׁיבַנִי יְהוָה לָמָּה תִקְרֶאנָה
22 לִי נָעֳמִי וַיהוָה עָנָה בִּי וְשַׁדַּי הֵרַע לִי: 22 וַתָּשָׁב נָעֳמִי וְרוּת ד וחד ושב והרע
הַמּוֹאֲבִיָּה כַלָּתָהּ עִמָּהּ הַשָּׁבָה מִשְּׂדֵי מוֹאָב וְהֵמָּה בָּאוּ בֵּית לָחֶם
**2** בִּתְחִלַּת קְצִיר שְׂעֹרִים: **2** 1 וְלִנָעֳמִי מֹדָע לְאִישָׁהּ גִּבּוֹר חַיִל מודע
2 מִמִּשְׁפַּחַת אֱלִימֶלֶךְ וּשְׁמוֹ בֹּעַז: 2 וַתֹּאמֶר רוּת הַמּוֹאֲבִיָּה אֶל־נָעֳמִי
אֵלְכָה־נָּא הַשָּׂדֶה וַאֲלַקְּטָה בַשִּׁבֳּלִים אַחַר אֲשֶׁר אֶמְצָא־חֵן בְּעֵינָיו ל . ל . נא
3 וַתֹּאמֶר לָהּ לְכִי בִתִּי: 3 וַתֵּלֶךְ וַתָּבוֹא וַתְּלַקֵּט בַּשָּׂדֶה אַחֲרֵי
הַקֹּצְרִים וַיִּקֶר מִקְרֶהָ חֶלְקַת הַשָּׂדֶה לְבֹעַז אֲשֶׁר מִמִּשְׁפַּחַת ל . ל
4 אֱלִימֶלֶךְ: 4 וְהִנֵּה־בֹעַז בָּא מִבֵּית לֶחֶם וַיֹּאמֶר לַקֹּצְרִים יְהוָה עִמָּכֶם ד מל
5 וַיֹּאמְרוּ לוֹ יְבָרֶכְךָ יְהוָה: 5 וַיֹּאמֶר בֹּעַז לְנַעֲרוֹ הַנִּצָּב עַל־
6 הַקֹּוְצְרִים לְמִי הַנַּעֲרָה הַזֹּאת: 6 וַיַּעַן הַנַּעַר הַנִּצָּב עַל־הַקֹּוְצְרִים ד מל
7 וַיֹּאמַר נַעֲרָה מוֹאֲבִיָּה הִיא הַשָּׁבָה עִם־נָעֳמִי מִשְּׂדֵה מוֹאָב: 7 וַתֹּאמֶר
אֲלַקֳטָה־נָּא וְאָסַפְתִּי בָעֳמָרִים אַחֲרֵי הַקֹּוְצְרִים וַתָּבוֹא וַתַּעֲמֹד מֵאָז ל . ד מל
8 הַבֹּקֶר וְעַד־עַתָּה זֶה שִׁבְתָּהּ הַבַּיִת מְעָט: 8 וַיֹּאמֶר בֹּעַז אֶל־רוּת
הֲלוֹא שָׁמַעַתְּ בִּתִּי אַל־תֵּלְכִי לְלַקֵּט בְּשָׂדֶה אַחֵר וְגַם לֹא תַעֲבוּרִי ט מל בכת . ה
9 מִזֶּה וְכֹה תִּדְבָּקִין עִם־נַעֲרֹתָי : 9 עֵינַיִךְ בַּשָּׂדֶה אֲשֶׁר־יִקְצֹרוּן ב . ל

**21** עָנָה T | ἐταπείνωσέν G V S (differ-vocal: עִנָּה) ✤ • **2:6** הַנִּצָּב עַל־הַקֹּוְצְרִים G T | > $G^{Mss}$ V S (implic) • נַעֲרָה מוֹאֲבִיָּה S T | ἡ παῖς ἡ Μωαβῖτίς G (exeg) | La V (indet) • **7** עַתָּה $G^{Mss}$ V T | ἐσπέρας G (exeg) | > S ✤ • שִׁבְתָּהּ הַבַּיִת זֶה T | οὐ κατέπαυσεν ἐν τῷ ἀγρῷ G (neg + via שָׁבְתָּה + ditt + explic loc) | *ut pausaret in domum* La (via שָׁבְתָּה) | *ne ... domum reversa est* V (via שָׁבָה + neg) | ܒܝܬܐ S (elus abbr) ✤ •

말고 2)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22]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 [1]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3)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2]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뉘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찌어다 하매 [3]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5]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뉘 소녀냐 [6]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8]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 온 것을 마실찌니라

21 ענה (대답하셨다, 시험하셨다 [answered, testified]) T | εταπεινωσεν (괴롭히셨다, 비천하게 하셨다 [afflict, cast down, to be bowed down]) G V S (differ-vocal: ענה ʿinâ) ♣ •

"해설" 뒤에 별도로 실었다.

7) 대마소라의 우리말 번역에서는 대마소라의 원문을 다시 싣는 것은 하지 않았다. 우리말 번역문만을 제시하였다. 원문은 견본 페이지의 위 여백에 나와 있다.

8) 소마소라의 우리말 번역에서는 소마소라의 원문을 다시 싣는 것은 하지 않았다. 우리말 번역문만을 제시하였다. 원문은 견본 페이지의 좌우 여백에 기호로 나와 있다. 이러한 기호에 대한 해설은, 별도의 번역 "BHQ의 서문, 부호와 약자, 용어 정의와 해설"에 번역되어 있다.

9) 소마소라의 우리말 번역에서는 소마소라가 붙어 있는 기초 본문은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10) 본문비평장치에서 설명이 더 보충되어야 할 경우에는 ♣ 표시를 하였다. 이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대마소라와 소마소라 번역 다음에 실린 "본문비평 주석"을 보면 더 상세한 논의를 볼 수 있다.

11) 자주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 • 본문비평장치 안에서 한 항목의 끝 표시
- | 서로 다른 본문 전승 구분 표시
- ♣ 부록 「주석」에 본문비평과 관련된 문제의 읽기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이 있다는 표시

## 3. BHQ Ruth 1:1-22의 본문비평장치 해설

앞의 10-15쪽 견본 본문 해설 참조.

## 4. 대마소라 주기

1:1 상례를 벗어난 문법 구조를 보여 주는 두 절, 히브리어 구약에서 아주 독특한 것: ויהי רעב בארץ 두 번은 억양과 함께: 창 12:10; 룻 1:1

1:10 [ותאמרנה־לה] 여덟 번은 억양과 함께, 출처: 창 8:18; 민 28:26; 렘 2:31; 겔 7:25; 왕하 9:2; 겔 11:18; 대하 20:8; 룻 1:10. 꼭 같게 두 번: 단 4:9, 18.

1:11 לאנשים 여섯 번은 *patalh*, 출처: 삼상 4:9 (한 절 안에 두 번); 삼상 25:11;

왕하 4:40; 렘 29:6; 룻 1:11; 또 한 번은: 삼하 3:20. - 겔 23:40은 언급 안 됨.

1:16 **אל אשר** 다섯 번, 출처: 출 32:34; 민 33:54; 겔 1:12; 42:14; 룻 1:16. 그 반대 **אשר אל**은 여섯 번, 출처: 출 28:26; 그 병행구 (39:19); 렘 36:23; 겔 8:14; 41:12; 40:44. - 두 번째 목록에는 겔 42:13과 47:16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틀림없이 **על**로 읽은 히브리어 대본 탓일 것이다.

1:16 **עמך** 다섯 번, 출처: 민 5:21; 겔 26:11; 나 3:11; 시 45:11; 룻 1:16

1:19 **ותהם** 세 번, 출처: 삼상 4:5; 왕상 1:45; 룻 1:19.

## 5. 소마소라 주기

1:3 **ותשאר ׃** - 두 번째 출현: 룻 1:5.

1:4 **וישאו ׃** - Cf. Ginsburg 2,3, 목록 401a와 401b.

1:6 **בשרה ׃ כתב** - 비록 ה 위에 점이 있다 하여도, 숫자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1:7 **כלתיה ׃ חד מל** - $M^L$의 경우 이 소마소라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 두 경우가 다 결함이 있다. 다만, $M^A$ 본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1:8 **שׁבנה ׃ בנתי בנתי** - 두 번은 **בנתי**와 함께, 룻 1:11, 12. 이 표현의 전체 출현 빈도수는 세 번이다.

1:16 **עמך ׃ וחד ועמך** - **עמך**는 다섯 번 나온다. 한 번은 **ועמך**이다. 사 60:21.

1:17 **יפריד ׃ ובין עצומים** - 두 번 나온다. 잠 18:18.

1:21 **הרע ׃ וחד ושב והרע** - **הרע**는 네 번 나온다. 한 번은 **והרע**이다. 수 24;20.

## 6. 본문비평 주석

**1:1 בימי שפט השפטים** (사사들이 사사의 직무를 수행하던 때에 [in the days of the judging of the judges])

고대의 번역들 중 얼마가 M의 구문론적 결합을 과잉표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캠벨 (*Ruth*, 50)의 견해는 옳다. S와 G는 이 과잉표현을 각기 그

언어의 특성에 따라 잘 해결하였다. 「폴리글롯」 (Antwerp and Paris)와 Vaticanus Urbinas 1에 반영된 T의 *nâgôd* (인도하다 [to lead])는 **שפט**를 M$^{L}$처럼 *šefoṭ*라고 읽지 않고, 달리 *šofēṭ*로 읽은 것을 말해준다. La의 *iudicis* (사사의 [of the judge]) 그리고 V의 (unius) iudicis (한 사사의 [of a judge])역시 *šofēṭ*를 읽었을 가능성를 말하고 있다. Rahlfs (*Studie* 130)는 La의 읽기가 V에서 온 것이고, La의 *iudicis iudicum* (사사의 재판 [judging of a judge])은 V와 G의 읽기를 결합한 것이라고 상상한다.

**1:2** **ויהיו** (그들은 [거기에서] 있었다 [and they were <there>]")

여기에서 T를 언급한 것은 M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T가 동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과 같은 본문 전승을 반영한다. "그들은 왕의 부관들이었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 진술은 아마도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구문을 완전하게 마무리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 같다.

S와 V는 **היה** (to be)가 현재의 맥락에서 지니고 있는 의미의 구성 성분을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비록 **ישב** (to dwell)가 다른 곳에서 같은 시리아어 동사로 번역된다 하더라도, S와 V가 4QRuth$^{a}$에 의존한다고 볼 수는 없다. S는 2절과 4절에서 같은 시리아어 대응 낱말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V는 문체상의 다양성을 살려서 같은 히브리어 동사라 하더라도 한 곳에서는 *morabantur* (그들은 머물러 있었다)라고 번역하였고, 다른 곳에서는 *manseruntque* (그들은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번역하였다. 4QRuth$^{a}$는 1:4와의 동화(同化)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서 G는 분명히 M의 난독(難讀 *lectio difficilior*)을 지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문의 여지는 있다. 두 개의 긴스벅 사본은 무시될 수 있다.

**1:5** **משני ילדיה ומאישה**: (두 아들과 남편을 [여의었다] [from two of her sons and from her husband])

G와 S는 사건 발생의 연대적 순서를 회복시킨다. M의 교차대구(交叉對句) 형식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1:7** **בדרך** (길에서 [on the road]) ([그들이] 길을 [나섰다]) T중에는 편집본에 따라 7b 전체가 없는 것도 있다. 그러나 Vaticanus Urbinas 1와 다른 모든 사본에는 7b가 빠져 있지 않다. T의 몇 몇 편집본에 이것이 빠져 있는 것은 유사문미(類似文尾)에 따른 탈락으로 보인다. **עמה**의 마지막 **ה**에서부터 **יהודה**의 마지막 **ה**까지의 부분이 탈락된 것이다 (Campbell, *Ruth*, 60).

**1:9 לכם** (너희에게 [to you])

스퍼버의 편집본에는 **אגר שלים**이라고 되어 있다. Vaticanus Urbinas 1에는 **אגר טב שלים** "좋은, 충분한 보상 (a good, full reward)"이라고 되어 있다. 전체 문장은 "네가 내게 베푼 친절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레빈(Etan Levine, *Aramaic Version*, 51)은 이것을 "현저한 미드라시적 첨가 (significant midrashic addition)"라고 옳게 지적한다. 그러므로, T의 평가가 S와 $G^{L}$의 평가와는 다르다. 이 읽기가, 54 75 82 106 134 344 314 93에 의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루시안적 성격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 랄프스 (*Studie*, 80, note 1)에 근거하여 여기에서는 106의 읽기를 제시하였다.

**1:9 קולן** (그 [남자/여자]들의 목소리 [their voices])

오직 V만이, 세 여성 모두 다가 아니라, 다만 두 여성만이 울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만일 *mem* 접미사가 옛 여성 쌍수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4QRuth[a]도 V와 같은 내용일 수 있다 (Campbell, *Ruth*, 65, 66). 히브리어 구문, 특히 10절 서두의 구문은 확실히 그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여기에서 쌍수 가정이 추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4QRuth[a]의 읽기를 바람직한 읽기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1:12 לכן** *lēknâ* (가거라 [go along])

이것이, 끝 **ה**가 없이 기록되어 있어서 명령형으로서는 불완전한 표기이기 때문에 그리스어 사본들 중에 더러는 자음 본문 **לכן**을 *lākēn* (그러므로)으로 읽었다. S는 반복되는 정보를 겉으로 들어내지 않고 함축적으로 그대로 두는 경향을 보인다.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의 두 번째 동사의 첨가 곧 앞뒤의 맥락이 없는 혹은 접속사를 생략한 그러한 첨가는, 그 두 동사가 8절과 12절에서 교차대구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확실히 본래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1:12 הלילה** : (오늘밤 [tonight] [the night])

그리스어 λελαικωμενην에 대한 히브리어 대본 본문은 이미 1781년에 샤르펜버그 (J. G. Scharfenberg, *Animadversiones*, 87)가 언급한 바 있다. 이 그리스어 읽기는 어쩌면 테오도션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 (Thronhill, *Greek Text*, 239). 심마쿠스 역의 συλλαβειν은 **הלילה**의 대응 낱말일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히브리어 숙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 같다. 그것이 V의 (*hac nocte*) *concipere* ([오늘밤에] 임신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1:14 לחמותה** (그 [여자]의 시어머니에게)

후비앙 (C. F. Houbigant)은, 모든 고대 번역이 동일한 추가 정보에 대하여, M과는 달리, 그것들 사이에서 일치를 보이는 것을 보면, M이 어쩌면 본래의 원본을 줄여 썼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본문비평장치는 고대 번역들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주석을 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T의 경우 안트워프 폴리글롯과 레빈이 사용한 기타 다른 여러 사본의 주석은 본문비평장치에 제시되었다. (론돈 폴리글롯과 마소라 성서에는 주석이 없다.) 역본들 사이의 차이들은 각 번역판이 "시어머니와의 입맞춤 (kissing of the mother-in-law)"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유의 방식으로 확연하게 나타내려했다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밝힌다. 벅스토프 (Johann Buxtorf, Anticritica, 691)가 이미 짐작했듯이, 고대 번역들은 바로 인접 문맥에서 단서를 쉽게 찾았다. 이 모든 이유에 관해서, CTAT (1, 130)는 M을 가장 초기의 것으로 입증된 본문, 더욱이 4 QRuth$^{b}$의 지지를 받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한다.

**1:15 שובי** (돌아가거라 [turn])

G는 δη και συ (너도)라는 여분의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75에 δη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본이 속한 계열에는 δη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75에는 오기가 많이 발견된다 (Rahlfs, Studie, 66, note 2). La와 다른 고대 역본들 곧 에티오피아어 역본, 아르메니아어 역본, 사히드어 역본 등에 δη가 없다는 것도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번역자들에게 δη (indeed, then, therefore, now)를 그들의 수용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을 수 있기 때문이다 (Rahlfs, Studie, 56, note 5). 라우디아누스 사본이 *vade* (가거라 go) 다음에 *et tu* (너도 [you too])를 첨가한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V가 M의 엄격성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은 *CTAT* (1, 130)가 지적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는 T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에서 T는 절 끝에 **לעמיך ולרחלתיך** (네 백성 네 신들에게로 [to your people and to your gods])라는 여분의 정보를 제공한다.

**1:19 ותהם** (흥분하였다 [was excited])

고대 번역들의 일반적인 해석 경향은, 겔러만과 함께, G를 다른 고대 역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동일한 해석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도록 부추긴다 (Gillis Gerleman, *BK*, 17). 다른 한 편, 사전 편찬상의 고찰은 어근의 이동을 에

르리히 (Ehrlich, *Randglossen*, 22)와 주옹 (Joüon, *Ruth*, 43)이 제안한 것처럼 매혹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바로, 만일 G 역시 해석적인 것이라고 고려된다면 제거될 수 있는, 이도 저도 아닌 경우이다. 우리는 우리의 현대적인 사전편찬의 희생물인가?

**1:21** ענה (대답하셨다, 시험하셨다 [answered, testified])

바로 인접 문맥은 확실히 어근 ענה II의 piel 의미인 "괴롭히다 (afflict)"에 불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G La V S 등이 그러한 의미를 선택한 것은 그리 놀랍지 않다. 그렇지만, 이미 최근의 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CTAT*, 1.131; Sasson, *Ruth*, 77; Hubbard, *Ruth*, 126f; de Waard, *Handbook*, 83), 어근 ענה II는 늘 "괴롭히다 (afflicted)"의 목적격으로 결합되지, 결코 ענה의 *qal*의 의미 ("입증하다 [testify]")와 관련된 경우에서처럼 전치사 ב에 결합되지는 않는다. 비록 신적인 대리자가 결단코 "입증자, 증명자, 증언자 (testifier)"로 나타날 수 없다 하더라도 (Jacob M. Myers, *Literary Form*, 22), M의 모음화 *ʿānâ*는 기필코 유지되어야 한다. 전치사 ל와의 결합은 긍정적 증거인데 반하여, 전치사 ב와의 결합은 부정적 증거를 나타내는 것 같다.

## 본문비평 주석의 참고 문헌


Barthélemy, Dominique. *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 1*. OBO 50/1. Fribourg and Göttingen: Editions Universitaires and Vandenhoeck & Ruprecht, 1982.

Beattie, D.R.G. *The Targum of Ruth*. In *The Aramaic Bible*, vol. 19. Collegeville, MN: The Liturgical Press, 1994.

Buxtorf, Johann. *Anticritica seu vindiciae veritatis hebraicae, adversus L. Cappelli Criticam*...Basel: L. Regis, 1653.

Campbell, Edward F. *Ruth. AB*, 7.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1975.

Ehrlich, Arnold B. *Randglossen zur Hebräischen Bibel*, vol. 7. Hildesheim: Georg Olms, 1968.

Gerleman, Gillis. *Ruth / Das Hohelied. BKAT, XVIII/1*. 2nd ed.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81.

Gow, Murray D. *The Book of Ruth. Its Structure, Theme and Purpose*. Leicester: Apollos, 1992.

Houbigant, C. F. *Biblia Hebraica cum notis criticis et versione latina ad notas criticas factas* ... Paris: A. C. Briasson and L. Durand, 1753

Hubbard, Robert L. *The Book of Ruth*. NICOT.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1988.

Ibn Ezra. *Sephat Jether ... zur Verteidigung R. Saadia's gegen ... Dunasch ben Librat.* G. Lippmann, editor. Frankfurt: [G. H. Lippman], 1843.

Joüon, Paul. *Ruth. Commentaire philologique et exégétique*. Rome: Institut Biblique Pontifical, 1953.

Lust, J. *et al. A Greek - 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2, 1996.

Myers, Jacob M. *The Linguistic and Literary Form of the Book of Ruth*. Leiden: E. J. Brill, 1955.

Peritz, M. "Zwei alte Übersetzungen des Buches Ruth." *Monatsschrift für Geschichte und Wissenschaft des Judenthums*(1899): 49ff.

Rahlfs, Alfred. *Studie über den griechischen Text des Buches Ruth*. Berlin: Weidmannsche Buchhandlung, 1923.

Rudolph, W. *Das Buch Ruth, Das Hohe Lied, Die Klagelieder.* KAT, XVII. Gütersloh: Gerd Mohn, 1962.

Sasson, Jack M. *Ruth. A New Translation with a Philological Commentary and a Formalist - Folklorist Interpretation.*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9.

Scharfenberg, J. G. *Animadversiones quibus fragmenta Versionum Graecarum V. T. a Bern. Montefalconio collecta illustrantur emendantur. Spec. II.* Leipzig: Guil. Gottlob Sommerum, 1781.

Thornhill, Raymond. "The Greek Text of the Book of Ruth. A Grouping of Manuscripts according to Origen's Hexapla." *VT* 3 (1953): 236-249.

de Waard, J. "Translation Techniques Used by the Greek Translators of Ruth." *Biblica* 54 (1973): 499-515.

de Waard, Jan and Nida, Eugene A. *A Translator's Handbook on the Book of Ruth*. 2nd ed.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92.

Weil, Gérard E. *Massorah Gedolah I*. Rome: Pontificium Institutum Biblicum, 1971.

Weippert, M. "Ein neuer Kommentar zu Ruth." *Biblica 59* (1978): 268-273.

Wright, Charles H. H. *The Book of Ruth in Hebrew, with a Critically-Revised Text, Various Readings, including a New Collation of twenty-eight Hebrew Mss and a Grammatical and Critical Commentary; to which is appended the Chaldee Targum, with Various Readings, Grammatical Notes, and a Chaldee Glossary*. London: Williams & Norgate. Leipzig: Rudolph Hartmann, 1864.

Zimolong, B. "Zu Ruth 2.7." *ZAW* 58 (1940-41): 156-158.

# 「BHS」 시편의 본문비평장치 해설

김정우
(총신대학교 교수, 구약학)

제일권

**1** [1]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2** [1]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4]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5]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7]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9]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1편** 1[a] 시편 제 1편이란 숫자(numerus)를 표시하는 기호 알렙과 그 위의 홀렘(**א**)이 "레닌그라드 사본"(L)에는 "없다" (>) 혹은, "나타나지 않는다." ‖ 1[a,b] 시리아역은 악인의 "꾀"(a)와 죄인의 "길"(b)을 "도치시켰다"(invers). 따라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꾀에 서지 아니한다"로 읽고 있다. ‖ 3[a] 3절의 중앙 소절을 시작하는 히브리어 관계사 **אשׁר**는 카이로 게니자 히브리어 시편 단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3[b-b] 3절의 마지막 소절을 이루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는 첨가된 것이다. 여호수아 1:8을 참조하라. ‖ 4[a] 마소라 사본의 "그렇지 않음이여"를 "70인역을 참조하여 '악인'(**רְשָׁעִים**) 뒤에 삽입하라(ins)." BHK는 "70인역과 함께 삽입하라"(ins cum G)고 말한다. 70인역뿐 아니라(ouk houtos), 불가타역도 "그렇지 않음이여"(non sic)를 두 번 반복하고 있다. ‖ 4[b] "오직 바람에 나는"에 대해 "70인역은 '땅의 얼굴에서(즉 땅에서) 일어나는'을 첨가하고 있다." 아마 시상의 전환이 돌연하기 때문에 70인역 번역자는 문체를 순화시키기 위하여 이같은 내용을 첨가한 것 같다 ‖ 5[a] 의인의 "회중에"(**בעדת**)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70인역은 ἐν βουλῇ, "생각, 뜻, 계획, 결심, 꾀로"라고 번역하였다. "1절에 있는 악인의 '꾀'(**בַּעֲצַת רְשָׁעִים** = ἐν βουλῇ ασεβών)를 참조하라." ‖ **시편 2편** 2[a-a]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a~a)는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 2[b] 레닌그라드 사본과 같이 **יהוה**에서 첫 자음 위에 분절기호 게레쉬(Geresh)가 있다. 또한 많은 히브리어 사본들과 케니코트와 드 로시와 긴스버거가 편집한 히브리어 본문 제 2판(Edd)에는 네 자음문자(yhwh) 위에 게레쉬와 르비아(Revia) 표시를 하고 있다. ‖ 2[c] 70인역은 διαψαλμα(즉, 히브리어 **סֶלָה**)를 첨가하고 있다. ‖ 4[a] 카이로 게니자의 시편 단편과 많은 히브리어 사본들은 "주께서"(**אֲדֹנָי**)를 **יהוה**로 읽는다. 70인역과 시리아역은 그 앞에 접속사 (**ו**)를 둔다(pr cop). ‖ 5[a] 마소라 사본의 "그의 분노 중에"(**בְּחֲרוֹנוֹ**)에 대해 두 개의 히브리어 사본은 **ובחמתו** (그리고 그의 뜨거움으로)로 읽는다. (이 형태에 대해서는 시 19:7[히]을 보라.) ‖ 6[a] 마소라 사본의 "세웠다"라는 동사에 대해, 70인역이 수동태로 읽고 있다. 즉, 70인역은 "내가 그에 의해 그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왕으로 세움 받았다"로 읽는다. 이렇게 보면, 6절은 마소라 사본처럼 주의 말씀이 아니라, 왕의 말이 된다. ‖ 6[b] 70인역은 3인칭 단수 접미어를 두어, 마소라 사본의 "나의 왕"을 "그에 의하여 왕으로"로 읽는다. ‖ 7[a] 시리아역은 1인칭 단수 접미어를 갖고 있다. 이리하여 "나의 명령"이 된다. ‖ 8[a] 70인역 (시리아역)은 "καὶ δῶσω σοι" 즉 "내가 너에게 주리라"(**וְאֶתְּנָה**-?)로 읽고 있다. ‖ 8[b] "너의 유업"(**נַחֲלָתֶךָ**)에 대해 "카이로 게니자의 시편 단편과 몇몇 히브리어 사본들은 "너의 유업들"(**נַחֲלֹתֶיךָ**)"로 읽는다. ‖ 8[c] 한 히브리어 사본은 "네 소유" 다음에 **עד־** (~까지)를 첨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땅끝까지"는 동사 "주리라"의 목적어가 된다. ‖ 9[a] "70인역과 (시리아역)은 마소라 사본의 "깨뜨림이여"(**תְּרֹעֵם**)를 ποιμανεῖς 즉 "다스리다"(**תִּרְעֵם** )로 읽고 있다. 이것은 같은 자음(**תרעם**)에 모음을 달리 붙여 읽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상의 차이는 심각하지 않지만,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 물론 두 가지 독법이 다 가능하다. ‖ 9[b] 70인역의 알렉산드리아 사본($G^A$)과 루시안 개정판($G^L$)과 시리아역은 마소라 사본의 "질그릇 같이"를 복수형으로 읽는다. ‖

# PSALMI תהלים

**1** 1 אַשְׁרֵי־הָאִישׁ אֲשֶׁר | לֹא הָלַךְ בַּעֲצַת[a] רְשָׁעִים
ד בטע[1] . ל[2] . מן פסוק דאית בהון לא לא . ב

וּבְדֶרֶךְ[b] חַטָּאִים לֹא עָמָד וּבְמוֹשַׁב לֵצִים לֹא יָשָׁב׃
ד[3] . ב . ב . ה קמ[4]

2 כִּי אִם בְּתוֹרַת יְהוָה חֶפְצוֹ וּבְתוֹרָתוֹ יֶהְגֶּה יוֹמָם וָלָיְלָה׃
נה בטע ר״פ בסיפ . ה[5] . ג ב מל וחד חס

3 וְהָיָה כְּעֵץ שָׁתוּל עַל־פַּלְגֵי מָיִם
אֲשֶׁר[a] פִּרְיוֹ | יִתֵּן בְּעִתּוֹ וְעָלֵהוּ לֹא־יִבּוֹל ב[6] . ד

[b]וְכֹל אֲשֶׁר־יַעֲשֶׂה יַצְלִיחַ[b]׃

4 לֹא־כֵן הָרְשָׁעִים[a] יט[7]

כִּי אִם־כַּמֹּץ אֲשֶׁר־תִּדְּפֶנּוּ רוּחַ[b]׃ ב[8]

5 עַל־כֵּן | לֹא־יָקֻמוּ רְשָׁעִים בַּמִּשְׁפָּט וְחַטָּאִים בַּעֲדַת[a] צַדִּיקִים׃
ז חס[9] . ח[10] דגש וכל איוב דכות ב מ א . ד[11]

6 כִּי־יוֹדֵעַ יְהוָה דֶּרֶךְ צַדִּיקִים וְדֶרֶךְ רְשָׁעִים תֹּאבֵד׃
י מל וכל ת ד מ ק דכות ב מ ג חס

**2** 1 לָמָּה רָגְשׁוּ גוֹיִם וּלְאֻמִּים יֶהְגּוּ־רִיק׃ ל

2 יִתְיַצְּבוּ | מַלְכֵי־אֶרֶץ וְרוֹזְנִים נוֹסְדוּ־יָחַד
ה בטע ר״פ בשלש ספרים[1] . ג מל בלישׁ[2]

[a]עַל־יְהוָה[b] וְעַל־מְשִׁיחוֹ[ac]׃ לא[3] . ל

3 נְנַתְּקָה אֶת־מוֹסְרוֹתֵימוֹ וְנַשְׁלִיכָה מִמֶּנּוּ עֲבֹתֵימוֹ׃ ל . ל ומל . ל

4 יוֹשֵׁב בַּשָּׁמַיִם יִשְׂחָק אֲדֹנָי[a] יִלְעַג־לָמוֹ׃ ב מל בסיפ[4]

5 אָז יְדַבֵּר אֵלֵימוֹ בְאַפּוֹ וּבַחֲרוֹנוֹ[a] יְבַהֲלֵמוֹ׃ ב . ל . ל . ל

6 וַאֲנִי נָסַכְתִּי[a] מַלְכִּי[b] עַל־צִיּוֹן הַר־קָדְשִׁי[b]׃ סז ר״פ לג[5] מנה בכתיב . ל[6]

7 אֲסַפְּרָה אֶל חֹק[a] יְהוָה
אָמַר אֵלַי בְּנִי אַתָּה אֲנִי הַיּוֹם יְלִדְתִּיךָ׃ כז מלעיל . ל

---

**Ps 1** [1]Mm 3193. [2]וחד אשרי איש Ps 112,1. [3]Mm 3194. [4]Mm 87. [5]Mp sub loco. [6]Mm 3195. [7]Mm 436. [8]Mm 3196. [9]Mm 1709. [10]Mm 772. [11]Mm 2210. **Ps 2** [1]Mm 3654. [2]Mm 3656. [3]Mm 486. [4]Mm 3231. [5]Mp sub loco. [6]וחד אל ציון Sach 8,3.

**Ps 1** [a] numerus > L ‖ **1,1** [á.b] Σ invers ‖ **3** [a] > 𝔗 ‖ [b–b] gl, cf Jos 1,8 ‖ **4** [a] ins לא כן cf 𝔊 ‖ [b] 𝔊 + *ἀπὸ προσώπου τῆς γῆς* ‖ **5** [a] 𝔊 *ἐν βουλῇ* cf 1 ‖ **Ps 2,2** [a–a] frt gl ‖ [b] sic L, mlt Mss Edd יְ֭הוָה ‖ [c] 𝔊 + *διάψαλμα* = סֶלָה ‖ **4** [a] 𝔗 mlt Mss יהוה; 𝔊Σ pr cop ‖ **5** [a] 2 Mss ובחמתו ‖ **6** [a] 𝔊 pass ‖ [b] 𝔊 suff 3 sg ‖ **7** [a] Σ + suff 1 sg.

[10]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3**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1]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3]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4]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5]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7]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8]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4**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2]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3]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4]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

10[a] 카이로 게니자의 시편 단편과 몇몇 히브리어 사본들은 마소라 사본의 "교훈을 받을지어다"(הִוָּסְרוּ)를 "세움을 입으라" (הוּסְדוּ, יסד의 호팔 명령형)로 읽는다. 한 히브리어 사본과 70인역은 시편 148:11과 같이 "모두"(כָּל־)를 첨가하고 있다. ‖ 11/12[a] 한 히브리어 사본은 마소라 사본의 "경외함으로"(בְּיִרְאָה)를 "기쁨으로"(בְּשִׂמְחָה)로 읽는다. [b-b] 마소라 사본의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b–b)에 대해 BHS는 새로운 독법을 제시한다. (1) (בִּרְעָדָה נַשְּׁקוּ לְרַגְלָיו), "떨며 그의 발에 입맞추라"로 읽으라(lese). 이것은 "떨며 즐거워 하는 것"이 개념상 모순되기 때문이다. 혹은 (2) "그리고 떨며 그의 이름을 높여라" (וְגִילוּ שְׁמוֹ בִרְעָדָה)로 읽으라. 그리고 נַשְּׁקוּ־בַר는 중복오사(dittg)이므로 삭제하라(et dl). ‖ 12[c] 마소라 사본의 "길에서"에 대해 70인역이 "의로운 길로부터(ἐξ ὁδοῦ δικαίας)"로 읽으며(=דֶּרֶךְ צְדָקָה), 시리아역은 "그의 길로부터"(*mn 'wr. h*, a via eius)로 읽는다. 여기에서 70인역은 시편 2편을 "지혜화"(sapientializing) 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 12[d] 두 개의 히브리어 사본이 마소라 사본의 "의지하는 자"(חוֹסֵי; 연계형)를 חוֹסִים(절대형)으로 읽는다. ‖ **시편 3편** 3[a] 마소라 사본에서 라메드 안에 점이 찍혀 있는 것은 레닌그라드 사본상의 오류이다. 마소라 사본의 "그에게"(לוֹ)는 시리아역에서 "너를 가리켜"(for you)로 읽고 있으며 우리말 번역에서는 공동역("너 따위는")과 표준역("너를")이 시리아역을 따르고 있다. 이리하여,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원수들이 시인에게 간접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한 말이 된다. 그러나 시편에서 인칭의 급작스런 변화는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 3[b] 마소라 사본의 "하나님께"를 70인역은 3인칭 남성단수인 "그의 하나님"(באלהיו)으로, 시리아역은 2인칭 여성단수인 "너의 하나님"으로 읽는다. ‖ 4[a-a] 마소라 사본의 "방패"를 70인역에서 "나의 호민관, 보호자"라는 의미로 나타난다. 이것은 70인역이 의역한 경우로 여겨질 수 있다. ‖ 5[a] 이것은 "아마 וְיַעֲנֵנִי로 읽으라"는 뜻이다. 이것은 마소라 사본의 독법인 "그리고 그가 응답하시는도다"(וַיַּעֲנֵנִי)에서 접속사(와우)를 연계형(ו)이 아니라, 단순 접속사(וְ)로 읽는 것이다(Jerome). 이리하여 시제 번역에 있어서 과거형(KJV)과 현재형(RSV)으로 갈라지며, 70인역은 두 동사를 모두 제 1부정과거(aorist)로 읽는다. 이 절과 가장 비슷한 구문은 시편 22:3에서 אֶקְרָא // וְלֹא תַעֲנֶה와 27:7, אֶקְרָא // וַעֲנֵנִי로 나타난다. ‖ 7[a] 마소라 사본의 "천만인"(multitude, myriad; מֵרִבְבוֹת; from רְבָבָה+מִ)을 탈굼은 מֵרִיבוֹת로 읽는다. "천만인"(רִבְבוֹת עָם)에서 "사람"은 군인을 가리킨다(시2:1). ‖ 8[a] 마소라 사본의 목적격 형태소 אֶת 는 "몇몇 사본에는 없다." ‖ 8[b] 마소라 사본의 לְחִי 를 70인역은 *ματαίως*로 읽는다. 즉 히브리어로 חִנָּם "보상 없이, 헛되이, 이유 없이"로 읽고 있으며, 여기에 3인칭 복수 접미어를 붙이고 있다. 70인역은 "이는 주께서 이유 없이 나의 원수(된 자들)을 치셨으며, 죄인들의 이를 부러뜨렸습니다." 혹은 "댓가 없이 나의 원수를 쳤다"는 뜻이다. 시리아역과 탈굼은 3인칭 복수 접미어 "그들의"를 첨가한다. 8[c] 몇몇 히브리어 사본들과 시리아역은 접속사를 첨가하고 있다. ‖ 9[a] 몇몇 히브리어 사본들과 70인역과 시리아역은 וְעַל로 읽는다. 즉 마소라 사본에 접속사를 첨가하고 있다. 이리하여 8절을 두 개의 소절(혹은 행)로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다. 9[b] 마소라 사본의 "셀라"는 70인역에 나타나지 않는다. ‖ **시편 4편** 2[a] 마소라 사본에서 "응답하소서"(명령형)에 대해 70인역은 "응답하였다"라는 완료형(*εἰσήκουσέν μου* = עָנָנִי)으로 이해하고 번역한다. 70인역을 따르면 주님은 이미 시인에게 "응답하셨다". 따라서 이 절은 간청이 아니라, 응답에 대한 감사가 된다. ‖ 2[b] 마소라 사본의 "(내 의의) 하나님"(אֱלֹהֵי)을 시리아역은 *'lhj wprwq'* deus meus et vindex(나의 하나님과 구원자)로 읽는다. ‖ 2[c] 마소라 사본의 הִרְחַבְתָּ("넓게 하다")는 다른 명령형 동사들과 달리 완료형으로 나타나므로 הַרְחִיבָה (히필형 명령형)나 הִרְחִיב (히필형 3인칭 완료)로 수정하기를 제안한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완료형도 기원형(precative)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3[a-a]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a-a]를 70인역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 마음이 둔하겠느냐(강팍하겠느냐)?"(*ἕως πότε βαρυκάρδιοι* = כִּבְדֵי לֵב לָמָּה)로 이해한다(출7:14). "고집스런 마음을 가지려 하느냐"(임승필 각주 참조). 여기에서 70인역은 마소라 사본과 다른 사본을 가진 것보다, 같은 원본의 자음에 다른 모음을 붙여 읽은 것으로 평가된다. ‖ 3[b] 마소라 사본의 "나의 영광"(כְבוֹדִי)을 아퀼라와 제롬은 *ἔνδοξοί μου* = נִכְבָּדַי, 즉 "나의 귀하신 자"로 읽고 있다. ‖ 3[c] 마소라 사본의 "좋아하다"에 대해 BHS는 "70인역이 이 앞에 *ἵνα τί* (wherefore)를 선행시킨다" 고 말한다. ‖ 3[d] 70인

8 שְׁאַל מִמֶּנִּי וְאֶתְּנָה[a] גוֹיִם נַחֲלָתֶךָ[b] וַאֲחֻזָּתְךָ[c] אַפְסֵי־אָרֶץ׃ ל̇ בכתיב[7]
9 תְּרֹעֵם[a] בְּשֵׁבֶט בַּרְזֶל כִּכְלִי[b] יוֹצֵר תְּנַפְּצֵם׃ ל̇. ו̇[8]
10 וְעַתָּה מְלָכִים הַשְׂכִּילוּ הִוָּסְרוּ[a] שֹׁפְטֵי אָרֶץ׃ ל̇. ל̇[9]
11 עִבְדוּ אֶת־יְהוָה בְּיִרְאָה[a] וְגִילוּ בִּרְעָדָה׃[b] 12 נַשְּׁקוּ־בַר[b] ד̇[10]. ל̇. ל̇. ג̇ דמטע
פֶּן־יֶאֱנַף׀ וְתֹאבְדוּ דֶרֶךְ[c] כִּי־יִבְעַר כִּמְעַט אַפּוֹ ל̇
אַשְׁרֵי כָּל־חוֹסֵי[d] בוֹ׃ כל מל ב מ א[11] חס

3 1 מִזְמוֹר לְדָוִד בְּבָרְחוֹ מִפְּנֵי׀ אַבְשָׁלוֹם בְּנוֹ׃ ג̇. ח̇ ר״פ
2 יְהוָה מָה־רַבּוּ צָרָי רַבִּים קָמִים עָלָי׃
3 רַבִּים אֹמְרִים לְנַפְשִׁי אֵין יְשׁוּעָתָה לּוֹ[a] בֵאלֹהִים[b] סֶלָה׃ ב̇
4 וְאַתָּה יְהוָה[a] מָגֵן בַּעֲדִי[a] כְּבוֹדִי וּמֵרִים רֹאשִׁי׃ ל̇[1]. כו
5 קוֹלִי אֶל־יְהוָה אֶקְרָא וַיַּעֲנֵנִי[a] מֵהַר קָדְשׁוֹ סֶלָה׃
6 אֲנִי שָׁכַבְתִּי וָאִישָׁנָה הֱקִיצוֹתִי כִּי יְהוָה יִסְמְכֵנִי׃ ל̇. ג̇
7 לֹא־אִירָא מֵרִבְבוֹת[a] עָם אֲשֶׁר סָבִיב שָׁתוּ עָלָי׃ ב̇[2]. ד̇
8 קוּמָה יְהוָה׀ הוֹשִׁיעֵנִי אֱלֹהַי ב̇ בטע
כִּי־הִכִּיתָ אֶת[a]־כָּל־אֹיְבַי לֶחִי[b] שִׁנֵּי[c] רְשָׁעִים שִׁבַּרְתָּ׃
9 לַיהוָה הַיְשׁוּעָה עַל[a]־עַמְּךָ בִרְכָתֶךָ סֶּלָה[b]׃ ג̇[3]. ב̇[4]

4 1 לַמְנַצֵּחַ בִּנְגִינוֹת מִזְמוֹר לְדָוִד׃ ג̇ מילין בליש
2 בְּקָרְאִי עֲנֵנִי[a]׀ אֱלֹהֵי[b] צִדְקִי
בַּצָּר הִרְחַבְתָּ[c] לִּי חָנֵּנִי וּשְׁמַע תְּפִלָּתִי׃ [סֶלָה׃ ל̇. ל̇
3 בְּנֵי אִישׁ עַד־מֶה[a] כְבוֹדִי[b] לִכְלִמָּה[a] תֶּאֱהָבוּן[c] רִיק תְּבַקְשׁוּ[d] כָזָב ל̇. כד[1]. ל̇
4 וּדְעוּ כִּי־הִפְלָה[a] יְהוָה חָסִיד[b] לוֹ[b] יְהוָה יִשְׁמַע[c] בְּקָרְאִי אֵלָיו׃ ל̇ כת ה

[7] Mm 886. [8] Mm 1420. [9] וחד הוסרי Jer 6,8. [10] Mp sub loco. [11] Na 1,7. **Ps 3** [1] Mm 623. [2] Dt 33,2. [3] Mm 2250. [4] Gn 27,35. **Ps 4** [1] Mm 592.

**8** [a] 𝔊(𝔖) *καὶ δώσω σοι* = תֶּנְךָ–? ‖ [b] ℭ pc Mss –תיך ‖ [c] Ms + עַד־ ‖ **9** [a] 𝔊(𝔖) *ποιμανεῖς* = תִּרְעֵם ‖ [b] 𝔊[AL]𝔖 pl ‖ **10** [a] ℭ pc Mss הוסדו; Ms 𝔊 + כָּל־ ut 148,11 ‖ **11/12** [a] Ms בְּשִׂמְחָה ‖ [b–b] l: (בְּרַגְלָיו) בְּ׳ נ׳ לְרַגְלָיו, al: וְגַדְּלוּ שְׁמוֹ ברעדה et dl נ׳ בר (dttg) ‖ [c] 𝔊 *ἐξ ὁδοῦ δικαίας*, 𝔖 *mn ʾwrḥh* a via eius ‖ [d] 2 Mss –ים ‖ **Ps 3,3** [a] 𝔖 *lkj* tibi ‖ [b] 𝔊 + suff 3 m sg, 𝔖 + suff 2 f sg ‖ **4** [a–a] 𝔊 *ἀντιλήμπτωρ μου* ‖ **5** [a] frt l וַיַּ׳ ‖ **7** [a] 𝔗 *mmṣwtʾ* = מְרִיבוֹת ‖ **8** [a] > pc Mss ‖ [b] 𝔊 *ματαίως* = חִנָּם; 𝔖𝔗 + suff 3 pl ‖ [c] pc Mss 𝔖 וְשִׁנֵּי ‖ **9** [a] pc Mss 𝔊𝔖 וְעַל ‖ [b] > 𝔊 ‖ **Ps 4,2** [a] 𝔊 *εἰσήκουσέν μου* — עָנָנִי ‖ [b] 𝔖 *ʾlhj wprwqʾ* deus meus et vindex ‖ [c] prp הַרְחִיבָה vel הִרְחִיב ‖ **3** [a–a] 𝔊 *βαρυκάρδιοι* = כִּבְדֵי לֵב ‖ [b] α′ (Hier) *ἔνδοξοί μου* = נִכְבָּדַי ‖ [c] 𝔊 pr *ἵνα τί* ‖ [d] 𝔊𝔖 pr cop ‖ **4** [a] ℭ mlt Mss הפלא cf 𝔊 Hier ‖ [b–b] prb l חַסְדּוֹ לִי cf 31,22 ‖ [c] 𝔊 + suff 1 sg.

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5]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6]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7]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5**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1]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4]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5]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6]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7]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8]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9]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10]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11]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역과 시리아역은 마소라 사본의 "구하다" 앞에 연결사(cop)를 두고 있다. ‖ 4[a] 마소라 사본의 "택하신 줄 알라"(הפלה)(פלה, 히필형, 출8:18;9:4; 11:7)에 대해 BHS는 "카이로 게니자의 시편 사본과 몇몇 히브리어 사본들이 '기적을 베푸신다'(הפלא)로 읽으며, 70인역과 제롬을 참조하라"고 한다. "주님께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알아라"(임승필; 시 31:21 참조). ‖ 4[b-b] חַסְדּוֹ לִי cf 31,22 마소라 사본의 "경건한 자를 그를 위해"(חָסִיד לוֹ)를 "시편 31:22을 참조하여 아마 '그의 인자하심을 나에게'로 읽으라"로 BHS는 제안한다. ‖ 4[c] 마소라 사본의 "들으시리로다"에 대해 BHS는 "70인역에는 '나를'이 첨가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뒤따라오는 접미어(בְּקָרְאִי)의 이중 기능(double duty)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다. ‖ 5[a] 마소라 사본의 "떨라"(רִגְזוּ)를 아마도 뒤에 나오는 על 앞에 옮겨 놓아라. ‖ 5[b-b] 마소라 사본의 "너희 심중에 말하고"를 아마도 문장 초두에 있는 ואל 앞에 옮겨 놓아라. ‖ 5[c] 마소라 사본의 עַל 에 대해 카이로 게니자의 시편 단편과 한 히브리어 사본과 70인역과 시리아역은 עַל로 읽는다. 5[d] 마소라 사본의 "그리고 잠잠할지어다"에 대해 70인역과 시리아역은 연결사를 생략한다. ‖ 7[a] 마소라 사본의 "우리에게"를 몇몇 히브리어 사본들은 "나에게"로 읽는다. ‖ 7[b] 마소라 사본의 "들다"(נסה)를 한 히브리어 사본은 נשׂא로 읽는다. 아마 싸멕(ס)과 신(שׂ)은 상호교통적으로 사용된 듯 하다(BDB 650; HAL 2:702). 70인역은 ἐσημειώθη, "to take note of"로 읽는다 "당신 얼굴의 빛이 저희 위에 하나의 표징이었나이다"(임승필 참조). BHS는 "떠났다"(נִסַּע "pull away," from us) 혹은 "뻗다"(נָטָה stretch out, extend)로 제안한다. ‖ 7[c] 마소라 사본의 "주의 얼굴"을 시리아역에서는 3인칭 남성 단수 접미어가 붙어 "그의 얼굴"로 읽는다. 여기로 옮겨라(huc tr). ‖ 8[a] 마소라 사본의 "기쁨"에 대해 시리아역은 2인칭 단수를 첨가하여 "당신의 기쁨"이라고 한다. ‖ 8[b] 마소라 사본의 "포도주"에 대해 쿰란과 한 히브리어 사본은 강점(dagesh forte)를 타우 안에 두고 있으며, 쿰란, 70인역, 시리아역은 "그들의 기름"을 첨가한다(호 2:24). ‖ 9[a] 마소라 사본의 יהוה는 운율에 근거하여 삭제하라. ‖ 9[b] 마소라 사본의 "오직"(לְבָדָד)에 대해 몇몇 히브리어 사본들과 70인역(kata monas)은 "당신 홀로"(לְבַדֶּךָ)로 읽는다. ‖ 시편 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a] 관악에 맞춘 노래> ‖ 1[a] 몇몇 사본들은 마소라 사본의 אל대신 על로 읽는다. 1[b] 마소라 사본의 הנחילות("관악"[개역], "현악" [개역개정])에 대해 두 개의 히브리어 사본은 "재산, 유산, 몫"(נחלה)의 복수형(הנחלות)으로 읽는다. 70인역은 "상속받는"(that inherits)으로 읽으며, 아퀼라 (심마쿠스, 제롬)도 "상속받는"(분사형)으로 읽는다. ‖ 3[a] 마소라 사본의 אֶתְפַּלָּל을 אֶתְפַּלֵּל로 읽으며, "내가 기도하다"를 4절 상반절에 있는 "아침에" 뒤에 두어라. ‖ 4[a] 마소라 사본의 주님의 이름(יהוה)은 운율에 근거하여 삭제하라. ‖ 4[b] 마소라 사본의 "내가 바라다"는 아마 "당신을 바라다"는 뜻으로 לְךָ 혹은 אֵלֶיךָ 혹은 בְּךָ를 삽입하라. ‖ 5[a] 마소라 사본의 "하나님"(אֵל)은 두 개의 히브리어 사본에는 없다. ‖ 5[b] 마소라 사본의 "아니다"에 대해 몇몇 사본과 시리아역은 "그리고 아니다"(וְלֹא)로 읽는다. ‖ 7[a] 마소라 사본의 "당신이 멸하다"(תְּאַבֵּד)에 대해 한 히브리어 사본과 70인역에는 "모두"(כָּל)를 첨가한다. ‖ 7[b] 마소라 사본의 "거짓"(כָזָב)은 7절 끝으로 옮겨 놓아라. ‖ 7[c] 마소라 사본의"그가 미워하다"(יתעב)를 상반절과 주어가 일치하도록 "당신이 미워하다"(תְּתַעֵב)로 읽도록 제안한다. ‖ 8[a] 8절 끝에 나오는 "주를 경외함으로"(ביראתך)에 대해 시리아역은 9절로 잇는다. ‖ 9[a] 마소라 사본의 독법(Qere)인 "곧게 하다" (הַיְשַׁר)는 카이로 게니자의 시편 단편과 많은 사본들과 쿰란과 케티브는 히필 명령형인(הוֹשַׁר)로 읽는다. 같은 형태가 이사야 45:2에 나타남을 참조하라. ‖ 9[b] "내 목전에"에 대해 두 개의 히브리어 사본과 70인역의 바티칸 사본(G [B]), 알렉산드리아 사본(G[A]), 루시안 사본(G[L])과 불가타역에는 "당신의"(ךָ)라는 접미어로 붙어 있다. ‖ 9[c] "주의 길"에 대해 불가타역에는 1인칭 단수 접미어가 있어 "나의 길"로 읽는다. ‖ 10[a] 마소라 사본의 "그의 입"(בפיהו)은 뒤따르는 "그들의 심중"(קִרְבָּם)과 평행을 이루기 위해 "그들의 입"(בפימו)으로 읽으라. 70인역, 시리아역, 탈굼, 제롬역을 참조하라. (한 히브리어 사본은 '그들의 입'[בפי הֶם]으로 읽는다.) ‖ 10[b] "그들의 심중"(קִרְבָּם)에 대해 2개의 히브리어 사본과 시리아역 아랍어역에는 "그들의 심중에"(בקִרְבָּם)로 나타난다. ‖ 10[c] "그들이 아첨하다"(יחליקון)는 레닌그라드 사본 같다. 많은 히브리어 사본들과 케니코트본에는 יחליקוּן(즉 종지형 강세 실룩이 코프 아래에 나타난 다.)로 나타난다. ‖

5 רִגְזוּ[a] וְאַל־תֶּחֱטָאוּ [b]אִמְרוּ בִלְבַבְכֶם[b] עַל[c]־מִשְׁכַּבְכֶם וְדֹמּוּ[d] ב[2]
6 זִבְחוּ זִבְחֵי־צֶדֶק וּבִטְחוּ אֶל־יְהוָה׃ [סֶלָה׃ י בטח אל
7 רַבִּים אֹמְרִים מִי־יַרְאֵנוּ[a] טוֹב נְסָה[b]־עָלֵינוּ אוֹר פָּנֶיךָ[c] יְהוָה׃ ב חד כת סה וחד כת שא[3] ל בטע[4]
8 נָתַתָּה שִׂמְחָה[a] בְלִבִּי מֵעֵת דְּגָנָם וְתִירוֹשָׁם[b] רָבּוּ׃ [תּוֹשִׁיבֵנִי׃ ג[5]
9 בְּשָׁלוֹם יַחְדָּו אֶשְׁכְּבָה וְאִישָׁן כִּי־אַתָּה יְהוָה[a] לְבָדָד[b] לָבֶטַח ג[6]

5 ה 1 לַמְנַצֵּחַ אֶל[a]־הַנְּחִילוֹת[b] מִזְמוֹר לְדָוִד׃ ג בליש[1]
2 אֲמָרַי הַאֲזִינָה יְהוָה בִּינָה הֲגִיגִי׃ יו. ב בטע מלעיל בכתיב[2]. ל[3]
3 הַקְשִׁיבָה לְקוֹל שַׁוְעִי מַלְכִּי וֵאלֹהָי ל. ב
כִּי־אֵלֶיךָ אֶתְפַּלָּל[a]׃ 4 יְהוָה[a] בֹּקֶר תִּשְׁמַע קוֹלִי
בֹּקֶר אֶעֱרָךְ־לְךָ וַאֲצַפֶּה[b]׃ ב[4]
5 כִּי לֹא אֵל[a]־חָפֵץ רֶשַׁע אָתָּה לֹא[b] יְגֻרְךָ רָע׃ יא בטע ר״פ בשלש ספרים. יז[5]. ל וחס
6 לֹא־יִתְיַצְּבוּ הוֹלְלִים לְנֶגֶד עֵינֶיךָ ג בליש ומל
שָׂנֵאתָ כָּל־פֹּעֲלֵי אָוֶן׃ 7 תְּאַבֵּד[a] דֹּבְרֵי כָזָב[b] ד ג חס וחד מל
אִישׁ־דָּמִים וּמִרְמָה יְתָעֵב[c] יְהוָה׃ ה[6]. ד קמ בליש
8 וַאֲנִי בְּרֹב חַסְדְּךָ אָבוֹא בֵיתֶךָ סז ר״פ לג מנה בכתיב וחד מן ד[7] בטע בסיפ
אֶשְׁתַּחֲוֶה אֶל־הֵיכַל־קָדְשְׁךָ בְּיִרְאָתֶךָ[a]׃
9 יְהוָה נְחֵנִי בְצִדְקָתֶךָ לְמַעַן שׁוֹרְרָי ח בטע ר״פ בסיפ[8]
הַוְשַׁר[a] לְפָנַי[b] דַּרְכֶּךָ[c]׃ הישר ק
10 כִּי אֵין בְּפִיהוּ[a] נְכוֹנָה קִרְבָּם[b] הַוּוֹת נה בטע ר״פ בסיפ. כב ול בליש בסיפ
קֶבֶר־פָּתוּחַ גְּרוֹנָם לְשׁוֹנָם יַחֲלִיקוּן[c]׃ ד[9]. ל
11 הַאֲשִׁימֵם אֱלֹהִים יִפְּלוּ מִמֹּעֲצוֹתֵיהֶם ה בטע ר״פ בשלש ספרים[10]. ב כת כן[11]

[2]Mm 3197. [3]Mm 3198. [4]Mm 3389. [5]Mm 3238. [6]Mm 3199. **Ps 5** [1]Mm 1124. [2]Mm 3200. [3]וחד בהגיגי Ps 39,4. [4]Mm 3114. [5]Mm 1667. [6]Mm 3127. [7]Mm 3221. [8]Mm 3443. [9]Mm 946. [10]Mm 3654. [11]Mm 3028.

**5** [a] frt tr ante על ‖ [b–b] prb tr ante ואל ‖ [c] 𝔗 Ms 𝔊𝔖 וְעַל ‖ [d] 𝔊𝔖 om cop ‖ **7** [a] pc Mss ־נִי ‖ [b] Ms נשׂא, 𝔊 ἐσημειώθη; prp נָסְעָה vel נְטֵה ‖ [c] 𝔖 suff 3 m sg; huc tr : ‖ **8** [a] 𝔖 + suff 2 sg ‖ [b] 𝔔 Ms ׳ת, 𝔔𝔊𝔖 + וְיִצְהָרָם ‖ **9** [a] dl m cs ‖ [b] pc Mss לְבַדְּךָ ‖ **Ps 5,1** [a] pc Mss עַל ‖ [b] 2 Mss הנחלות, 𝔊 τῆς κληρονομούσης, α′ (σ′ Hier) κληροδοσιῶν = נַחֲלֹת ‖ **3** [a] l ־ֵל et tr : post בקר 4a ‖ **4** [a] dl m cs ‖ [b] frt ins לְךָ vel אֵלֶיךָ vel בָּךְ ‖ **5** [a] > 2 Mss ‖ [b] pc Mss 𝔖 וְלֹא ‖ **7** [a] Ms 𝔊 + ־כָּל ‖ [b] huc tr : ‖ [c] prp ׳תְּת ‖ **8** [a] 𝔖 cj c 9 ‖ **9** [a] 𝔗 mlt Mss ut Q, K ׳הוֹ ‖ [b] 2 Mss 𝔊[BAL]𝔙 ־ֶיךָ ‖ [c] 𝔙 suff 1 sg ‖ **10** [a] l בפימו cf 𝔊𝔖𝔗 Hier (Ms בפיהֶם) ‖ [b] 2 Mss 𝔖𝔄 ׳בְּק ‖ [c] sic L, mlt Mss Edd יחליקון.

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2]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6**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1]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2]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4]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5]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6]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7]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8]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9]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10]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떪이여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7** "다윗의 식가욘,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1]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2]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 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3]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4]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5]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

11[a] 마소라 사본의 "그 많은"(ברב)에 대해 쿰란은 "그 많은 (허물을) 따라"(כרב)로 읽는다. 70인역을 참조하라. ‖ 11[b] 마소라 사본에서 "당신을 대항하여"(בָ֑ךְ)에 대해 70인역은 *κύριε*를 첨가한다. ‖ 12[a-a] "당신이 그들을 보호하소서"(וְתָסֵךְ עָלֵימוֹ ; 히필 명령형)에 대해 "당신이 그를 보호하소서"(ות׳ עָלָיו)로 제안하며 13b 앞에 두라고 한다. 13절에서는 "의인"(단수)이 목적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13b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 12[b] 운율에 근거하여 "여호와"(יְהוָה)나 혹은 "항상"(תָּמִיד)을 삽입하라. 70인역 (시리아역)은 "모두"(*πάντες*)를 첨가한다. ‖ 13[a] "당신이 호위하다"(תַּעְטְרֶנּוּ)라는 칼형에 대해 몇몇 사본들은 피엘형(תְּעַטְּ׳)으로 읽는다(시 8:6; 103:4). 70인역은 1인칭 복수 접미어를, 시리아역은 1인칭 단수 접미어를 첨가한다. ‖ 시편 6편 3[a]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יהוה)는 한 히브리어 필사본(Ms)에 나타나지 않는다. ‖ 3[b]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יהוה)는 몇몇 히브리어 사본들과 70인역의 바티칸 사본($G^B$)에 나타나지 않는다. 시편 6:3에서 "여호와"가 두번 나타나며 몇몇 히브리어 사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를 불필요한 첨가로 여길 수 있으나, 시의 서문으로서 간절한 호소를 나타내기 위해 두 번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 3[c] 마소라 사본의 נִבְהֲלוּ(בהל의 니팔형; "떨리다")는 시편에서 "뼈"와 연관하여 나타나는 것이 이상하며 4절 상반절에도 거의 같은 형태(נִבְהֲלָה)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 뼈가 마르다" נָבְלוּ (from נָבַל, 사24:4; 겔 47:11)혹은 יִבְּלוּ (from נָבַל, 시32:3)로 제안한다. ‖ 4[a] 마소라 사본의 "떨리다"에 대해 2개의 히브리어 사본은 עד를 첨가하고 있다. ‖ 5[a] 시리아역과 불가타역에는 연결사가 앞에 있어 "그리고 건지소서"로 이어진다. ‖ 5[b] 한 히브리어 사본과 시리아역은 "그리고 나를 구하소서"(וה׳)로 나타난다. ‖ 6[a] 마소라 사본의 "당신을 기억함"(명사형from zeker; זִכְרֶךָ)에 대해 70인역은 *ὁ μνημονεύων σου*로서 히브리어 분사형 "당신을 기억함"(זֹכְרֶךָ)으로 나타난다. ‖ 7[a] 7절을 시작하는 두 개의 동사("내가 탄식하다"와 "내가 곤핍하다")는 아무런 보어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BHS는 "아마 몇개의 단어가 삭제된듯 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 8[a] 70인역, 아퀼라, 심마쿠스, 제롬은 1인칭 단수로 읽으며 "내가 늙었나이다"(עָתַקְתִּי)로 의미를 수정한다. 즉 상반절의 주어는 "내 눈"이며, 하반절의 주어는 "나 자신"이 된다. ‖ 8[b] 히브리어 한 사본과 시리아역은 마소라 사본의 בְּכָל 대신에 מִכָּל로 읽는다. ‖ 8[c] צֹרְרָי 마소라 사본의 "나를 억압하는 자"(צוֹרְרָי)에 대해 BHS는 더 좋은 평행법을 만들기 위해 "내 고난"(צָרָתִי)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며 제안한다(시편 31:9참조). ‖ 11[a-a] "그들이 부끄러워 하다"(יבשו)가 이 절에서 두 번 나타나기 때문에, BHS는 처음 나오는 것을 바로 이어지는 접속사("그리고 그들이 떤다")와 함께 삭제하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이것을 삭제하면, 이 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요드(י), 벳(ב), 쉰(שׁ)의 음성학적 영향이 감소된다. ‖ 11[b] 두 번째 등장하는 "그들이 부끄러워 하다"(יבשו)는 바로 앞 동사("그들이 물러가다")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으므로 카이로게니자의 시편 단편과 70인역과 시리아역은 "접속사"를 붙여 읽고 있다. ‖ 11[c] 마소라 사본의 "홀연히"(רגע)를 70인역은 "대단히 빠르게"로 읽는다. ‖ 시편 7편 1[a] 마소라 사본의 "구시"(כּוּשׁ)를 70인역, 아퀼라, 심마쿠스, 데오도션 (제롬)은 Χουσι로 읽는다. 삼하 18:21이하를 참조하라. ‖ 2[a-a] 마소라 사본의 "나를 쫓는 모든 자들"(복수형)은 이 시편에서 시인의 원수가 오직 한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를 쫓는 자"(רֹדְפִי)로 제안한다. ‖ 3[a] 마소라 사본의 "물어 뜯다"(פרק)를 70인역 "건질 자 없다"(deliver)로 읽는다. 즉 히브리어 אֵין פרק으로 읽는다. 시리아역을 참조하라. 이리하여 70인역과 시리아역은 "물어 뜯다"를 상반절로 연결시키지 않고, 하반절로 잇는다. ‖ 5[a] 마소라 사본의 "화친한 자"를 70인역은 복수로 읽는다. ‖ 5[b] 마소라 사본의 "내가 빼앗았다"(וָאֲחַלְּצָה)를 70인역과 시리아역 및 탈굼은 "나로 망하게 하소서"(may I then perish empty by means of my enemies")= 즉 히브리어 אֵלְכָה רֵיקָם로 읽 는다. ‖

1090 תהלים 5,12—7,5

בְּרֹב[a] פִּשְׁעֵיהֶם הַדִּיחֵמוֹ כִּי־מָרוּ בָךְ[b]׃ ל
12 וְיִשְׂמְחוּ כָל־חוֹסֵי בָךְ לְעוֹלָם יְרַנֵּנוּ ה
[a]וְתָסֵךְ עָלֵימוֹ[a] וְיַעְלְצוּ בְךָ[b] אֹהֲבֵי שְׁמֶךָ׃ ל . ל
13 כִּי־אַתָּה תְּבָרֵךְ צַדִּיק יְהוָה
כַּצִּנָּה רָצוֹן תַּעְטְרֶנּוּ[a]׃ ל

6 1 לַמְנַצֵּחַ בִּנְגִינוֹת עַל־הַשְּׁמִינִית מִזְמוֹר לְדָוִד׃ ג מל בליש
2 יְהוָה אַל־בְּאַפְּךָ תוֹכִיחֵנִי וְאַל־בַּחֲמָתְךָ תְיַסְּרֵנִי׃
3 חָנֵּנִי יְהוָה[a] כִּי אֻמְלַל אָנִי רְפָאֵנִי יְהוָה[b] כִּי נִבְהֲלוּ[c] עֲצָמָי׃ י קמ בסיפ ו מנה בטע[1]
4 וְנַפְשִׁי נִבְהֲלָה[a] מְאֹד וְאַתָּ יְהוָה עַד־מָתָי׃ ה . ואתה ק
5 שׁוּבָה יְהוָה חַלְּצָה[a] נַפְשִׁי הוֹשִׁיעֵנִי[b] לְמַעַן חַסְדֶּךָ׃ ה בטע
6 כִּי אֵין בַּמָּוֶת זִכְרֶךָ[a] בִּשְׁאוֹל מִי יוֹדֶה־לָּךְ׃ נה בטע ר״פ בסיפ . ב[2]
7 יָגַעְתִּי ׀ בְּאַנְחָתִי[a] ב
אַשְׂחֶה בְכָל־לַיְלָה מִטָּתִי בְּדִמְעָתִי עַרְשִׂי אַמְסֶה׃
8 עָשְׁשָׁה מִכַּעַס עֵינִי עָתְקָה[a] בְּכָל[b]־צוֹרְרָי[c]׃ ב . כט[3]
9 סוּרוּ מִמֶּנִּי כָּל־פֹּעֲלֵי אָוֶן כִּי־שָׁמַע יְהוָה קוֹל בִּכְיִי׃ ל
10 שָׁמַע יְהוָה תְּחִנָּתִי יְהוָה תְּפִלָּתִי יִקָּח׃
11 [a]יֵבֹשׁוּ ׀ וְיִבָּהֲלוּ[a] מְאֹד כָּל־אֹיְבָי יָשֻׁבוּ יֵבֹשׁוּ[b] רָגַע[c]׃ ז חס

7 1 שִׁגָּיוֹן לְדָוִד אֲשֶׁר־שָׁר לַיהוָה עַל־דִּבְרֵי־כוּשׁ[a] בֶּן־יְמִינִי׃ ל . ל[1] . י[2] וכל ד״ה דכות ב מ א
2 יְהוָה אֱלֹהַי בְּךָ חָסִיתִי הוֹשִׁיעֵנִי [a]מִכָּל־רֹדְפַי[a] וְהַצִּילֵנִי׃
3 פֶּן־יִטְרֹף כְּאַרְיֵה נַפְשִׁי פֹּרֵק[a] וְאֵין מַצִּיל׃ ב וחס[3]
4 יְהוָה אֱלֹהַי אִם־עָשִׂיתִי זֹאת אִם־יֶשׁ־עָוֶל בְּכַפָּי׃
5 אִם־גָּמַלְתִּי שׁוֹלְמִי[a] רָע וָאֲחַלְּצָה[b] צוֹרְרִי[a] רֵיקָם׃ ל ומל . ל . ל ומל

Ps 6 [1] Mp sub loco. [2] Mm 3201. [3] Mm 2501. Ps 7 [1] וחד ושר Prv 25,20. [2] Mm 1718. [3] Mm 3202.

**11** [a] 𝔔 וכרב cf 𝔊 ‖ [b] 𝔊 + *κύριε* ‖ **12** [a–a] prp עָלָיו ות׳ et tr ante 13b ‖ [b] frt ins m cs יְהוָה vel תָּמִיד; 𝔊(𝔖) + *πάντες* ‖ **13** [a] pc Mss ׳תְּעַטְּ; 𝔊 suff 1 pl, 𝔖 suff 1 sg ‖ **Ps 6,3** [a] > Ms ‖ [b] > pc Mss $𝔊^{B}$ ‖ [c] prp נָבְלוּ vel בָּלוּ ‖ **4** [a] 2 Mss + עַד ‖ **5** [a] 𝔖𝔙 pr cop ‖ [b] Ms 𝔖 ׳וה ‖ **6** [a] 𝔊 *ὁ μνημονεύων σου* = זֹכְרֶךָ ‖ **7** [a] prb nonn vb exc ‖ **8** [a] 𝔊 α′σ′ Hier 1 sg ‖ [b] Ms 𝔖 מִכָּל ‖ [c] prp צָרָתִי ‖ **11** [a–a] dl ו יבשו ‖ [b] ℭ𝔊𝔖 ׳וְי ‖ [c] 𝔊 *σφόδρα διὰ τάχους* ‖ **Ps 7,1** [a] 𝔊 α′σ′θ′ (Hier) *Χουσι* cf 2S 18,21sqq ‖ **2** [a–a] prp מֵרֹדְפַי ‖ **3** [a] 𝔊 *μὴ ὄντος λυτρουμένου* = ׳אֵין פ cf 𝔖 ‖ **5** [a] 𝔊 pl ‖ [b] 𝔊(𝔖𝔗) *ἀποπέσοιν … ἀπό* = וָאֶלְחֲצָה.

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6]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
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7]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8]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9]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10]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
는 하나님께 있도다 [11]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2]사람이 회개하
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
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14]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배어 거짓을 낳았도다 [15]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16]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
다 [17]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8**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1]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
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3]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6[a] 마소라 사본의 "쫓다"(יִרַדֹּף)는 칼형도 피엘형도 아닌 혼합형이므로 BHS는 칼형(יִרְדֹּף) 혹은 피엘형(יְרַדֵּף)으로 읽도록 제안한다. ‖ 6[b] 마소라 사본의 "잡다"(overtake)에 대해 시리아역은 3인칭 여성단수 접미어를 갖고 있다. ‖ 6[c] 마소라 사본의 "셀라"는 시리아역에 나타나지 않는다. ‖ 7[a] 몇몇 히브리어 사본들과 시리아역 벌게이트는 יְהוָה로 읽는다. ‖ 7[b] 마소라 사본의 בְּעַבְרוֹת, "격분"(against the fury)을 시리아역은 s *'l kdl'* 즉 히브리어로 בְּנִפְתַּ("목, 도망침, 반역")로 읽고 있다. ‖ 7[c] 70인역과 시리아역은 연결사를 생략하고 있다. ‖ 7[d] 마소라 사본의 "나를 위하여"(אֵלַי)에 대해 70인역은 "나의 하나님"으로 읽는다. ‖ 7[e] 마소라 사본의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에 대해 70인역 (시리아역)은 "당신이 명하신 영을 따라"(according to the decree which you have commanded)로 읽는다. ‖ 7[f] 마소라 사본의 "주께서 명하셨나이다"는 완료형으로 나타나므로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며 צַוֵּה로 제안하며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9[a-a]) 앞으로 옮기라고 BHS는 제안한다. 이리하여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라고 명령하소서"가 된다. ‖ 8[a] "돌아오소서"는 뜻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שֵׁבָה, "앉으소서"(יָשַׁב)로 읽으라. ‖ 9[a-a] 7[f]를 참조하라. ‖ 10[a] 마소라 사본의 "끊다"(יִגְמָר)라는 형태에 대해 많은 사본들은 메텍이 뒤따르므로 모음이 짧아져 יִגְמָר로 읽고 있다고 한다(시138:8을 참조하라). ‖ 10[b] 마소라 사본의 "악한 자"(רָע)보다 바로 뒤에 "악인"이 뒤따라 오기 때문에 "악"(רֹעַ)이 더 나아보인다. 시리아역은 *'l* (대항하여)을 첨가하고 있다. ‖ 10[c] 마소라 사본의 "의인"(단수)에 대해 70인역과 탈굼은 복수로 읽는다. ‖ 10[d] 마소라 사본의 "그리고 감찰하다"에서 70인역, 데오도션, 시리아역, 제롬은 연결사 "그리고"를 생략한다. ‖ 10[e] 10절의 끝단어 "의로운"은 70인역에서 11절과 함께 이어진다. ‖ 11 마소라 사본에서 "하나님"과 이어지는 전치사 "(하나님)에게"(עַל)는 하나님이 자기 종을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들고 있다는 느낌을 주므로 자연스럽지 않다. 시리아역에는 이 전치사가 나타나지 않아 보다 자연스럽다("내 방패는 하나님이라"). BHS는 "나에게"(עָלַי)로 제안한다(시 3:4, מָגֵן בַּעֲדִי 참조). ‖ 12[a] 마소라 사본의 "의로운"(צַדִּיק)에 대해 시리아역은 여성형 복수로 나타난다. ‖ 12[b-b] 마소라 사본의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70인역 (시리아역)은 "분노하지 않는다"로 읽는다. ‖ 13[a-a] 마소라 사본의 "회개치 아니하면"에 대해 시리아역은 이 절이 앞 절(12절)로 이어진다고 한다. ‖ 13[b] 마소라 사본의 "돌이키다"(יָשׁוּב; 3인칭 단수)를 70인역은 2인칭 복수로 읽고 있다. ‖ 14[a] 마소라 사본의 "죽음"을 시리아역은 "분노"로 읽는다. ‖ 14[b] 마소라 사본의 "불타는"(דֹלְקִים)을 70인역(시리아역)은 "분노하는 자들에게"로 읽고 있다. ‖ 15[a] 마소라 사본의 "잉태하다"를 몇몇 히브리어 사본과 70인역은 접속사 없이 읽고 있다. ‖ 18[a] 마소라 사본의 "~를 따라"(כְּצִדְקוֹ)를 몇몇 히브리어 사본은 "~를"(צִדְקוֹ)로 읽으며 시리아역은 1인칭 단수 접미어를 가진다. ‖ 18[b] 마소라 사본의 "여호와"를 몇몇 히브리어 사본과 탈굼은 "하나님"으로 읽는다. ‖ 시편 8편 1[a] 마소라 사본의 "깃딧"(הַגִּתִּית)에 대해 BHS는 시편 81:1[a]와 84:1[a]와 마찬가지로 (it) 70인역, 심마쿠스, 제롬은 복수로 읽는다고 말한다. ‖ 2[a-a] 마소라 사본의 "두신"(תְּנָה)은 비정상적인 형태이므로 BHS는 "훼손되었다"고 본다. 70인역은 "높다"(is exalted), 시리아역 (탈굼)은 "두어졌다"(נִתְּנָה)로 읽으며("당신이 두다"), 심마쿠스(제롬)는 hos etaksas ("힘"?)로 읽는다. BHS는 "두어진"(אֲשֶׁר נִתַּן) 혹은 "당신이 두신"(אֲשֶׁר נָתַתָּה)으로 제안한다. ‖ 3[a] 마소라 사본의 "권능"(עֹז)을 시리아역은 "주의 영광"으로 읽는다. ‖ 3[b] "당신의 대적"에 대해 제롬은 1인칭 단수 접미어를 가져 "나의 대적"으로 읽는다. ‖

6 יִרַדֹּף[a] אוֹיֵב ׀ נַפְשִׁי וְיַשֵּׂג[b] וְיִרְמֹס לָאָרֶץ חַיָּי — ל.ל
וּכְבוֹדִי ׀ לֶעָפָר יַשְׁכֵּן סֶלָה[c]׃ [מִשְׁפָּט צִוִּיתָ׃[ef]] — ל[4]
7 קוּמָה יְהוָה ׀ בְּאַפֶּךָ הִנָּשֵׂא[a] בְּעַבְרוֹת[b] צוֹרְרָי וְעוּרָה[c] אֵלַי[d] — ב בטע. ל בסיפ[5]
8 וַעֲדַת לְאֻמִּים תְּסוֹבְבֶךָּ וְעָלֶיהָ לַמָּרוֹם שׁוּבָה[a]׃ — ל.ל.ג[6]
9 [a]יְהוָה יָדִין עַמִּים[a]
שָׁפְטֵנִי יְהוָה כְּצִדְקִי וּכְתֻמִּי עָלָי׃
10 יִגְמָר[a]־נָא רַע[b] ׀ רְשָׁעִים וּתְכוֹנֵן צַדִּיק[c] — ט[7] וכל אמירה יצר לשון עשייה ועין דכות ב מ ז. ל ומל
וּבֹחֵן[d] לִבּוֹת וּכְלָיוֹת אֱלֹהִים צַדִּיק[e]׃
11 מָגִנִּי עַל[a]־אֱלֹהִים מוֹשִׁיעַ יִשְׁרֵי־לֵב׃ — ב[8]
12 אֱלֹהִים שׁוֹפֵט צַדִּיק[a] [b]וְאֵל זֹעֵם[b] בְּכָל־יוֹם׃ — ז בטע ר״פ בסיפ[9]. ג. ו מל. ג
13 [a]אִם־לֹא יָשׁוּב[ab] חַרְבּוֹ יִלְטוֹשׁ קַשְׁתּוֹ דָרַךְ וַיְכוֹנְנֶהָ׃ — ח[10] ר״פ וכל איוב דכות במ ב. ב מל ול בליש. ד
14 וְלוֹ הֵכִין כְּלֵי־מָוֶת[a] חִצָּיו לְדֹלְקִים[b] יִפְעָל׃ — ד ר״פ[11]. ב[12] ול בסיפ. ל[13]
15 הִנֵּה יְחַבֶּל־אָוֶן וְהָרָה[a] עָמָל וְיָלַד שָׁקֶר׃ — ל. ב חד כת א וחד כת ה
16 בּוֹר כָּרָה וַיַּחְפְּרֵהוּ וַיִּפֹּל בְּשַׁחַת יִפְעָל׃ — ב ול בטע[14]
17 יָשׁוּב עֲמָלוֹ בְרֹאשׁוֹ וְעַל קָדְקֳדוֹ חֲמָסוֹ יֵרֵד׃ — יד. ג ול בסיפ[15]
18 אוֹדֶה יְהוָה כְּצִדְקוֹ[a] וַאֲזַמְּרָה שֵׁם־יְהוָה[b] עֶלְיוֹן׃

8 1 לַמְנַצֵּחַ עַל־הַגִּתִּית[a] מִזְמוֹר לְדָוִד׃
2 יְהוָה אֲדֹנֵינוּ מָה־אַדִּיר שִׁמְךָ בְּכָל־הָאָרֶץ — ג
[a]אֲשֶׁר תְּנָה[a] הוֹדְךָ עַל־הַשָּׁמָיִם׃
3 מִפִּי עוֹלְלִים ׀ וְיֹנְקִים יִסַּדְתָּ עֹז[a] — ל
לְמַעַן צוֹרְרֶיךָ[b] לְהַשְׁבִּית אוֹיֵב וּמִתְנַקֵּם׃ — ל ומל. ב

[4] וב׳ וישכן Gn 3,24 et Ps 78,55. [5] וחד עברות Hi 40,11. [6] Mm 3203. [7] Mm 824. [8] Mm 3204. [9] Mm 3288. [10] Mm 3185. [11] Mm 1529. [12] Mm 2781. [13] וחד דלקים Prv 26,23. [14] Mm 3205. [15] Mp sub loco.

**6** [a] l יִרְ׳ vel יְרַדֵּף ‖ [b] 𝔖 + suff 3 f sg ‖ [c] > 𝔖 ‖ **7** [a] pc Mss 𝔖𝔙 וְהִ׳ ‖ [b] 𝔖 *ʿl kdlʾ* = בְּעַרְפּוֹת ‖ [c] 𝔊𝔖 om cop ‖ [d] 𝔊 *κύριε ὁ θεός μου* ‖ [e–e] 𝔊(𝔖) *ἐν προστάγματι, ᾧ ἐνετείλω* ‖ [f] prp צִוֵּה et tr huc 9[a–a] ‖ **8** [a] l prb שֵׁבָה ‖ **9** [a–a] cf 7[f] ‖ **10** [a] melius ־ךָ ‖ [b] melius רָעַ; 𝔖 + *ʿl* ‖ [c] 𝔖𝔗 pl ‖ [d] 𝔊θ′𝔖 Hier om cop ‖ [e] 𝔊 cj c 11 ‖ **11** [a] > 𝔖; prp עָלָי ‖ **12** [a] 𝔖 *dqwštʾ* veritatis ‖ [b–b] 𝔊(𝔖) *μὴ ὀργὴν ἐπάγων* ‖ **13** [a–a] 𝔖 cj c 12 ‖ [b] 𝔊 2 pl ‖ **14** [a] 𝔖 *drwgzʾ* irae ‖ [b] 𝔊(𝔖) *τοῖς καιομένοις* ‖ **15** [a] pc Mss 𝔊 הרה ‖ **18** [a] pc Mss בְּצ׳, 𝔖 suff 1 sg ‖ [b] pc Mss 𝔗 אֱלֹהִים ‖ **Ps 8,1** [a] 𝔊 σ′ Hier pl, it 81,1[a] 84,1[a] ‖ **2** [a–a] crrp; 𝔊 *ὅτι ἐπήρθη*, 𝔖(𝔗) *djhbt* qui dedisti, σ′ (Hier) *ὃς ἔταξας*; l נָתַתָּה א׳, prp נָתַן א׳ vel נִתְּנָה א׳ ‖ **3** [a] 𝔖 *tšbwḥtk* gloriam tuam ‖ [b] Hier suff 1 sg.

▣ 안내 ▣

1. 「성경원문연구」는 반년간(2월 / 8월)으로 발행되는 성서학 전문 학술지입니다.
2. 본지에 실린 논문들은 대한성서공회의 의견이 아니라 각 필자들의 의견입니다.
3. 「성경원문연구」에 논문을 기고하실 분은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원고 작성 규정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http://www.bskorea.or.kr)에 제공된 "「성경원문연구」 원고 투고 규정" 참고.
5. 분량: 제출 원고는 200자 원고지로 계산하여 논문은 100쪽, 서평은 30쪽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원고 분량이 규정 분량보다 지나치게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을 받아야 한다. 초록은 원고 분량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제출 방식(원고 작성 프로그램): 원고는 한국어 문서 작성기인 HWP 프로그램 파일로 작성한다. 단, 외국어로 쓰는 논문은 MS Word 파일로 작성할 수 있다. 논문의 분량, 논문의 양식 등이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심사하지 않으며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제출된 원고는 투고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심사 후 수정이 필요한 논문은 '논문 수정 요구서'를 통보하고, 수정된 후 재심사한다.
7. 제출: HWP 컴퓨터 파일과 인쇄물 1벌을 제출한다.
8. 제출 기한: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된 논문은 정기간행일(4월 30일, 10월 30일) 90일 전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하며, 정기간행일 30일 전에 심사 완료한다.
9. 제출처: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우편번호 137-863 전자우편: ibtr@bskorea.or.kr

# 「NA$^{27}$」 야고보서의 본문비평장치 해설

김창락*

## 일러두기

1. 두 가지 이상의 읽기가 제시된 경우에는 1) 2) 3)...으로 번호를 붙여 표시했다.
2. ( ) 속에 읽기 즉 제시된 읽기와 약간의 차이가 나는 읽기도 별종의 읽기로 취급하여 독자적인 번호를 붙였다(시각적으로 이해를 명료화하기 위해서이다).
3. 읽기를 헬라어로 표시하고 ( ) 안에 우리말 번역을 붙였다. 어순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헬라어 원문의 어순을 따라 번역했다.
4. 증거 사본이 셋 또는 넷 이상인 경우에는 첫 증거 사본과 마지막 증거 사본만 표시했다.
5. 고대 번역본과 교부들의 글은 일일이 표시했다.
6. 같은 절 안에서 동일한 항목에 대한 본문비평이 이어질 경우에는 \로 표시했으며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로 끊었다.
7. 사본의 성격에 대해서는 「성경원문연구」 3호에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번 해설에서는 설명을 생략했다.

---

* 한신대학교 교수, 신약학.

Act 12,17!

## ⌜ΙΑΚΩΒΟΥ ΕΠΙΣΤΟΛΗ⌝

2P 1,1 Jd 1 R 1,1! · 1P 1,1 J 7,35 Jr 15,7 2Mcc 1,27 · Act 15,23! |

1 ⌜Ἰάκωβος⌝ θεοῦ ᵀ καὶ κυρ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δοῦλος *1*
ταῖς δώδεκα φυλαῖς ταῖς ἐν τῇ διασπορᾷ χαίρειν.

1P 1,6; 4,12s Sap 3,4s Sir 2,1 | Prv 27,21 Ⓖ 1P 1,7 · R 5,3s TestJos 10,1 4Mcc 1,11 | Mt 5,48! · 4Mcc 15,7

**2** Πᾶσαν χαρὰν ἡγήσασθε, ἀδελφοί μου, ὅταν πειρασμοῖς περιπέσητε ποικίλοις, **3** γινώσκοντες ὅτι τὸ ⌜δοκίμιον ⌜ὑμῶν τῆς πίστεως⌝ κατεργάζεται ὑπομονήν. **4** ἡ δὲ ὑπομονὴ ἔργον τέλειον ἐχέτω, ἵνα ἦτε τέλειοι καὶ ὁλόκληροι ἐν μηδενὶ λειπόμενοι.

3,17 Prv 2,3-6 · Mt 7,7!

**5** Εἰ δέ τις ὑμῶν λείπεται σοφίας, αἰτείτω παρὰ τοῦ διδόντος θεοῦ πᾶσιν ἁπλῶς καὶ ⌜μὴ ὀνειδίζοντος καὶ δοθήσεται αὐτῷ. **6** αἰτείτω δὲ ἐν πίστει μηδὲν ⌜διακρινόμενος· ὁ γὰρ διακρινόμενος ἔοικεν κλύδωνι θαλάσσης

Mt 21,21p

ἀνεμιζομένῳ καὶ ῥιπιζομένῳ. **7** μὴ γὰρ οἰέσθω ὁ ἄνθρωπος ἐκεῖνος ὅτι λήμψεταί ᵒτι παρὰ τοῦ κυρίου, **8** ἀνὴρ ᵀ

E 4,14!

δίψυχος, ἀκατάστατος ἐν πάσαις ταῖς ὁδοῖς αὐτοῦ.

4,8 · 3,8.16

**9** Καυχάσθω δὲ ⌜ὁ ἀδελφὸς ὁ ταπεινὸς⌝ ᵒἐν τῷ ὕψει

2,5

αὐτοῦ, **10** ὁ δὲ πλούσιος ἐν τῇ ταπεινώσει αὐτοῦ, ὅτι ὡς

5,1 1T 6,17

ἄνθος χόρτου παρελεύσεται. **11** ἀνέτειλεν γὰρ ὁ ἥλιος

Is 40,6 | Mt 13,6p

σὺν τῷ καύσωνι καὶ ἐξήρανεν τὸν χόρτον καὶ τὸ ἄνθος

Is 40,7 Job 14,2

ᵒαὐτοῦ ἐξέπεσεν καὶ ἡ εὐπρέπεια τοῦ προσώπου ᵒ¹αὐτοῦ ἀπώλετο· οὕτως καὶ ὁ πλούσιος ἐν ταῖς πορείαις αὐτοῦ μαρανθήσεται.

5,11 Dn 12,12 · R 5,4 · 1K 9,25!

**12** Μακάριος ⌜ἀνὴρ ὃς ⌜ὑπομένει πειρασμόν, ὅτι δόκιμος γενόμενος λήμψεται τὸν στέφανον τῆς ζωῆς ὃν

*Inscriptio:* ⌜ I. (+ αποστολου P *pc*) ε. καθολικη P 33. 1739. (⌜ 323. 614. 945. 1505) *al* ¦ ε. καθ. του αγιου απ. I. L (⌜ 049. 69) *al* ¦ *txt* (ℵ, B) K 81 (⌜ Ψ 630. 1241) *pc*

¶ **1,1** ᵀπατρος 429. 614. 630 *pc* • **3** ⌜ δοκιμον 110. 1241 *pc*; Did$^{pt}$ | ⌜ *2 3 1* 629 *pc* vg ¦ *2 3* 429. 614. 630 *pc* sy$^{p}$ ¦ *1* B$^{2}$ *pc* ff ¦ – sy$^{h}$; Aug$^{pt}$ Arn • **5** ⌜ουκ K 049. 69 *pm* ¦ *txt* ℵ A B C L P Ψ 33. 81. 323. 614. 630. 945. 1241. 1505. 1739 *pm* • **6** ⌜απιστων διακρ. *pc* ¦ απιστων (διακρ. 522 *pc*) οτι ληψεται 429. 522. 630 *pc* • **7** ° ℵ C*$^{vid}$ K 522. 1241 *pc* vg$^{ms}$ • **8** ᵀγαρ 326. 621. 630 *pc* sy$^{h**}$ • **9** ⌜ *2–4* B Ψ ¦ *1 4 2* 720 *pc* | ° 𝔓$^{74}$ • **11** ° 614. 630. 1505 *pc* vg$^{ms}$ | °¹ B *pc* • **12** ⌜ανθρωπος A Ψ 1448 *pc*; Cyr | ⌜-μενεῖ K L 049. 6. 69. 1735 *al* ff ¦ *txt* B$^{2}$ Ψ 1739 𝔐 (*sine acc.* 𝔓$^{23}$ ℵ A B* C(*) P)

1:1-1:12 야고보서 1

# 야고보서

**1** [1]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2]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이는 너희 믿음의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4]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9]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찌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12]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표제 : 1) Ιακωβου επιστολη καθολικη(야고보의 서신 공동적): P-al / 2) Iakωβου αποστολου επιστολη καθολικη(야고보의 사도의 서신 공동적): P al / 3) επιστολη Ιακωβου καθολικη(서신 야고보의 공동적): 323, 614 / 4) καθολικη επιστολη Ιακωβου(공동적 서신 야고보의): 945 / 5) επιστολη καθολικη Ιακωβου(서신 공동적 야고보의): 1505 / 6) επιστολη καθολικη του αγιου αποστολου Ιακωβου(서신 공동적 그 거룩한 사도 야고보의): L-al / 7) του αγιου αποστολου Ιακωβου καθολικη επιστλη (그 거룩한 사도 야고보의 공동 서신): 049 / 8) επιστολη του αγιου αποστολου Ιακωβου καθολικη (서신 그 거룩한 사도 야고보의 공동적): 69 / 8) txt 야고보의 서신: ℵ -pc / 9) επιστολη Ιακωβου(서신 야고보의)(첫 머리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래쪽에 기록되어 있음): ℵ / 10) Ιακοβου επιστολη(야고보의 서신)(후대의 손으로 기입되었음): B / 11) επιστολη Ιακωβοθ (서신 야고보의): : Ψ, 630, 1241 • 1 πατρος(아버지의)가 첨가: 429-$\mathfrak{pc}$. • 3 δοκιμον(단련 받는)으로 바꿈: 110-$\mathfrak{pc}$; 디디무스의 글 가운데 일부분 | 1) *2 3 1* (της πιστεως υμων, 그 믿음의 우리의)로 어순을 바꿈: 629, $\mathfrak{pc}$; vg / 2) *2 3* (της πιστεως, 그 믿음의)으로 바꿈: 429-$\mathfrak{pc}$; $sy^{p}$ / 3) *1* (υμων, 우리의)로 바꿈: $B^{2}$, $\mathfrak{pc}$; ff / 4) 세 낱말 다 생략: $sy^{h}$, Augustine$^{pt}$, Arnobius. • 5 ουκ (직설법에 사용되는 부정사[否定辭])로 바꿈: K-pm / txt μη: ℵ-pm. • 6 1)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로 바꿈: $\mathfrak{pc}$ / 2) '그가 받으리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로 바꿈: 429-$\mathfrak{pc}$ / 3) '그가 받으리라는 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로 바꿈: 522, $\mathfrak{pc}$. • 7 τι(아무 것)를 생략: ℵ-$\mathfrak{pc}$; $vg^{ms}$. • 8 γαρ(왜냐하면, for)를 첨가: 326-$\mathfrak{pc}$; $sy^{h^{**}}$. • 9 1) *2-4*(αδελφος ο ταπεινος, 형제 그 가난한)로 바꿈: B, Ψ / 2) *1 4 2*(ο ταπεινος αδελφος, 그 가난한 형제)로 바꿈: 720, $\mathfrak{pc}$ | εν(전치사 in)을 생략: $\mathfrak{p}^{74}$. • 11 첫 번째 '그것의'를 생략: 614-$\mathfrak{pc}$; $vg^{ms}$ | 두 번째 '그것의'를 생략: B, $\mathfrak{pc}$. • 12 '사람'으로 바꿈: A-$\mathfrak{pc}$; Cyril | υπομενεί(ι에 서컴플렉스가 붙음)로 바꿈: K-*al*; ff / txt 1) υπομένει(ε에 어큐트가 붙음): $B^{2}$-m / 2) υπομενει(액센트를 표시하지 않음): $\mathfrak{p}^{23}$-P 3) υπομενειν (ν을 첨가): $C^{*}$ |

ἐπηγγείλατο ⊤ τοῖς ἀγαπῶσιν αὐτόν. **13** Μηδεὶς πειραζόμενος λεγέτω ὅτι ⌜ἀπὸ θεοῦ πειράζομαι· ὁ γὰρ θεὸς ἀπείραστός ἐστιν κακῶν, πειράζει δὲ αὐτὸς οὐδένα. **14** ἕκαστος δὲ πειράζεται ὑπὸ τῆς ἰδίας ἐπιθυμίας ἐξελκόμενος καὶ δελεαζόμενος· **15** εἶτα ἡ ἐπιθυμία συλλαβοῦσα τίκτει ἁμαρτίαν, ἡ δὲ ἁμαρτία ἀποτελεσθεῖσα ⌜ἀποκύει θάνατον.

2,5 R 8,28!
Sir 15,11-20
R 7,7s Hen 98,4
R 7,5.10

**16** Μὴ πλανᾶσθε, ἀδελφοί μου ἀγαπητοί. **17** πᾶσα δόσις ἀγαθὴ καὶ πᾶν δώρημα τέλειον ἄνωθέν ἐστιν ⌜καταβαῖνον ⌜ἀπὸ τοῦ πατρὸς τῶν φώτων, παρ' ᾧ οὐκ ⌜1ἔνι ⌜παραλλαγὴ ἢ τροπῆς ἀποσκίασμα⌝. **18** βουληθεὶς ⌜ἀπεκύησεν ἡμᾶς λόγῳ ἀληθείας εἰς τὸ εἶναι ἡμᾶς ἀπαρχήν τινα τῶν ⌜αὐτοῦ κτισμάτων.

1K 15,33!
Mt 7,11p · 3,15.17
Ps 136,7
1J 1,5 |
1P 1,23! · 2T 2,15! Ps 119,43 · Ap 14,4 R 16,5

**19** ⌜⌜Ἴστε, ἀδελφοί μου ἀγαπητοί· ⌜ἔστω δὲ⌝ πᾶς ἄνθρωπος ταχὺς εἰς τὸ ἀκοῦσαι, βραδὺς εἰς τὸ λαλῆσαι, βραδὺς εἰς ὀργήν· **20** ὀργὴ γὰρ ἀνδρὸς δικαιοσύνην θεοῦ ⌜οὐκ ἐργάζεται⌝. **21** διὸ ἀποθέμενοι πᾶσαν ῥυπαρίαν καὶ περισσείαν κακίας ἐν πραΰτητι ⊤, δέξασθε τὸν ἔμφυτον λόγον τὸν δυνάμενον σῶσαι τὰς ψυχὰς ⌜ὑμῶν.

Sir 5,11 Eccl 5,1
Eccl 7,9 Prv 15,1 | Act 10,35
Kol 3,8!
Sir 3,17 · Act 8,14!

**22** Γίνεσθε δὲ ποιηταὶ ⌜λόγου καὶ μὴ ⌟μόνον ἀκροαταὶ⌞ παραλογιζόμενοι ἑαυτούς. **23** ⁰ὅτι εἴ τις ἀκροατὴς ⌜λόγου ἐστὶν καὶ οὐ ποιητής, οὗτος ἔοικεν ἀνδρὶ κατανοοῦντι τὸ πρόσωπον ⌜τῆς γενέσεως⌝ αὐτοῦ ἐν ἐσόπτρῳ· **24** κατενόησεν ⌜γὰρ ἑαυτὸν καὶ ἀπελήλυθεν καὶ εὐθέως ἐπελάθετο ὁποῖος ἦν. **25** ὁ δὲ παρακύψας εἰς νόμον τέ-

4,11 R 2,13 Mt 7,21! 26 L 12,47 1J 3,18 | Ez 33,32
1K 13,12
1P 1,12 · Ps 19,8 · 2,12 R 8,2 G 5,13

**12** ⊤o (– C) κυριος C P 0246 𝔐 sy$^{h}$ ¦ o θεος 4. 33$^{vid}$. 323. 945. 1241. 1739 *al* vg sy$^{p}$; Ath Did$^{pt}$ Cyr ¦ *txt* 𝔓$^{23}$ ℵ A B Ψ 81 *pc* ff co; Did$^{pt}$ • **13** ⌜απο του *pc* ¦ υπο ℵ 429. 630. 1505. 1611 *pc* • **15** ⌜ αποκυεῖ L Ψ 181. 323. 1739 *al* ¦ *txt* B$^{2}$ 𝔐 (*sine acc.* 𝔓$^{23.74}$ ℵ A B* C P) • **17** ⌜κατερχομενον 322. 323. 945. 1241. 1739 *pc* | ⌜ παρα K 623. 2464 *al* ¦ εκ σου 1241 | ⌜⌜ εστιν ℵ P 522. 614. 630. 1505 *al* | ⌜π. η τ-ης α-σματος ℵ* B ¦ π. η τ-η α-σματος 614. 1505 *pc* ¦ π. η τ-η η τ-ης α-σμα ουδε μεχρι υπονοιας τινος υποβολη αποσκιασματος 1832. 2138 *pc* ¦ [π. τ-ης η α-σματος Dibelius *cj*] ¦ π. η ροπης α-σμα (ff); Aug [Estius *cj*] ¦ π-ης η τ-ης α-σματος 𝔓$^{23}$ [*et* ⌜⌜ ενι τι Fr. Hauck *cj*] ¦ *txt* ℵ$^{2}$ A C P (Ψ) 1739 𝔐 vg sy • **18** ⌜γαρ απεκ. 1739*$^{vid}$. 2298 *pc* vg$^{cl}$ ¦ εποιησεν 614. 630. 2495 *al* sy$^{h}$ | ⌜ εαυτ. ℵ$^{c}$ A C P Ψ 945. 1241. 1739 *al* ¦ *txt* ℵ* B 𝔐 • **19** ⌜ιστε δε 𝔓$^{74vid}$ A 2464 vg$^{mss}$ sa bo$^{mss}$ ¦ – 1838 *pc* (*ex lect.*) ¦ ωστε P Ψ 𝔐 sy$^{h}$ ¦ *txt* ℵ(*) B C 81. 945. 1739 *al* lat sy$^{hmg}$ bo ac | ⌜ *1* P$^{c}$ Ψ 0246 𝔐 vg$^{mss}$ sy$^{p.h}$ bo$^{mss}$ ac ¦ και εσ. A(*) 33. 81 ¦ *txt* ℵ B C P* 945. 1739 *pc* lat sa bo • **20** ⌜ου κατεργ. C* P 0246. 1739 𝔐 ¦ *txt* ℵ A B C$^{3}$ K Ψ 69. 81 *al*; Did ⌜ • **21** ⊤ σοφιας P 1852 | ⌜ημων L 049. 1. 623. 1241. 2464 *al* • **22** ⌜ (του 1501 *pc*) νομου C$^{2}$ 88. 621. 1067. 1852 *al* | ⌟⌞ B 614. 630. 1505 *al* latt ¦ *txt* 𝔓$^{74}$ ℵ A C P Ψ 1739 𝔐 • **23** ⁰ 𝔓$^{74vid}$ A 33. 81. 945. 1241. 1739 *al* vg$^{ms}$ sy$^{p}$ bo | ⌜νομου 88. 621 *al*; Cass$^{pt}$ | ⌜της γνωσεως 614 *pc* ¦ – 547 *pc* sy$^{p}$ • **24** ⌜ δε 614. 1505 *pc* vg$^{ms}$ sy$^{h}$ ¦ – 429. 630 *pc* ff t; Hier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13]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6]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9]내 사랑하는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20]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21]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22]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24]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

• 12 1) '그 주님'을 첨가: C-m, sy$^{h}$ / 2) '주님'을 첨가: C / 3) '그 하나님'을 첨가: 4-*al*, vg, sy$^{p}$, Athanasius, Didimus$^{pt}$, Cyril / txt: p23-*pc*; ff, co, 디디무스의 글 가운데 일부분. • 13 1) απο του ('하나님' 앞에 정관사 του를 첨가): *pc*: 2) υπο (의하여, by)로 바꿈: ℵ-*pc*: • 15 αποκυεί (ι에 서컴플렉스를 붙임): L-*al* / txt 1) (αποκύει): B$^{2}$, m / 2) (αποκυει) 액센트를 붙이지 않음: p$^{23}$-P. • 17 '내려오는'으로 바꿈: 323-*pc* | 1) παρα(...으로부터, from)로 바꿈: K-*al* / 2) εκ σου (당신에게서)로 바꿈: 1241 | εστιν (이다, is)으로 바꿈: ℵ-*al* | 1) παραλλαγη η τροπης αποσκιασματος(변함 또는 움직이는 그림자의)로 바꿈: ℵ*, B / 2) παραλλαγη η τροπη αποσκιασματος(변함 또는 그림자의 움직임)로 바꿈: 614-*pc* / 3) παραλλαγη η τροπη η αποσκιασμα ουδε μεχρι υπονοιας τινος υποβολη αποσκιασματος(변함 또는 움직임 또는 그림자 또한 그림자의 무슨 변덕심의 발로)로 바꿈: (ff); Augustine[Estius가 그렇게 추측함] / 4) παραλλαγης η τροπης αποσκιασματος(변함의 또는 움직임의 그림자의)로 바꿈: p$^{23}$ / 5) τι παραλλαγης η τροπης αποσκιασματος(변하는 어떤 것 또는 그림자의 움직이는 어떤 것)이라고 Fr. Hauck가 추측함 / txt 1) παραλλαγη η τροπης αποσκιασμα(변함 또는 움직이는 그림자): ℵ$^{2}$-m, vg, sy / 2) παραλλαγη ουδε τροπης αποσκιασμα(변함도 또한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 Ψ. • 18 1) '왜냐하면 그는 낳으셨다'로 바꿈: 1739$^{vid}$-*pc*; vg$^{cl}$ / 2) '그는 만드셨다'로 바꿈: 614-*al*; sy$^{h}$ | εαυτου(자기 자신의)로 바꿈: ℵ$^{c}$-*al* / txt '자기의': ℵ*, B, m. • 19 1) ιστε δε(δε라는 접속부사를 첨가)로 바꿈: p$^{74vid}$-2464, vg$^{mss}$, sa, bo$^{mss}$ / 2) ιστε(아십시오)를 생략: 1838, *pc* (이것의 생략은 성구집의 영향임). 3) ωστε(그러므로)로 바꿈: P, Ψ, m, sy$^{h}$ / txt 1) ιστε(아십시오): B-*al*; lat, sy$^{hmg}$, bo, ac / 2) ιστω(그는 알아라): ℵ(*). • 20 ου κατεργαζεται(이루지 않는다)로 바꿈: C*-m, sy$^{h}$ / txt '이루지 않는다': ℵ-*al*; Didimus. • 21 '지혜의'를 첨가: P, 1852 | '우리의'로 바꿈: L-*al*. • 22 1) '율법의'를 첨가: C$^{2}$-*al* / 2) '그 율법의'를 첨가: 1501, *pc*: ακροαται μονον(듣는 자만)으로 어순을 바꿈: 26판-*al*; latt / txt μονον ακροαται(다만 듣는 자): p$^{74}$-m. • 23 οτι( 때문에, because)를 생략: p$^{74vid}$-*al*; vg$^{ms}$, sy$^{p}$, bo | '율법의'로 바꿈: 88-*al*; Cassiodorus$^{pt}$ | 1) '그 지식의'로 바꿈: 614, *pc* / 2) '그 출생의'를 생략: 547, *pc*; sy$^{p}$. • 24 1) δε(그런데)로 바꿈: 614-*pc*; vg$^{ms}$, sy$^{h}$ / 2) γαρ(왜냐하면, for)를 생략: 429, 630, *pc*; ff, t; Jerome

λειον τὸν τῆς ἐλευθερίας καὶ παραμείνας, ᵀ οὐκ ἀκροατὴς ἐπιλησμονῆς γενόμενος ἀλλὰ ᵀ ποιητὴς ἔργου,
J 13,17 ᴼ οὗτος μακάριος ἐν τῇ ποιήσει αὐτοῦ ἔσται.
3,2 **26** ⌜Εἴ τις⌝ δοκεῖ θρησκὸς εἶναι ᵀ μὴ ⌜χαλιναγωγῶν
Ps 34,14 γλῶσσαν ⌜αὐτοῦ ἀλλὰ ἀπατῶν καρδίαν ⌜¹αὐτοῦ, τούτου
μάταιος ἡ θρησκεία. **27** θρησκεία ᵀ καθαρὰ καὶ ἀμίαν-
Mt 25,35s Ps 10, 14.18 τος παρὰ ᴼ τῷ θεῷ καὶ πατρὶ αὕτη ἐστίν, ⌜ἐπισκέπτεσθαι
2P 3,14 ὀρφανοὺς καὶ χήρας ἐν τῇ θλίψει αὐτῶν, ⌜ἄσπιλον ἑαυτὸν τηρεῖν⌝ ἀπὸ τοῦ κόσμου.

R 2,11! **2** Ἀδελφοί μου, μὴ ἐν προσωπολημψίαις ἔχετε τὴν πί- 3
1K 2,8 στιν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τῆς δόξης⌝.
H 10,25! **2** ἐὰν γὰρ εἰσέλθῃ εἰς ᵀ συναγωγὴν ὑμῶν ἀνὴρ χρυσοδα-
κτύλιος ἐν ἐσθῆτι λαμπρᾷ, εἰσέλθῃ δὲ καὶ πτωχὸς ἐν
ῥυπαρᾷ ἐσθῆτι, **3** ⌜ἐπιβλέψητε δὲ⌝ ἐπὶ τὸν φοροῦντα τὴν
ἐσθῆτα τὴν λαμπρὰν καὶ εἴπητε ᵀ· σὺ κάθου ὧδε καλῶς,
καὶ τῷ πτωχῷ εἴπητε· σὺ στῆθι ⌜ἐκεῖ ἢ κάθου⌝ ⌜ὑπὸ τὸ
ὑποπόδιόν ⌜μου, **4** ⌜οὐ διεκρίθητε ἐν ἑαυτοῖς καὶ ἐγένε-
σθε κριταὶ διαλογισμῶν πονηρῶν; **5** Ἀκούσατε,
1,9 1K 1,26ss L 6,20p Ap 2,9 ἀδελφοί μου ἀγαπητοί· οὐχ ὁ θεὸς ἐξελέξατο τοὺς πτω-
χοὺς ⌜τῷ κόσμῳ⌝ πλουσίους ἐν πίστει καὶ κληρονόμους
1,12 R 8,28! τῆς ⌜βασιλείας ἧς ἐπηγγείλατο τοῖς ἀγαπῶσιν αὐτόν;
Prv 14,21 1K 11,22 **6** ὑμεῖς δὲ ἠτιμάσατε τὸν πτωχόν. ⌜οὐχ οἱ πλούσιοι κα-

**25** ᵀ ουτος P Ψ 𝔐 sy$^{h}$ | *txt* 𝔓$^{74vid}$ ℵ A B C 0173. 33. 81. (323). 945. 1241. 1739 *pc* latt sy$^{p}$ co | ᵀ ακροατης νομου και 33 *pc* | ᴼ 𝔓$^{74}$ *pc* • **26** ⌜ει δε τις C P 0173. 33. 69. 945. 1241. 1739 *al* lat bo | οτι 614 | ᵀ εν υμιν 049 𝔐 (ᶠ *pc*) | *txt* ℵ A B C P Ψ 0173. 33. 81. 323. 614. 1241. 1505. 1739 *al* latt sy co | ⌜χαλινων B | ⌜ᵗ εαυτου B P Ψ (049). 0173. 614. 1505. 1852 *al* | *txt* ℵ A C 33. 1739 𝔐 | ⌜¹⌝ᵗ εαυτου B C 1505. 1852 *al* | – 1611 | *txt* ℵ A P Ψ 0173. 33. 1739 𝔐 • **27** ᵀ γαρ A 610. 621 *pc* sy$^{p}$ | δε *pc* ff vg$^{mss}$ sy$^{h**}$ co; Spec | ᴼ ℵ* C$^{2}$ 049 𝔐; Did | *txt* 𝔓$^{74}$ ℵ$^{c}$ A B C* P Ψ 33. 81. 614. 630. 1241. 1505. 1739 *al* | ⌜επισκεπτεσθε *et* ⌜υπερασπιζειν αυτους 𝔓$^{74}$; Lact | ⌜ασπιλους εαυτους τηρειτε 614. 1505 *pc* (sy$^{h}$)
¶ **2,1** ⌜ *6 7 1–5* 614. 630. 1505 *al* sy sa$^{mss}$ bo | *1–5* 33 *pc* vg$^{ms}$ • **2** ᵀ την ℵ$^{2}$ A P 33. 1739 𝔐 | *txt* ℵ* B C Ψ 630. 1505 *pc* • **3** ⌜και επιβλ. ℵ A 33 𝔐 bo$^{pt}$ | *txt* B C P Ψ 614. 630. 945. 1241. 1505. 1739 *pc* ff sy$^{h}$ | ᵀ αυτω P 1739 𝔐 t vg$^{cl}$ sy$^{p}$ co | *txt* 𝔓$^{74vid}$ ℵ A B C Ψ 33. 81. 614. 630. 1505 *pc* ff vg$^{st.ww}$ sy$^{h}$ bo$^{mss}$ | ⌜ *2 3 1* B 945. 1241. 1243. 1739 *pc* ff sa | ωδε η καθου εκει 365 | εκει η καθου ωδε 𝔓$^{74vid}$ ℵ (C$^{2}$) P 𝔐 sy$^{p}$ bo | *txt* A (C*) Ψ 33. 81. 614. 630. 1505 *pc* vg sy$^{h}$; Cyr | ⌜επι B$^{2}$ P Ψ 33. 323. 614. 630. 945. 1505. 1739 *al* vg$^{ms}$ sy$^{h}$ sa | *txt* ℵ A B* C 049 𝔐 lat | ⌜ των ποδων μου (A: σου) 33 (t) vg | – Ψ • **4** ⌜και ου P 𝔐 | και 322. 323 *pc* | ουχι Ψ | – B* 1852 *pc* ff | *txt* ℵ A B$^{2}$ C 33. 81. 614. 630. 945. 1241. 1505. 1739 *al* • **5** ⌜εν τω κ. 322. 323 *pc* (vg) | του κοσμου (+ τουτου 61 *al*) A$^{2}$ C$^{2}$ P Ψ 𝔐 ff co?; Prisc | *txt* ℵ A* B C* 33. 945. (1241). 1739 *pc* | ⌜ (Hbr 6,17) επαγγελιας ℵ* A • **6** ⌜ουχι A C*$^{vid}$ 614. 630. 1505 *al* sy | ουχι και 𝔓$^{74vid}$ Ψ | *txt* ℵ B C$^{2}$ 049. 33. 1739 𝔐 latt

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6]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2** [1]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2]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 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4]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5]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찌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6]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

• 25 ουτος를 첨가: P, Ψ, #M, sy$^{h}$ / txt 1) p$^{74vid}$-*pc*; latt, sy$^{p}$, co/ 2) και를 첨가: 323 | '율법을 듣는 사람과'를 첨가: 33-*pc* | ουτος를 생략: p$^{74}$, *pc*. • 26 1) ει δε τις에 δε를 첨가: C-*al*, lat, bo / 2) οτι( 때문에, because)로 바꿈: 614 | 1) '너희 안에'를 첨가: 049, m / 2) εν υμιν을 ειναι 앞에 놓음: *pc* / txt ℵ-*al*, latt, sy, co | χαλινων(제갈 먹이는)으로 바꿈: B | 1) '자기 자신의'로 바꿈: B-*al* / 2) αὐτου(자신의)로 바꿈: 049 | 1) εαυτου(자기 자신의)로 바꿈: B-*al* / 2) αυτου(자기의)를 생략: 1611 / txt ℵ-m. • 27 1) γαρ(왜냐하면)를 첨가: A-*pc*; sy$^{p}$ / 2) δε(그런데)를 첨가: *pc*; ff, vg$^{mss}$, sy$^{h**}$, co; Spec(어그스틴 위서) | τω를 생략: ℵ$^{*}$-m; Didimus의 글 / txt p$^{74}$-*al* | '방문하시오'와 '그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바꿈: p$^{74}$; Lactantius의 글 | '자기 자신들을 물들지 않게 보존하시오'로 바꿈: 614-*pc*; (sy$^{h}$). • 2:1 1) *6 7 1-5* (της δοξης του κυριου ημων Ιησου Χριστου('그 영광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놓임)으로 바꿈: 614-*al*, sy, sy, sa$^{mss}$, bo / 2) *1-5*(της δοξης를 생략하고 του κυριου ημων Ιησου Χριστου만 남김): 33, *pc*; vg$^{ms}$. • 2 την(정관사)을 첨가: ℵ2-m / txt ℵ$^{*}$-*pc*. • 3 '그리고 여러분이 본다면'으로 바꿈: ℵ-m, bo$^{pt}$ / txt B-*pc*; ff, sy$^{h}$ | '그에게'를 첨가: P-m, t, vg$^{cl}$, sy$^{p}$, co / txt p$^{74vid}$-*pc*; ff, vg$^{st.ww}$, sy$^{h}$, bo$^{mss}$ | 1) *2 3 1* (η καθου εκει, 또는 앉으시오 저기에)로 어순을 바꿈: B-*pc*; ff, sa / 2) ωδε η καθου εκει (여기에 또는 앉으시오 저기에)로 바꿈: 365 / 3) εκει η καθου ωδε (저기에 또는 앉으시오 여기에)로 바꿈: p$^{74vid}$-m, sy$^{p}$, bo / 4) εκει και καθου ωδε(저기에 그리고 앉으시오 여기에)로 바꿈: C$^{2}$. 그러나 C$^{*}$에는 εκει και καθου (저기에 그리고 앉으시오)로 바뀌어져 있음. txt: A-*pc*; vg, sy$^{h}$; 시릴의 글 | επι(위에, on)로 바꿈: B$^{2}$-*al*, vg$^{ms}$, sy$^{h}$, sa / txt: ℵ-m, lat | 1) '나의 발들의'로 바꿈: 33, vg / 2) '너의 발들의'로 바꿈: A / 3) '그 발등상 아래'을 생략: Ψ. • 4 1) και ου (그리고 아니)로 바꿈: P, m / 2) και (그리고)로 바꿈: 322, 323, *pc* / 3) ουχι(아니)로 바꿈: Ψ / 4) ου (아니)를 생략: B$^{*}$-*pc*; ff / txt: ℵ-*al*. • 5 1) '세상 안에서'로 바꿈: 322-*pc*; (vg) / 2) '세상의'로 바꿈: A$^{2}$-m, ff, co?; Priscillianus의 글 / 3) '이 세상의'로 바꿈: 61, *al* / txt: 1) ℵ-*pc* / 2) και τω κοσμω(και를 첨가): 1241 | '약속의'로 바꿈), 히 6:17에 근거함: ℵ$^{*}$, A. • 6 1) ουχι (아니)로 바꿈: A-*al*, sy / 2) ουχι και (아니 그리고)로 바꿈: p$^{74vid}$, Ψ, δ / txt: ℵ-m, latt |

ταδυναστεύουσιν ⌜ὑμῶν καὶ αὐτοὶ ἕλκουσιν ὑμᾶς εἰς κριτήρια; **7** ⌜οὐκ αὐτοὶ βλασφημοῦσιν τὸ καλὸν ὄνομα τὸ ἐπικληθὲν ἐφ' ὑμᾶς;

1 P 4,4 · Jr 14,9 Dt 28,10 Act 15,17

**8** Εἰ μέντοι ⌜νόμον τελεῖτε βασιλικὸν⌝ ⌜κατὰ τὴν γραφήν⌝· *ἀγαπήσεις τὸν πλησίον σου ὡς σεαυτόν*, καλῶς ποιεῖτε· **9** εἰ δὲ προσωπολημπτεῖτε, ἁμαρτίαν ἐργάζεσθε ἐλεγχόμενοι ὑπὸ τοῦ νόμου ὡς παραβάται. **10** ὅστις γὰρ ὅλον τὸν νόμον ⌜τηρήσῃ ⌜πταίσῃ δὲ ἐν ἑνί, ⌜γέγονεν πάντων ἔνοχος⌝. **11** ὁ γὰρ εἰπών· *μὴ ⌜μοιχεύσῃς*, εἶπεν καί· ⌜*μὴ φονεύσῃς*·⌝ εἰ δὲ οὐ μοιχεύεις φονεύεις δέ, ⌜γέγονας ⌜¹παραβάτης νόμου.

*Lv 19,18* Mt 22, 39! p R 2,11! Lv 19,15 G 5,3 Mt 5,19 *Ex 20,13 s Dt 5,17 s* R 2,25

**12** Οὕτως λαλεῖτε καὶ οὕτως ποιεῖτε ὡς διὰ ⌜νόμου ἐλευθερίας μέλλοντες κρίνεσθαι. **13** ἡ γὰρ κρίσις ἀνέλεος τῷ μὴ ποιήσαντι ἔλεος· ⌜κατακαυχᾶται ἔλεος κρίσεως.

1,25 Mt 18,29 s. 34; 25, 45 s; 5,7 · Tob 4,10

**14** Τί ⁰τὸ ὄφελος, ἀδελφοί μου, ἐὰν πίστιν ⌜λέγῃ τις⌝ ἔχειν ἔργα δὲ μὴ ⌜ἔχῃ; μὴ δύναται ἡ πίστις σῶσαι αὐτόν; **15** ἐὰν ᵀ ἀδελφὸς ἢ ἀδελφὴ γυμνοὶ ὑπάρχωσιν ⌜καὶ λειπόμενοι ᵀ τῆς ἐφημέρου τροφῆς **16** ⌜εἴπῃ δέ⌝ τις αὐτοῖς ἐξ ὑμῶν· ὑπάγετε ἐν εἰρήνῃ, θερμαίνεσθε καὶ χορτάζεσθε, μὴ δῶτε δὲ αὐτοῖς τὰ ἐπιτήδεια τοῦ σώματος, τί ⁰τὸ ὄφελος; **17** οὕτως καὶ ἡ πίστις, ἐὰν μὴ ⌜ἔχῃ ἔργα⌝, νεκρά ἐστιν καθ' ἑαυτήν.

Mt 7,21! 21,29 Tt 3,8 Mt 25,35 s 1 J 3,17 Jdc 18,6 Mc 5,34! 26

**18** Ἀλλ' ἐρεῖ τις· σὺ ⌞πίστιν ἔχεις, κἀγὼ ἔργα⌟ ἔχω· δεῖξόν μοι τὴν πίστιν ⁰σου ⌜χωρὶς τῶν ἔργων ᵀ, κἀγώ

**6** ⌜ υμας $\mathfrak{P}^{74}$ ℵ* A *pc* ¦ – 623* • **7** ⌜και $\mathfrak{P}^{74}$ A Ψ 33. 81. 614. 630. 1505 *al* sy$^{h}$ • **8** ⌜ *1 3 2* C *pc* ¦ λογον βασιλικον λαλειτε 1241 | ⌜κατα τας γραφας 322. 323 vg sa$^{mss}$ bo ¦ – 623* *pc* • **10** ⌜-σει P $\mathfrak{M}$ ¦ τελεσει Ψ 81. 945. 1241. (1739). 2298 *al* ¦ πληρωσει A 614. 630. 1505. 2464 *al* ¦ πληρωσας τηρησει 33 ¦ *txt* ℵ B C *pc* latt | ⌜-σει P Ψ 1739 $\mathfrak{M}$ vg$^{mss}$ ¦ πεση (614). 2495 *pc* ¦ *txt* ℵ A B C *pc* lat | ⌜π. εν. εσται Ψ • **11** ⌜ φονευσ(ης) ... μοιχευσ(ης) C 614. 630. 945. 1241. 1505. 1739. 1852. 2464 *al sed* ⌜ου Ψ 614. 630. 1505. 2464 *al* | ⌜ εγενου $\mathfrak{P}^{74}$ A 33 | ⌜¹ αποστατης $\mathfrak{P}^{74}$ A • **12** ⌜ λογου $\mathfrak{P}^{74}$ • **13** ⌜-χασθω (+ δε A 33. 81) A 33. 81. 323. 945. 1241. 1739$^{c}$ *al* sa ¦ -χασθε C$^{2}$ 1739* sy$^{p}$ ¦ -χαται δε ℵ$^{1}$ *al* lat sy$^{h}$ ¦ *txt* ℵ*.$^{2}$ B C*$^{vid}$ Ψ $\mathfrak{M}$ vg$^{mss}$ bo; Cyr Hes (P *illeg.*) • **14** ⁰ B C* 1243 *pc* | ⌜ *2 1* A C *pc* ¦ λεγεις 049 | ⌜σχη 614. 630. 1505 *al* ¦ εχειν 1827 *pc* • **15** ᵀ δε A C Ψ $\mathfrak{M}$ vg sy$^{h}$ bo$^{mss}$ ¦ γαρ 1735 *pc* sa ¦ *txt* ℵ B 33. 69. 81. 323. 945. 1241. 1739 *pc* ff bo; Spec | ⌜ ἤ A (33). 81 *al* ¦ – 1735 *pc* | ᵀ ωσιν A P Ψ 33. 1739 $\mathfrak{M}$ ¦ *txt* ℵ B C K *pc* • **16** ⌜και ειπη A Ψ 33$^{vid.}$ 81. 945. 1241. 1739. (2298) *al* bo$^{pt}$ | ⁰ B C* *pc* • **17** ⌜εργ. εχ(η) L 049. 323. 1739. 2464 $\mathfrak{M}$; Hier Prim • **18** ⌞ *4 2 3 1* (ff); [Pfleiderer *cj*] | ⁰ $\mathfrak{P}^{54vid}$ *pc* ff | ⌜εκ $\mathfrak{P}^{54vid}$ $\mathfrak{M}$; Cass ¦ *txt* ℵ A B C P Ψ 33. 69. 81. 614. 630. 1241. 1505. 1739 *al* latt sy co | ᵀσου C $\mathfrak{M}$ ¦ *txt* ℵ A B P Ψ 33. 81. 614. 630. 1241. 1505. 1739 *al* latt sy co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훼방하지 아니하느냐 [8]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10]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2]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14]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7]이와 같이 행함

• 6 1) '여러분을'로 바꿈: $p^{74}$, $\mathfrak{M}^{c}$ / 2) '여러분의'를 생략: 623*. • 7 και(그리고)로 바꿈: $p^{74}$-*al*, $sy^{h}$. • 8 1) *1 3 2* (νομον βασιλικον τελειτε, 율법을 으뜸가는 지키면)로 어순을 바꿈: C, $\mathfrak{M}^{c}$ / 2) λογον βασιλικον λαλειτε(말씀을 으뜸가는 말하면)로 바꿈: 1241 | 1) κατα τας γραφας (성경[복수형]을 따라)로 바꿈: 322, 323, vg, $sa^{mss}$, bo/ 2) κατα την γραφην을 생략: 623*, $\mathfrak{M}^{c}$: • 10 1) τηρησει('지키다'의 3인칭 단수 직설법 미래형)로 바꿈: P, m / 2) τελεσει('완성하다'의 3인칭 단수 직설법 미래형)로 바꿈: Ψ-2298, *al* / 3) τελεση ('지키다'의 3인칭 단수 가정법 단순과거형)로 바꿈: 1739 / 4) πληρωσει('성취하다'의 3인칭 단수 직설법 미래형)로 바꿈: A-*al* / 5) πληρωσας τηρησει(성취하여 지킬 것이다)로 바꿈: 33 / txt: ℵ-$\mathfrak{M}^{c}$; latt. 1) πταισει ('어기다'의 3인칭 단수 직설법 미래형)로 바꿈: P-m, $vg^{mss}$ / 2) πεση('넘어지다'의 3인칭 단수 가정법 단순과거형)로 바꿈: 2495, $\mathfrak{M}^{c}$ / 3) παισει('범하다'의 3인칭 단수 직설법 미래형)으로 바꿈: 614 / 4) txt: ℵ-$\mathfrak{M}^{c}$; lat | παντων ενοχος εσται(전체를 어긴 셈일 것이다)로 바꿈: Ψ. • 11 1) '살인하다'와 '간음하다'의 위치를 서로 바꿈: C-2464 / 2) '살인하다'와 '간음하다'의 위치를 서로 바꾸고 μη를 ου로 바꿈: Ψ-*al* | εχενου('되다'의 2인칭 단수 직설법 단순과거형)으로 바꿈: $p^{74}$, A, 33 | '배반자'로 바꿈: $p^{74}$, A. • 12 '말씀'의 단수 2격으로 바꿈: $p^{74}$. • 13 1) κατακαυχασθω ('기뻐하다/이기다'의 3인칭 단수 명령법)로 바꿈: A-*al*, sa / 2) κατακαυχασθω δε로 바꿈: A, $sy^{h}$ / 3) κατακαυχασθε ('기뻐하다/이기다'의 2인칭 복수 현재형)로 바꿈: $C^{2}$, 1739*, $sy^{p}$ / 4) καταχαυχαται δε('기뻐하다/이기다'의 3인칭 단수 현재형 + δε)로 바꿈: $\aleph^{1}$, *al*, lat, $sy^{h}$ / txt: $\aleph^{*}$-m, $vg^{mss}$, bo; Cyril의 글, Hesychius의 글(P 사본을 오독했기 때문임). • 14 το(중성 단수 정관사)를 생략: B-$\mathfrak{M}^{c}$ | 1) *21* (τις λεγη, 누가 말한다면)로 바꿈: A, C, $\mathfrak{M}^{c}$ / 2) λεγεις ('말하다'의 3인칭 단수 직설법 현재형)로 바꿈: 049 | 1) σχη ('가지다'의 3인칭 단수 가정법 과거형)로 바꿈: 614-*al* / 2) εχειν ('가지다'의 현재 능동 원형)으로 바꿈: 1827, $\mathfrak{M}^{c}$: • 15 1) δε (그런데)를 첨가: A-m, vg, $sy^{h}$, $bo^{mss}$ / 2) γαρ (왜냐하면, for)를 첨가: 1735, $\mathfrak{M}^{c}$: sa / txt: ℵ-$\mathfrak{M}^{c}$; ff, bo; 어그스틴 위서 | 1) η (또는)로 바꿈: A-*al* / 2) ει(...라면)로 바꿈: 33 / 3) 본문의 και를 생략: 1735, $\mathfrak{M}^{c}$ | ωσιν('이다'의 3인칭 복수 가정법 현재형)을 첨가: A-m / txt: ℵ-$\mathfrak{M}^{c}$: • 16 1) '그리고 말한다면'로 바꿈: A-*al*, $bo^{pt}$ / 2) και ειπη δε (και ειπη + δε)로 바꿈: 2298 | το (중성 단수 정관사)를 생략: B, $C^{*}$, $\mathfrak{M}^{c}$: • 17 εργα εχ(η) (행함이 없으면, 어순이 바뀜)로 바꿈: L-m; 제롬의 글, Primasius의 글. • 18 *4 2 3 1* (εργα εχεις, καγω πιστιν, '행함'과 '믿음'의 위치를 서로 바꿈)로 어순을 바꿈: (ff); [Pfleiderer가 그렇게 추측함] | σου (당신의)를 생략: $p^{54vid}$, $\mathfrak{M}^{c}$; ff | εκ (...로부터, from)로 바꿈: $p^{54vid}$, m; Cassiodorus의 글 / txt: ℵ-*al*, latt, sy, co | σου (당신의)를 첨가: C, m / txt: ℵ-*al*, latt, sy, co |

3,13 G 5,6
Dt 6,4 · Mt 8,29p
L 4,34p

ˢ¹σοι δείξω⁾ ἐκ τῶν ἔργων μου τὴν πίστιν ᵀ. **19** σὺ πιστεύεις ὅτι ⸂εἷς ἐστιν ὁ θεός⁾, καλῶς ποιεῖς· καὶ τὰ δαιμόνια πιστεύουσιν καὶ φρίσσουσιν.

J 8,38 R 4,12
Gn 22,2.9

**20** Θέλεις δὲ γνῶναι, ὦ ἄνθρωπε κενέ, ὅτι ἡ πίστις χωρὶς τῶν ἔργων ⸂ἀργή ἐστιν; **21** Ἀβραὰμ ὁ πατὴρ ἡμῶν οὐκ ἐξ ἔργων ἐδικαιώθη ἀνενέγκας Ἰσαὰκ τὸν υἱὸν αὐτοῦ ἐπὶ τὸ θυσιαστήριον; **22** βλέπεις ὅτι ἡ πίστις ⸂συνήργει τοῖς ἔργοις αὐτοῦ καὶ ἐκ τῶν ἔργων ᵀ ἡ πίστις ἐτελειώθη, **23** καὶ ἐπληρώθη ἡ γραφὴ ἡ λέγουσα· *ἐπίστευσεν* ᵒ *δὲ Ἀβραὰμ τῷ θεῷ, καὶ ἐλογίσθη αὐτῷ εἰς δικαιοσύνην* καὶ ⸂φίλος θεοῦ ἐκλήθη. **24** ὁρᾶτε ᵀ ὅτι ἐξ ἔργων δικαιοῦται ἄνθρωπος καὶ οὐκ ἐκ πίστεως μόνον. **25** ⸂ὁμοίως δὲ⁾ καὶ Ῥαὰβ ἡ πόρνη οὐκ ἐξ ἔργων ἐδικαιώθη ὑποδεξαμένη τοὺς ⸂ἀγγέλους καὶ ἑτέρᾳ ὁδῷ ἐκβαλοῦσα; **26** ὥσπερ ⸂γὰρ τὸ σῶμα χωρὶς ᵀ πνεύματος νεκρόν ἐστιν,

*Gn 15,6* R 4,3
2Chr 20,7 Is 41,8
Sap 7,27 | J 8,39
Jos 2,1.15; 6,17
H 11,31
17

οὕτως καὶ ἡ πίστις χωρὶς ᵀ ἔργων νεκρά ἐστιν.

Mc 12,40 R 13,2
Sir 14,1
1,26
Ps 32,9

**3** Μὴ ⸂πολλοὶ διδάσκαλοι⁾ γίνεσθε, ἀδελφοί μου, εἰδότες ὅτι μεῖζον κρίμα λημψόμεθα. **2** πολλὰ γὰρ πταίομεν ἅπαντες. εἴ τις ἐν λόγῳ οὐ ⸂πταίει, οὗτος τέλειος ἀνὴρ ᶠ δυνατὸς χαλιναγωγῆσαι καὶ ὅλον τὸ σῶμα.
**3** ⸂εἰ δὲ⁾ τῶν ἵππων τοὺς χαλινοὺς εἰς ᶠτὰ στόματα⁾ βάλλομεν ⸂εἰς τὸ πείθεσθαι ˢαὐτοὺς ἡμῖν⁾, καὶ ὅλον τὸ σῶμα

**18** ˢ¹ 𝔓⁷⁴ A C Ψ 33. 1739 𝔐 vg ¦ *txt* ℵ B 69. 614. 630. 1505 *al*; Pel (P *illeg.*) | ᵀ μου 𝔓⁷⁴ A P^vid 𝔐 vg sy ¦ *txt* ℵ B C Ψ 33. 81. 323. 614. 630. 1241. 1505. 1739 *al* ff • **19** ⸂ *3 4 1 2* (K* *om. 1*) 𝔐 ¦ *4 1 2* 69 *al* ¦ *2 4* Ψ ¦ *1 4 2* B 614. 630. 1505. 1852 *al* ¦ *1 3 4 2* C 33^vid. 81. 1243 *pc* ¦ unus deus ff ¦ *1 2 4* 945. 1241. 1739. 2298 ¦ *txt* 𝔓⁷⁴ ℵ A 2464 *pc* • **20** ⸂κενη 𝔓⁷⁴ ff ¦ νεκρα ℵ A C² P Ψ 33 𝔐 t vg^cl sy bo ¦ *txt* B C* 323. 945. 1739 *pc* vg^st.ww sa • **22** ⸂συνεργει ℵ* A 33. 630 *pc* ff vg^mss ¦ *txt* ℵ^c B C P Ψ 049. 1739 𝔐 vg sy co | ᵀ αυτου 614. 630. 1505. 1852 *al* vg^ms • **23** ᵒ 𝔓²⁰ L Ψ 614. 623. 630. 1241. 1505 *al* lat sy co ¦ *txt* ℵ A B C P 049. 33. 1739 𝔐 vg^mss | ⸂ δουλος 429. 614. 630. 1505. 1852 *al* sy^h • **24** ᵀ τοινυν 𝔐; Pel ¦ *txt* 𝔓^54vid ℵ A B C P Ψ 33. 81. 614. 630. 945. 1505. 1739 *pc* latt sy co • **25** ⸂ *1* 623 *al* ff vg^cl.ww ¦ ουτως C | ⸂κατασκοπους C K^mg L 945. 1241. 1739. 2298. 2464 *al* ff sy^p.(hmg) bo ¦ αγγελους του Ισραηλ 61 *pc* • **26** ⸂– B 1243 *pc* sy^p; Hier ¦ δε ff; Or | ᵀ του 33. 69. 945. 1241. 1739. 2298 *al* | ᵀ των A C P 1739 𝔐 ¦ *txt* 𝔓^20.74vid ℵ B Ψ 81. 614. 630. 1505 *al*
¶ **3,1** ⸂ (*ex itac.*) πολυδιδ. L 630; (Spec) [Blass *cj*] • **2** ⸂-σει 614. 1505 *pc* vg^mss; Cass | ᶠ δυναμενος ℵ C* 614. 630. 1505. 1852 *al* t vg^ww; Cyr • **3** ⸂ ἴδε 81. 323. 614. 630. 945. 1241. 1505. 1739 *pm* sa? (C P *sine acc.*) ¦ ιδου *pc* sa? ¦ *txt* B² L Ψ 049. 33. 69 *pm* lat bo (ℵ A B* K *sine acc.*; ℵ* *add.* γαρ) | ᶠ το στομα 𝔓⁵⁴ A 81. 623. 2464 *al* (vg^ms) ¦ στομα προς στοματα Ψ ¦ *txt* ℵ B C P 049. 1739 𝔐 lat | ⸂προς A P 𝔐 sy^h ¦ *txt* ℵ B C Ψ 945. 1241. 1739 *pc* | ˢ *2 1* A C Ψ 33. 81. 945. (1241). 1739. 2298 *al*

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19]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1]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네가 보거니와 믿음이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3]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5]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3** [1]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2]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3]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입에 1)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4]또 배

• 18 '나는 보여주겠다 당신에게'로 어순을 바꿈: $p^{74}$-m, vg / txt: ℵ-*al*; Pelagius의 글(P 사본을 오독했기 때문임) | '나의'를 첨가: $p^{74}$-m, vg, sy | txt: ℵ-*al*, ff. • 19 1) *3412*(ο θεος εις εστιν,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로 어순을 바꿈: m / 2) *342*(ο θεος εστιν, 하나님은 계십니다)로 어순을 바꾸고 εις[한 분]를 생략: K* / 3) *412*(θεος εις εστιν,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로 어순을 바꾸고 ο[정관사]를 생략: 69-*al* / 4) *24*(εστιν θεος, 계십니다 하나님은)로 바꿈: Ψ / 5) *142*(εις θεος εστιν, 한 분 하나님은 이십니다)로 바꿈: B-*al* / 6) *1342*(εις ο θεος εστιν, 한 분 하나님은 이십니다)로 어순을 바꿈: $33^{vid}$-*pc* / 7) unus deus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ff / 8) *124*(εις εστιν θεος,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로 바꿈: 945-298 / txt: $p^{74}$-*pc*. • 20 1) '공허한/헛된'으로 바꿈: $p^{74}$, ff / 2) '죽은'으로 바꿈: ℵ-m, t, $vg^{cl}$, sy, bo / txt: B-*pc*; $vg^{st.ww}$, sa. • 22 '함께 작용하다'의 3인칭 단수 직설법 현재형으로 바꿈: ℵ*-*pc*; ff, $vg^{ms}$ / txt: ℵ$^{c}$-m, vg, sy, co | '그의'를 첨가: 614-*al*, $vg^{ms}$. • 23 δε (그런데)를 생략: $p^{20}$-*al*, lat, sy, co / txt: ℵ-m, $vg^{mss}$ | '종'으로 바꿈: 429-*al*, $sy^{h}$. • 24 '그러므로'를 첨가: m; Pelagius의 글 / txt: $p^{54vid}$-*pc*; att, sy, co. • 25 1) '이와 같이'는 그대로 두고 δε(그런데)를 생략함: 623-*al*, ff, $vg^{cl.ww}$ / 2) '이렇게'로 바꿈: C | 1) '정탐꾼들'로 바꿈: C-*al*, ff, $sy^{p.(hmg)}$, bo / 2) '이스라엘의 사자들'로 바꿈: 61, *pc*. • 26 1) γαρ(왜냐하면)를 생략: B-*pc*; syp; 제롬의 글 / 2) δε (그런데)로 바꿈: ff; 오리게네스의 글 | του (중성 단수 2격 정관사)를 첨가: 33-*al* | των(중성 복수 2격 정관사)를 첨가: A-m / txt: $p^{20.74vid}$-*al*. • 3:1 πολυδιδασκαλοι(많은 선생)(*exitacismo*=동일한 발음의 낱말을 혼동함으로 생긴 필기상의 오류)으로 바꿈: L, 630; 어그스틴 위서에 이와 비슷하게 되어 있음[Blass가 그렇게 추측함]. • 2 πταισει('실수하다'의 3인칭 단수 직설법 미래형)로 바꿈: 614-pc, $vg^{mss}$; Cassiodorus의 글 | δυναμενος('할 수 있다'의 현재분사)로 바꿈: ℵ-*al*, t, $vg^{ww}$; Cyril의 글. • 3 1) ιδε (보시오)로 바꿈: 81-*pm*; sa? / 2) ιδε (보시오)로 바꿈(액센트 표시 없이): C, P / 3) ιδου (보시오)로 바꿈: *pc*; sa? / *txt* 1) ει δε: $B^{2}$-*pm*, lat, bo / 2) ει δε(액센트 표시 없이): ℵ-K / 3) ει δε γαρ(γαρ를 첨가): ℵ* | 1) το στομα (그 입)로 바꿈: $p^{54}$-*al*($vg^{ms}$) / 2) στομα προς στοματα (입들에 입)로 바꿈: Ψ / *txt*: ℵ-m, lat | προς (...에, to)로 바꿈: A, P, m, $sy^{h}$ / *txt*: ℵ-*pc* | 1) *21*(ημιν αυτους, 우리에게 그들을)로 어순을 바꿈: A-*al* / 2) *21*(υμιν αυτους, 여러분에게 그들을)로 바꿈: 1241 | *21*(μεχομεν αυτων, 우리는 끌고 다닙니다 그들을)로 어순을 바꿈: A-*pc*.

# 구약 역사서 공관 대조의 필요성과 편집 방법

천사무엘*

## 1. 들어가는 말

성서의 학문용 편집(scholarly editions of the Bible)이란 "독자들로 하여금 성서 원문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도구를 제시해 주는 여러 형태의 편집을 총칭하는 것이다."[1] 이것은 주로 성서의 본문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같은 본문의 원문과 번역문, 사본 등을 대조하는 경우이다.[2] 이 경우 사본들이나 번역문들 간의 차이를 난하주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원문과 번역문의 본문 전체를 대조하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BHS는 사본들 간의 차이나 번역상의 문제를 난하주에서 간단히 설명하였으며, *The NIV Interlinear Hebrew-English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0)은 히브리어 원문과 영어 번역문을 대조하였다. NRSV, REB, NAB, NJB 등 네 가지 번역을 대조해 놓은 *The Complete Parallel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with the Apocryphal/ Deuterocanonical Books*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도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성서 안에 있는 유사본문(similar texts) 혹은 평행본문(parallel texts)끼리를 대조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신약의 공관복음서 본문을 대조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3] 본 글은 두 번째 방식의 학문용 성서 편집에 관

* 한남대학교 구약학 교수.

1) 민영진, "성서의 학문용 편집: 그 필요성과 편집 형태," 「성경원문연구」 3 (1998/8), 7.

2) 이에 관해서는 Ibid., 7-25를 보라.

3) 최근 바울 서신 대조 본문이 우리말로 출판되었다. J. Paul Sampley, Fred O. Francis, eds., Pauline Parallel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92), 나채운 편역, 「바울 서신 대조 연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이 책은 「개역개정판」 본문을 사용하였다. 우리말로 된 '구약 역사서 대조 본문'은 이종록의 「사무엘-열왕기와 역대 본문 대조」(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가 있는데, 이 책은 사무엘기와 열왕기를 주본문으로 하여 역대 본문을 대조시키고 있으며, 「개역」 본문을 사용하였다.

한 것으로, 구약 역사서의 평행 본문 대조 편집의 필요성과 유용성 그리고 역대지를 중심으로 우리말 공관 대조의 편집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구약 역사서 평행본문 대조

### 2.1. 종류

구약성서에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본문들이 산재해 있지만, 사무엘기와 열왕기 그리고 역대지에 쓰여 있는 내용만큼 방대하게 중복되는 내용은 없다. 이 책들의 본문을 대조한 주요 책들이 출판되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평행본문 연대순배열'(harmony)과 '공관 대조 편집'(synoptic parallel)이다.

#### 2.1.1. 평행본문 연대순배열

평행본문 연대순배열은 하나의 일관되고 통일된 이야기나 내용을 제시하기 위하여 평행본문들을 사건순 혹은 시대순으로 묶어 놓은 책을 말한다. 이것은 어떤 시대나 사건에 관한, 가능한 모든 평행본문을 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역사적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4)]

William Day Crockett, *A Harmony of Samuel, Kings, and Chronicl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5). Pp. 365.

이 책은 1884년에 번역된 영어 성서를 본문으로 하여 1897년에 출판된 것을 미국 베이커 출판사에서 1951년에 개정하여 발행하였고 1985년에 재판을 펴냈다.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지에 나와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기록을 연대순으로 배열하고자 했다. 예를 들자면, 사무엘기하 8:3-8에 나와 있는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둘로 나누어, 3, 4, 7, 8절과 이들의 대조 본문에 "하닷에셀과의 전쟁(Decisive Campaign Against Hadadezer)"이라는 제목을 붙여 86번의 위치에 놓고, 5절과 6절을 "다마스쿠스의 정복(Subjugation of Damascus)"이

4)J. C. Endres, W. R. Millar, J. B. Burns, eds., *Chronicles and Its Synoptic Parallels in Samuel, Kings, and Related Biblical Texts*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8), xvi.

라는 제목을 붙여 87번의 위치에 두었다.

James Newsome, *A Synoptic Harmony of Samuel, Kings, and Chronicles With Related Passages from Psalms, Isaiah, Jeremiah and Ezra*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6). Pp. 275.

이 책은 사무엘기상 31장부터 열왕기하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을 선도본문 혹은 주본문(the lead text)으로 하고 있으며, 역대지와 다른 구약의 책들에 나와 있는 관련 본문을 평행본문으로 소개한다. 주본문은 각 페이지의 왼편에, 평행본문은 오른편에 제시하고 있다. 평행본문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페이지에 주본문을 제시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대조 본문을 싣기도 했다. 영어 성서 중 RSV를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저자 자신의 번역으로 대치하기도 했다.

### 2.1.2. 공관 대조

공관 대조는 어떤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어떤 내용이 그렇지 못한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어느 한권의 책을 주본문으로 하고 이에 대한 유사 본문 혹은 평행 본문을 대조하여 놓은 책을 말한다. 본문의 문학적 순서를 존중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5)]

Primus Vannutelli, *Libri Synoptici Veteris Testamenti seu Librorum Regum et Chronicorum Loci Paralleli*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31-34). Pp. 701.

두 권으로 된 이 책은 700쪽 이상의 방대한 본문에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MT)과 그리스어 칠십인역(LXX) 본문(Codex Vaticanus)을 대조시켜 놓았는데, 두 페이지를 사용하여 왼쪽 페이지에는 전자를, 오른쪽 페이지에는 후자를 배열했다. 그리고 각각의 페이지에서 왼쪽 난에는 사무엘기-열왕기, 오른쪽 난에는 역대지의 평행본문을 배치했으며, 역대지 본문이 주본문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평행본문이 없는 경우에는 비워두었다. 본문비평장치에서는 불가타의 라틴어 본문과 요세푸스의 고대 유대사(Antiquities of the Jews)의 그리스어 본문도 적절히 인용했다.

---

5) Ibid.

Abba Bendavid, *Maqbilot baMiqra* [Parallels in the Bible] (Jerusalem: Carta, 1972). Pp. 219.

히브리어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 이 책은 오른쪽 난에 사무엘기하 31장-에스라기 2장까지를 주본문으로 배열하고, 왼쪽 난에는 역대지 본문을 대조시켰다. 오른편에 주본문을 놓은 것은 히브리어로 출판되는 책들에서 전형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역대지와 신명기역사서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다른 책들의 평행본문을 중간 난에 배열했다. 평행본문의 철자나 표기 등의 사소한 차이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Jürgen Kegler and Matthias Augustin, *Synopse zum Chronistischen Geschichtswerk*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84). Pp. 241.

이 책은 독일어권 학생들을 위하여 편집되었으며 모든 성서 본문이 히브리어로 나타난다. 주본문인 역대지 본문은 오른쪽 난에, 사무엘기와 열왕기의 평행본문은 왼쪽 난에 배열하였다. 그리고 히브리 성서의 다른 책에 있는 평행본문은 중간 난에 배열했다. 양식비평적인 단위로 본문을 분류했다.

John C. Endres, William R. Millar, John Barclay Burns, eds., *Chronicles and Its Synoptic Parallels in Samuel, Kings, and Related Biblical Texts*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8). Pp. 356.

영어권 학생들을 위하여 출판된 이 책은 평행본문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영어번역을 시도하였다. BHS를 원문으로 하였고, 고유명사는 대부분 NRSV의 표시방식을 따랐다. 각 페이지의 원쪽 난에 역대지 본문을 주본문으로 배열하였으며, 사무엘기와 열왕기 그리고 히브리 성서의 다른 책들에 있는 평행본문들은 오른편에 제시하였다. 평행본문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첫 번째 평행본문의 오른편에 차례대로 놓았다. 역대지 본문 자체 내에 있는 평행본문은 맨 오른쪽 난에 제시했다. 평행본문이 없을 경우에는 전체 페이지에 역대지 본문을 제시했고, 사무엘기하 31-열왕기하 25장까지의 본문 중 역대지와 평행 관계가 없는 본문은 왼편 난은 비워놓고 오른편에 배열하였다.

## 2.2. 활용 범위

구약 역사서의 평행본문 대조는 성서를 연구하는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중 몇 가지를 실례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성서 번역과정에서의 활용이다. 성서를 번역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 중의 하나는 번역의 통일성이다. 원문이 완전히 일치하는 문장이나 구절은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통일되게 번역해야 한다. 또한, 한두 단어의 차이로 인하여 원문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내용이 거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 평행본문 대조는 평행본문의 확인과 이 본문들의 일관된 번역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으며, 교정 과정에서도 번역의 통일성을 무시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역대지와 사무엘기-열왕기에는 많은 평행본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리된 책의 활용은 성서번역 작업을 위해서 필요하다.

둘째로, 성서 언어를 연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평행본문의 비교 연구는 단어, 문장, 언어 형태의 다양한 사용 방법을 고찰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성서 언어의 변천 과정을 추적하거나 본문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으며, 성서 본문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역대지가 사무엘기나 열왕기보다 더 후대인 페르시아 시대에 완성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본문 간의 언어학적 비교 연구는 성서 히브리어의 역사적 변천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며, 다른 평행본문과의 비교연구 역시 이러한 변천을 추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언어학적 본문 비교 연구를 통하여, 소위 "원래의 본문(the original text)" 혹은 "최초의 본문(the earlist text)"이 무엇이고 소위 "고정된 본문(the fixed text)" 혹은 "최종 본문(the final text)"이 무엇인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셋째로, 성서 해석학에서의 활용이다. 예를 들자면, 유사본문 혹은 평행본문 간의 비교 연구는 자료비평, 양식비평, 편집비평 등에 활용되어 본문들간의 일치와 차이를 설명하는 가설들을 만들게 한다. 그리고 어느 자료가 더 오래되었으며 그 전승 과정에서의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야기시킨 최종 편집자의 의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답하게 한다. 평행본문 대조는 이와 같은 통시적(diachronic) 성서 해석 뿐만 아니라, 공시적(synchronic) 성서 해석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공시적 방법 중 신 문학비평(new criticism)은 본문의 심미적인 면들을 부각시키는데, 평행본문의 비교는 문학적 표현의 차이와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문학적 강조점과 의미의 변화 등을 찾아내는데 용이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성서 안의 성서 해석을 연구하는 소위 내적 성서 주석(inner biblical exegesis)을 고찰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6] 예를 들자면, 역대지의 저자는 신명기 역사서를 재해석하는, 소위 미드라쉬

(midrash) 형태의 성서 해석을 시도했다고 보는 견해들이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유형의 성서 해석사를 연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넷째로,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재구성할 때, 자료 비교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사건이나 이야기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가 존재할 때, 이들에 대한 비교 연구는 필수적이다. 이를 통하여 역사가는 각 자료의 시각이나 관점의 차이, 강조점, 일차적 자료로서의 가치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역대'와 '사무엘기-열왕기'의 평행 대조 본문은 각 사건에 대한 역대지 사가와 신명기사가의 시각적 차이와 강조점이 무엇이고, 어느 자료가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더 유용한지를 비교, 판단하는데 필요하다.

## 3. 우리말 성서와 평행본문 번역

우리말 성서는 평행본문을 얼마만큼 고려하면서 원문을 번역하였는가? 열왕기상 7:23, 25과 역대지하 4:2, 4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상기한 두 평행본문은 BHS에서 세 군데를 제외하고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나 이 세 군데 중 두 군데의 미세한 차이는 본문비평을 통해서 일치시킬 수 있고, 한 군데는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접속사들이므로 번역상 차이가 없다. 따라서 번역의 통일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영어 성서, 즉 NRSV, REB, NJB 등은 이 두 본문을 완전히 일치하게 번역하였는데, NRSV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NRSV

| 왕상 7:23 = 대하 4:2 | 왕상 7:25 = 대하 4:4 |
|---|---|
| Then he made the molten sea; it was round, ten cubits from brim to brim, and five cubits high. A line of thirty cubits would encircle it completely. | It was mounted on twelve oxen, three facing north, three west, three south, and three east, their hindquarters turned inwards; the Sea rested on top of them. |

6) 이러한 형태의 연구에 대해서는 M.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Press, 1985)를 참고하라.

그러나 NAB, GNB, NJPS 등은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NAB를 실례로 들면 다음과 같다.

NAB

| 왕상 7:23, 25 | 대하 4:2, 4 |
|---|---|
| The sea was then cast; it was made with a circular rim, and measured ten cubits across, five in height, and thirty in circumference. (23) | He also made the molten sea. It was perfectly round, ten cubits in diameter, five in depth, and thirty in circumference; (2) |
| This rested on twelve oxen, three facing north, three facing west, three facing south, and three facing east, with their haunches all toward the center, where the sea was set upon them. (25) | It rested on twelve oxen, three facing north, three west, three south, and three east, with their haunches all toward the center; the sea rested on their backs. (4) |

이제 우리말 번역 성서는 어떠한지 「개역개정판」(1998), 「공동번역」(1977), 「표준새번역」(1993)을 차례로 살펴보자.

「개역개정판」

| 왕상 7:23, 25 | 대하 4:2, 4 |
|---|---|
|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십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23) |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십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2) |
| 그 바다를 소 열두 마리가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 그 바다를 놋쇠 열두 마리가 받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

| | |
|---|---|
| 두었으며 (25) |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4) |

위 본문의 경우,「개역개정판」은 평행본문의 번역상의 통일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자면,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로 표현된 것을 번역할 때, "지름"과 "직경", "소의 뒤"와 "소의 엉덩이"를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하나의 단어로 통일시키지 않았다. 또, 소를 셀때에도 역대지 본문에서는 "세마리"로 했지만, 열왕기 본문에서는 그냥 "셋"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평행본문의 번역상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본문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대하 10:1, 4와 왕상 12:1, 4, 대하 18:4 이하와 왕상 22:5 이하 등이다.

「공동번역」

| 왕상 7:23, 25 | 대하 4:2, 4 |
|---|---|
| 그 다음 그는 바다모형을 둥글게 만들었다. 한 가장자리에서 다른 가장자리에까지 직경이 십 척, 높이가 다섯 척, 둘레가 삼십 척 되었다.(23) | 그 다음 그는 바다모형을 둥글게 만들었다. 한 가장자리에서 다른 가장자리에까지 직경이 십 척, 높이는 오척이었다. 줄로 십 척이 되었다. (2)십 척이 되었다. (2) |
| 그 다음 그는 바다모형을 둥글게 만들었다. 한 가장자리에서 다른 가장자리에까지 직경이 십 척,높이가 다섯 척, 둘레가 삼십 척 되었다. (23) | 그 다음 그는 바다모형을 둥글게 만들었다. 한 가장자리에서 다른 가장자리에까지 직경이 십 척, 높이는 오척이었다. 줄로 그 둘레를 한 바퀴 돌리면, 삼십 척이 되었다. (2) |
| 이 바다는 황소 열 두 마리 위에 서 있었는데 세 마리는 북, 세 마리는 서, 세 마리는 남, 세 마리는 동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다가 이 소들 위에 놓였고 소의 꽁무니는 안쪽을 향해 있었다. (25) | 바다는 이 열 두 마리 소 등에 얹혀 있었는데, 세 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이 소들은 모두 궁둥이를 안쪽으로 하고 등으로 바다를 떠받치고 있었다. (4) |

「공동번역」 역시 위의 평행본문을 번역할 때 통일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공동번역 편집자는 역대지 본문의 난하주에 대하 4:2-5가 열왕기상에서 평행본문

을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2-5은 왕상 7:23-26을 보라"고 각주를 달았지만, 정작 두 본문의 번역상의 통일성은 무시했다. 공동번역의 다른 곳에서도 평행본문의 번역상의 통일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표준새번역」

| 왕상 7:23, 25 | 대하 4:2, 4 |
|---|---|
| 그 다음에 후람은 놋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지름이 열 자, 높이가 다섯 자, 둘레가 서른 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 (23) | 그 다음에 후람은 또 놋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이하는 좌동). (2) |
| 또한 열두 마리의 놋쇠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세 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등으로 바다 모형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25) | (4절 전체가 좌동) |

「표준새번역」은 평행본문의 번역상의 통일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였다. 각 문단의 처음에 제목을 붙였으며, 이 본문과의 평행본문이 성서의 다른 부분에 있을 경우에 제목 옆의 괄호에 소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행본문의 번역상의 문제는 표준새번역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자면, 위의 도표에서 보는대로 대하 4:2의 경우 "또"자를 추가한 것은 독자의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불가피하게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왕상 10:28과 대하 1:16은 번역상 일치시킬 수 있는 본문이지만, 표현상 작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준새번역」

| 왕상 10:28 | 대하 1:16 |
|---|---|
| 솔로몬은 말을 이집트와 구에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을 시켜 | 솔로몬은 말들을 이집트와 구에에서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 |

| | |
|---|---|
| 서, 구에에서 사들였다. | 상들을 시켜 구에에서 사들였다. |

이 경우 번역자는 분명히 평행본문을 고려하면서 번역을 시도하였지만, “말”과 “말들”, “무역상”과 “무역상들”, “구에로부터”와 “구에에서”, “시켜서,”와 “시켜” 등에서 표현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것은 번역자의 실수일 수도 있고 교정과정에서 평행본문 번역의 통일성을 간과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비록 사소한 것이지만, 평행본문 대조를 활용했다면 보다 더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 4. 구약 역사서 공관 대조의 편집 방법

성서의 학문용 편집으로서의 구약 역사서 공관 대조를 편집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첫째는 ‘사무엘기상 31장 - 열왕기하 25장’을 주본문으로 하는 것이고, 둘째는 ‘역대지’ 본문을 주본문으로 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이 둘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역대지’ 본문을 주본문으로 하되, ‘사무엘기상 31장 - 열왕기하 25장’의 본문 중 이와 평행본문이 없는 경우에는 전자의 난을 비워두고 후자와 이의 평행본문을 제시하는 경우이다. 본 글에서는 세 번째 방식을 활용하여, 우리말 공관 대조를 편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7]

### 4.1. 본문 배열

(1) 한쪽 페이지가 에이포(A4) 용지의 크기인 두 페이지를 사용하여, 왼쪽 페이지에는 히브리어 원문을, 오른쪽 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우리말 본문을 배열한다.

| 왼쪽 페이지: 히브리어 본문 배열 | 오른쪽 페이지: 우리말 본문 배열 |
|---|---|

7) 본 글에서 제시하는 편집 방법은 J. C. Endres, et al, eds., *Chronicles and Its Synoptic Parallels*를 주로 참고 하였다.

(2) 역대지 본문을 주본문으로 하고 이를 각 페이지의 왼쪽 난에 배열하며, 이와의 평행본문을 오른쪽 난에 배열한다.

(3) 주본문의 평행본문이 없을 경우, 역대지 본문을 전체 페이지에 펼쳐 놓는다.

(4) 평행본문이 둘 이상일 경우 차례대로 배열하되, 사무엘기-열왕기의 본문을 주본문 다음에 배치한다.

(5) 사무엘기상 31장 - 열왕기하 25장의 본문 중 역대지와 평행본문이 없는 경우 주본문의 난을 비워두고 이를 배열하며, 이의 평행본문이 히브리 성서의 다른 부분에 있을 경우 이를 오른편에 배치한다.

(6) 역대지 본문의 구분과 각 문단에 대한 제목 설정은 세계성서공회(United Bible Society)의 체계를 따른다.[8)]

## 4.2. 평행본문

(1) 평행본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수평적 평행본문(horizontal parallels=external parallels)과 수직적 평행본문(vertical parallels=internal parallels)이다. 전자는 어느 한 문서나 책의 본문이 다른 문서나 책의 본문과 평행인 경우를 말하며, 후자는 같은 문서나 책에 있는 평행본문을 가리킨다. 본 글은 이 둘을 모두 고려한다.

(2) 본 글은 역대지의 일차 수평적 평행본문(external primary paralells)을 찾아 볼 수 있는 주요 히브리 성서의 책으로 사무엘기, 열왕기,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예레미야서 등을 고려한다.

(3) 본 글은 수직적 평행본문도 고려하기 때문에 역대지 안에 있는 평행본문도 제시한다.

(4) 역대지와 평행본문이 없는 사무엘기-열왕기의 본문을 제시할 경우, 이의 평행본문이 있으면 함께 제시한다.

## 4.3. 본문 번역

---

8)The United Bible Societies' Helps for Translators. Vol. IV. *Section Headings and Reference System for the Bible*, ed., Robert G. Bratcher. Part I. *Section Headings for the Old Testament*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1961).

(1) 왼쪽 페이지에 제시하는 히브리어 본문은 BHS를 사용하며, 오른 쪽 페이지에 제시하는 우리말 번역은 표준새번역을 사용하되, 본 글의 번역 및 편집 원칙과 다른 경우 번역의 평행본문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번역을 시도한다. (2) 우리말 번역은 히브리 성서의 원문에 충실하도록 한다.

(3) 번역시 우리말 표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단어나 다른 방식의 번역은 [ ]안에 넣는다.

(4) MT의 케레(Qere)를 사용할 경우 난하주에 이를 표기한다.

(5) BHS와 우리말 성서의 장절 구분이 다를 경우 이를 모두 표기하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 대상 5:27-6:15히 (6:1-30한). 여기에서 "히"는 히브리 성서를 "한"은 우리말 성서를 뜻한다.

## 4.4. 실례

본 글에서는 히브리어와 우리말의 본문 대조 몇 가지 실례를 제시한다. 히브리어 본문은 왼쪽 페이지에, 우리말 본문은 오른쪽 페이지에 배열한다.

### 4.4.1. 역대지와 사무엘기의 두 평행본문 공관 대조

#### 4.4.1.1. 히브리어 본문 대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대상 11:1-3 // 삼하 5:1-5

| 삼하 5 | 대상 11 |
| --- | --- |
| 1 וַיָּבֹאוּ כָל־שִׁבְטֵי יִשְׂרָאֵל אֶל־דָּוִד חֶבְרוֹנָה<br>וַיֹּאמְרוּ לֵאמֹר הִנֵּנוּ עַצְמְךָ וּבְשָׂרֶךָ אֲנָחְנוּ׃ | 1 וַיִּקָּבְצוּ כָל־יִשְׂרָאֵל אֶל־דָּוִיד<br>חֶבְרוֹנָה לֵאמֹר הִנֵּה עַצְמְךָ וּבְשָׂרְךָ אֲנָחְנוּ׃ |
| 2 גַּם־אֶתְמוֹל גַּם־שִׁלְשׁוֹם בִּהְיוֹת שָׁאוּל מֶלֶךְ<br>עָלֵינוּ אַתָּה הָיִיתָה מוֹצִיא וְהַמֵּבִי<br>אֶת־יִשְׂרָאֵל וַיֹּאמֶר יְהוָה לְךָ אַתָּה תִרְעֶה<br>אֶת־עַמִּי אֶת־יִשְׂרָאֵל וְאַתָּה תִּהְיֶה לְנָגִיד<br>עַל־יִשְׂרָאֵל׃ | 2 גַּם־תְּמוֹל גַּם־שִׁלְשׁוֹם גַּם בִּהְיוֹת שָׁאוּל מֶלֶךְ<br>אַתָּה הַמּוֹצִיא וְהַמֵּבִיא אֶת־יִשְׂרָאֵל<br>וַיֹּאמֶר יְהוָה אֱלֹהֶיךָ לְךָ אַתָּה תִרְעֶה אֶת־עַמִּי<br>אֶת־יִשְׂרָאֵל וְאַתָּה תִּהְיֶה נָגִיד<br>עַל עַמִּי יִשְׂרָאֵל׃ |
| 3 וַיָּבֹאוּ כָל־זִקְנֵי יִשְׂרָאֵל אֶל־הַמֶּלֶךְ | 3 וַיָּבֹאוּ כָל־זִקְנֵי יִשְׂרָאֵל אֶל־הַמֶּלֶךְ |

| | |
|---|---|
| חֶבְרוֹנָה וַיִּכְרֹת לָהֶם הַמֶּלֶךְ<br>דָּוִד בְּרִית בְּחֶבְרוֹן לִפְנֵי יְהוָה וַיִּמְשְׁחוּ<br>אֶת־דָּוִד לְמֶלֶךְ עַל־יִשְׂרָאֵל׃ ף<br><br>4 בֶּן־שְׁלֹשִׁים שָׁנָה דָּוִד בְּמָלְכוֹ אַרְבָּעִים<br>שָׁנָה מָלָךְ׃<br><br>5 בְּחֶבְרוֹן מָלַךְ עַל־יְהוּדָה שֶׁבַע שָׁנִים<br>וְשִׁשָּׁה חֳדָשִׁים וּבִירוּשָׁלַם<br>מָלַךְ שְׁלֹשִׁים וְשָׁלֹשׁ שָׁנָה עַל כָּל־יִשְׂרָאֵל<br>וִיהוּדָה׃ | חִבְרוֹנָה וַיִּכְרֹת לָהֶם דָּוִיד בְּרִית בְּחֶבְרוֹן<br>לִפְנֵי יְהוָה וַיִּמְשְׁחוּ אֶת־דָּוִיד לְמֶלֶךְ<br>עַל־יִשְׂרָאֵל כִּדְבַר יְהוָה בְּיַד־שְׁמוּאֵל׃ ס |

4.4.1.2. 우리말 본문 대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대상 11:1-3 // 삼하 5:1-5

| 대상 11 | 삼하 5 |
|---|---|
| 1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보소서, 우리는 당신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 1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말하였다. "보소서, 우리는 당신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
| 2 전에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을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당신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당신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당신께 말씀하셨습니다." | 2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을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당신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당신께 말씀하셨습니다." |
| 3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 | 3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 |

| | |
|---|---|
| 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 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br><br>4 다윗은 서른 살에 왕이 되어서, 사십 년 동안 다스렸다.<br><br>5 그는 헤브론에서 일곱 해 여섯 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서른세 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

4.4.2. 역대지와 사무엘기의 세 평행본문 공관 대조

4.4.2.1. 히브리어 본문 대조

예루살렘에서 낳은 다윗의 자녀들
대상 14:3-7 // 삼하 5:13-16 // 대상 3:5-9

| 대상14 | 삼하5 | 대상3 |
|---|---|---|
| 3 וַיִּקַּח דָּוִיד עוֹד נָשִׁים בִּירוּשָׁלַ͏ִם וַיּוֹלֶד דָּוִיד עוֹד בָּנִים וּבָנוֹת׃ | 13 וַיִּקַּח דָּוִד עוֹד פִּלַגְשִׁים וְנָשִׁים מִירוּשָׁלַ͏ִם אַחֲרֵי בֹאוֹ מֵחֶבְרוֹן וַיִּוָּלְדוּ עוֹד לְדָוִד בָּנִים וּבָנוֹת׃ | |
| 4 וְאֵלֶּה שְׁמוֹת הַיִּלּוֹדִים אֲשֶׁר הָיוּ־לוֹ בִּירוּשָׁלָ͏ִם שַׁמּוּעַ וְשׁוֹבָב וְנָתָן וּשְׁלֹמֹה׃ | 14 וְאֵלֶּה שְׁמוֹת הַיִּלּוֹדִים לוֹ בִּירוּשָׁלַ͏ִם שַׁמּוּעַ וְשׁוֹבָב וְנָתָן וּשְׁלֹמֹה׃ | 5 וְאֵלֶּה נוֹלְדוּ־לוֹ בִּירוּשָׁלָ͏ִם שִׁמְעָא וְשׁוֹבָב וְנָתָן וּשְׁלֹמֹה אַרְבָּעָה לְבַת־שׁוּעַ בַּת־עַמִּיאֵל׃ |
| 5 וְיִבְחָר וֶאֱלִישׁוּעַ וֶאֱלִיפָלֶט׃ | 15 וְיִבְחָר וֶאֱלִישׁוּעַ וְנֶפֶג וְיָפִיעַ׃ | 6 וְיִבְחָר וֶאֱלִישָׁמָע וֶאֱלִיפָלֶט׃ |

| | | |
|---|---|---|
| 6 וְנֹגַהּ וְנֶפֶג וְיָפִיעַ: | | 7 וְנֹגָה וְנֶפֶג וְיָפִיעַ: |
| 7 וֶאֱלִישָׁמָע וּבְעֶלְיָדָע וֶאֱלִיפֶלֶט: | 16 וֶאֱלִישָׁמָע וְאֶלְיָדָע וֶאֱלִיפָלֶט: ף | 8 וֶאֱלִישָׁמָע וְאֶלְיָדָע וֶאֱלִיפֶלֶט תִּשְׁעָה: |

4.4.2.2. 우리말 본문 대조

예루살렘에서 낳은 다윗의 자녀들
대상 14:3-7 // 삼하 5:13-16 // 대상 3:5-9

| 대상 14 | 삼하 5 | 대상 3 |
|---|---|---|
| 3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또 자녀들을 낳았다. | 13 다윗이 헤브론을 떠나온 뒤에, 예루살렘에서 또 후궁들과 아내들을 맞아, 또 자녀들을 낳았다. | |
| 4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 14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수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 5 그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이들은 [아이들은] 다음과 같다.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넷은 암미엘의 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이다. |
| 5 입할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 15 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 6 [또] 입할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
| 6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 | 7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
| 7 엘리사마와 브엘랴다와 엘리벨렛이다. | 16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이다. | 8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 이렇게 아홉이다. |

4.4.3. 역대지, 열왕기, 예레미야의 세 평행본문 공관 대조

4.4.3.1. 히브리어 본문 대조

시드기야의 통치

대하 36:11-17 // 왕하 24:18-20 // 렘 52:1-3

| 렘52 | 왕하24 | 대하36 |
| --- | --- | --- |
| 1 בֶּן־עֶשְׂרִים וְאַחַת שָׁנָה<br>צִדְקִיָּהוּ בְּמָלְכוֹ וְאַחַת עֶשְׂרֵה<br>שָׁנָה מָלַךְ בִּירוּשָׁלָם<br>וְשֵׁם אִמּוֹ חֲמִיטַל<br>בַּת־יִרְמְיָהוּ מִלִּבְנָה: | 18 בֶּן־עֶשְׂרִים וְאַחַת שָׁנָה<br>צִדְקִיָּהוּ בְּמָלְכוֹ וְאַחַת עֶשְׂרֵה<br>שָׁנָה מָלַךְ בִּירוּשָׁלָם<br>וְשֵׁם אִמּוֹ חֲמִיטַל<br>בַּת־יִרְמְיָהוּ מִלִּבְנָה: | 11 בֶּן־עֶשְׂרִים וְאַחַת שָׁנָה<br>צִדְקִיָּהוּ בְּמָלְכוֹ וְאַחַת<br>עֶשְׂרֵה שָׁנָה מָלַךְ בִּירוּשָׁלָם: |
| 2 וַיַּעַשׂ הָרַע בְּעֵינֵי<br>יְהוָה כְּכֹל אֲשֶׁר־עָשָׂה יְהוֹיָקִים: | 19 וַיַּעַשׂ הָרַע בְּעֵינֵי<br>יְהוָה כְּכֹל אֲשֶׁר־עָשָׂה יְהוֹיָקִים: | 12 וַיַּעַשׂ הָרַע בְּעֵינֵי יְהוָה ׀<br>אֱלֹהָיו לֹא נִכְנַע מִלִּפְנֵי<br>יִרְמְיָהוּ הַנָּבִיא מִפִּי יְהוָה: |
| | | 13 וְגַם בַּמֶּלֶךְ נְבוּכַדְנֶאצַּר<br>מָרַד אֲשֶׁר הִשְׁבִּיעוֹ בֵּאלֹהִים<br>וַיֶּקֶשׁ אֶת־עָרְפּוֹ וַיְאַמֵּץ<br>אֶת־לְבָבוֹ מִשּׁוּב<br>אֶל־יְהוָה אֱלֹהֵי יִשְׂרָאֵל: |
| | | 14 גַּם כָּל־שָׂרֵי הַכֹּהֲנִים<br>וְהָעָם הִרְבּוּ לִמְעֹל־מַעַל<br>כְּכֹל תֹּעֲבוֹת הַגּוֹיִם וַיְטַמְּאוּ<br>אֶת־בֵּית יְהוָה אֲשֶׁר הִקְדִּישׁ<br>בִּירוּשָׁלָם: |
| | | 15 וַיִּשְׁלַח יְהוָה אֱלֹהֵי<br>אֲבוֹתֵיהֶם עֲלֵיהֶם בְּיַד מַלְאָכָיו<br>הַשְׁכֵּם וְשָׁלוֹחַ<br>כִּי־חָמַל עַל־עַמּוֹ וְעַל־מְעוֹנוֹ: |
| | | 16 וַיִּהְיוּ מַלְעִבִים בְּמַלְאֲכֵי |

| | | |
|---|---|---|
| | | הָאֱלֹהִים וּבוֹזִים דְּבָרָיו<br>וּמִתַּעְתְּעִים בִּנְבִיאָיו<br>עַד עֲלוֹת חֲמַת־יְהוָה בְּעַמּוֹ<br>עַד־לְאֵין מַרְפֵּא׃ |
| 3 כִּי עַל־אַף<br>יְהוָה הָיְתָה בִּירוּשָׁלַם<br>וִיהוּדָה עַד־הִשְׁלִיכוֹ<br>אוֹתָם מֵעַל פָּנָיו וַיִּמְרֹד<br>צִדְקִיָּהוּ בְּמֶלֶךְ בָּבֶל׃ | 20 כִּי עַל־אַף<br>עַד־הִשְׁלִכוֹ יְהוָה הָיְתָה בִּירוּשָׁלַם<br>וּבִיהוּדָה<br>אוֹתָם מֵעַל פָּנָיו וַיִּמְרֹד<br>צִדְקִיָּהוּ בְּמֶלֶךְ בָּבֶל׃ ס | 17 וַיַּעַל עֲלֵיהֶם אֶת־מֶלֶךְ<br>כַּשְׂדִּיִּים וַיַּהַרֹג בַּחוּרֵיהֶם<br>בַּחֶרֶב בְּבֵית<br>מִקְדָּשָׁם וְלֹא חָמַל עַל־בָּחוּר<br>וּבְתוּלָה זָקֵן וְיָשִׁישׁ הַכֹּל<br>נָתַן בְּיָדוֹ׃ |

4.4.3.2. 우리말 대조 본문

시드기야의 통치

대하 36:11-17 // 왕하 24:18-20 // 렘 52:1-3

| 대하 36 | 왕하 24 | 렘 52 |
|---|---|---|
| 11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한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한 해 동안 다스렸다. | 18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한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3}은 립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 1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한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립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
| 12 그는 주 그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 19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 2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

| | | |
|---|---|---|
| 13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그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그는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그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br>14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1},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 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br><br>15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셨지만,<br><br>16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 | 20 예루살렘과 유다가 | 3 예루살렘과 유다가 |

| | | |
|---|---|---|
| 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br><br>17 그가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2} 왕을 불러다가 그들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왕은] 그들 [유다]의 젊은이들을 그들의 성전에서도 닥치는 대로 칼로 쳐죽였다. 그는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를 가리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 모두를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그는 [주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그의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그는 [주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그의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

1} 케레로 읽음
2} 케레로 읽음
3} 케레로 읽음

# 「개역한글판」 성경의 관주 검토

전무용*

## 1. 머리말

그동안 간간이 성경의 독자들로부터 한글 성경의 관주에 대한 문의가 대한성서공회로 들어왔다. 주로 누가 만든 것이며 언제 만든 것인가 하는 문의와, 관주의 내용에 대한 문의였다. 한글 관주는 「영어 개역 관주 성경」(옥스퍼드대학교와 캠브리지대학교 출판부)을 바탕으로 하여 번역하여 만든 것이고, 1926년에 성경 전체에 대한 관주가 「선한문관주성경전서」(이하 '선한문'으로)로 출간이 되었다.[1] 이 책은 1912년에 나온 유성준 이익채의 「신약젼셔 관쥬」에 정태용 조용규가 번역한 「선한문관주구약전서」를 합한 것이다.[2] 이 관주 체계가 1930년 구역 「관쥬성경젼셔」(이하 '구역'으로)의 관주로, 현재 쓰고 있는 1962년의 「관주성경전서개역한글판」(이하 '한글판'으로)의 관주로[3], 1964년의 「관주성경전서간이국한문한글판」(이하 '국한문판'으로)의 관주로 그대로 이어졌다. 다만 1964년 「관주성경전서간이국한문한글판」의 관주는 내용은 같지만, 관주 기호를 붙이는 자리가 1962년판과 달라졌다. 이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검토가 될 것이다.

이번에 「개역개정판」(이하 「개정판」으로) 성경이 나오면서, 독자들로부터 「개정판」에 관주를 붙여서 출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대한성서공회로 많이 들어왔고, 이러한 기회에 그동안 간간이 확인하고 검토했던 우리말 성경의 관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개역한글판

* 대한성서공회 개정업무과 과장

1) 「대한성서공회사Ⅱ」, 1994, 89-90쪽 참조. 이는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하여 밝혀진 사실이지만, 필자는 아직 바탕 본문인 「영어개역 관주」 성경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2) 「대한성서공회사Ⅱ」, 204쪽 참조.

3) 1940년에 「관주 신약 개역」이 나오지만, 「개역」의 관주는 성경전서로 나오지 못하고, 한국 교회에서는 1950년대 중반 이후까지 계속해서 관주가 있는 「구역」이 읽힌다. 62년이 되어서야 「관주성경전서개역한글판」이 나온다.

」에 있는 관주들을「개역개정판」에 올바로 옮기기 위해서, 또「개역한글판」관주의 오류들을 확인해서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의 학문적 성과들이 반영된 새로운 관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서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그동안 발견된「개역한글판」관주의 오류들을 검토하고, 오류의 성격을 알아보려 한다. 다음으로, 1962년의「한글판」의 관주의 관주 위치의 오류에 대하여 살피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1962년「한글판」의 관주와 1964년판「국한문판」의 관주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차이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검토들을 바탕으로, '관주가 있는 개역개정판'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 보려고 한다.

특히「개정판」성경의 관주 작업을 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과, 작업 과정에「관주개역한글판」성경의 관주 오류를 찾아내고 이를 교정하는 방법을 찾아 보았다.

## 2. 관주의 내용이나 관주 기호의 위치가 잘못된 곳들

### 2.1. 한글 성경의 약자가 달라진 것이 관주에 반영되지 못한 예

한글 성경의 약자가 구역의 약자와 개역의 약자가 다르다. 이 차이가 대부분 관주에 반영이 되었는데, '아가'의 관주가 구역대로 '가'로 남아 있는 곳이 있었다. 다음 두 곳은 우연히 발견된 곳이다. 찾아 보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모두 '아'로 바뀌어 있었다. 이 두 곳은 구역의 약자를 개역한글판 약자로 바꾸면서 바뀌지 않은 곳이다. 이 두 곳은 개역한글판(62년)과 개역간이국한문(64년) 두 책에서 모두 잘못되어 있다. 확인된 대부분의 경우에, 62년판의 관주 오류는 모두 그대로 64년판의 관주 오류로 연결되어 있었다. 국한문 성경을 만들 때는 62년판을 기준으로 64년판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된다.

| | |
|---|---|
| 창3:16ㄷ | 가7:10 → 아7:10 ('아가'의 오류) |
| 계3:20ㅅ | 비, 가5:2 → 비, 아5:2 ('아가'의 오류) |

### 2.2. 기타 관주 오류

#### 2.2.1. 레5:3ㅎ 보, 레12:, 10 3:, 15:

레5:3 [3]ㅎ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

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앞에 'ㅎ'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절 전체에 대한 관주임을 짐작할 수 있고, 이 절이 사람의 '부정'과 '허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글판」의 관주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레위기 12장과 15장은 '부정'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장이어서 이 절에 대한 관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 '10 3'이 알 수 없는 관주인데, 「미국성서공회판성경」[4](이하 'ABS판'으로)의 관주를 보면 이것이 레12장, 13장, 15장에 대한 관주임을 알 수 있다. 이곳들은 '부정'에 대하여 나오는 곳이다. 「구역」 관주를 보면 '十二, 十三, 十五,'로 되어 있다. 교정 과정에 이것을 잘못 읽어서 '十三,'을 '10 3,'으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26년판 「선한문관주」와 「구역」은 '보, 레十二:, 十三:, 十五:'로 바로 되어 있다.

### 2.2.2. 삼상16:7으 시47:10,11

삼상16:7 [7]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ᄋᆞ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시편 47편은 9절까지밖에 없다. ABS판 영어성경 관주와 「일본어 성경」 관주[5]와 26년판 「선한문」과 「구역」의 관주들로부터 이곳이 '시147:10,11'의 오기임을 알 수 있다. 「舊新約聖經 文理串珠」(1912)[6]는 144:10,11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 본문 내용을 살펴 볼 때에 147:10,11의 오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147:10,11 [10]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11]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144:10,11 [10]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11]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궤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

4) *The HOLY BIBLE, NEW YORK*, CB086X Series, A.B.S., 1960, 본문은 흠정역이며, 관주가 붙어 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우리 관주의 저본이었다고 보고되어 있는 「영어개역 관주성경」을 구하지 못해서, 다른 여러 관주 성경을 참고하고 있다.

5) 「聖書(引照つき)」, 일본성서협회, 1955년 개역, 이하 「일본어 성경」으로.

6) 「舊新約聖經 文理串珠」, 1912년, 상해대미국성경회, 본문으로 보아 문리본(연합본), 특히 EASY WENLI 라고 하는 문리역이다. (이하 '연합본 문리'로)

「舊新約聖經 文理串珠」(1920)[7]에는 147:10,11로 바로 되어 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는지'가 서로 호응하는 관주로 생각된다.

2.2.3. 삼하14:7ㅗ 비, 전45:7

[7] ..... 내 남편의 이름과 艹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전도서는 45장이 없다. 그러므로 개역의 관주는 오류임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 45:7절이 있는 모든 곳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창45:7 [7]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시45:7 [7]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사45:7 [7]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겔45:7 [7]드린 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찌니라

이 본문들을 비교해 보면 일단 다른 곳들은 삼하14:7과 관계가 없고, 창45:7의 '당신들의 후손'이 '씨'에 상응하는 구절임을 확인할 수 있다. 26년판 「선한문」과 「구역」은 '창45:7'로 되어 있다. 「연합본문리관주」와 「위원회본문리관주」에도 '창45:7'가 나와 있다.

2.2.4. 겔18:7ㅊ 비, 막25:35,36

---

7) 「新舊約聖經 文理串珠」,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Shanghai, 1920(Ed1804), Wenli Reference,(Delegates Version) 이 책이 'High Wenli' 또는 'Classic Wenli' 라고 하는 위원회역본에 관주가 붙은 것이다. 이 성경의 관주는 미국성서공회판 관주와 내용과 체제가 다르고, 우리 관주와도 다르다. (이하 '위원회본 문리관주'로)

겔18:7 [7]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ㅊ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신약 마가복음은 25장이 없다. '막'을 '미가'나 '마태'의 오기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미가도 25장이 없다. 마태 25장 35-36을 살펴 보면

[35]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6]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내용으로 서로 상응하는 구절이다. 「구역」은 「개역한글판」 관주와 같이 잘못되어 있고, 26년판 「선한문」 관주는 '마25:35,36'으로 바로 되어 있다. 「연합본문리관주」에도 '마25:35,36'이 있다.

2.2.5. 눅2:11ㅎ 보, 마1:70

눅2:11 [11]오늘날 ㅋ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ㅌ구주가 ㅍ나셨으니 곧 ㅎ그리스도 ㅏ주시니라

마태복음은 1장에 70절이 없다. 그러므로, 이 곳 'ㅎ'의 관주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ABS판 관주에는 '마1:16; 16:16'이라는 관주가 있다. 콜린사판[8]에는 이 부분에 관주가 없고, 「일본어 성경」 관주[9]는 이 자리에 마1:16, 16:16; 요1:41; 11:27; 행2:36; 10:36 등의 많은 관주가 있다. 1921년판 「연합본문리관주」에는 마1:26의 관주가 보이는데, 마태복음 1장은 25절이 끝이므로, 이 관주도 혹 1:16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자 숫자의 관주기호로 쓴 약자에서 16과 26은 세로줄 하나 더 있고 없는 차이여서 글자 모양이 아주 유사하다.) 「위원회역본 문리관주」에는 '마1:16; 16:16'이라는 관주가 있다. 여러 관주 성경을 살펴 보아도 이 부분에 대하여 마1:17의 관주는 보이지 않고 16절을 관주로 올린 관주들은 ABS판 관주와 일어 개역 성경 관주와 한문성경 관주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음

8) *THE HOLY BIBLE* (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1967, London And New York, Collins' Clear-Type Press.

9) 「聖書(引照つき)」, 일본성서협회, 1955년 개역,

에서 마태 1장 16절과 17절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 곳의 관주로 '마1:16'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마1:16-17 [16]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러라

누가복음의 '곧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본문 내용과 이곳 마태복음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서로 관련을 지어 찾아보고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곳의 관주는 '마1:16'이 적합하고, 「개역」의 1:70이나, 「구역」과 26년 「선한문」판의 '마1:17'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개역」의 관주는 「구역」과 26년 「선한문」판의 관주 '마一:十七'을 '마一:七十'으로 잘못 교정한 것으로 보이고, 26년판의 관주에 17절로 된 것은, 17절에도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내용상 16절이 더 가깝게 상응된다. 당시의 관주 작업자들이 17절의 '그리스도'를 보고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약간 먼 길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6년판 관주의 판단을 따른다면 '마1:17'로, 좀 더 근본적으로 고친다면 '마1:16'으로 고쳐야 하는 자리이다. 우리 관주의 바탕인 영어 개역의 관주는 어떠한지 궁금한 부분이다.

### 2.2.6. 고후3:14ㅓ 보, 마6:52

> [14]그러나 저희 마음이 ㅓ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마태복음에는 6장이 34절까지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역한글판」의 이 관주는 잘못된 것이다. 「구역」의 관주도 '마6:52'로 똑같이 잘못되어 있고, 26년 「선한문」판 관주와 「연합본문리역」의 관주는 '보, 막6:52'로 되어 있다. 「개역한글판」의 관주가 「구역」의 관주의 교정 오류를 답습한 것으로 미루어, 구역의 관주를 보고 개역의 관주 작업을 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막6:52 [52]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

음에 심히 놀라니

여기서는 고린도후서 3장 14절의 관주 'ㅋ' '완고하여'와 막6:52의 '심히 놀라니'가 서로 상응하는 구절이다. NRSV는 이 두 곳을 모두 'hardened'로, 같은 말로 번역하였다.

2.2.7. 골2:7ㅏ 엡20:32, 엡2:20

[7]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ㅏ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에베소서는 6장까지밖에 없으니, '엡20:32"는 잘못된 관주임을 알 수 있다. ABS판에는 이 곳에 엡3:17이라는 관주가 있으나, 이는 개역의 관주와는 관련이 없고, 「연합본문리관주」에는 '행20:32; 엡2:20'이라는 관주가 포함되어 있다. 이 본문과 두 관주는 '세움을 입다'는 내용으로 서로 상응하여 관련되는 내용이다.

행20:32 [32]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엡2:20 [20]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선한문」판과 「구역」 관주에는 '행20:32; 엡2:20'로 바로 나와 있다. 그러므로 이 곳은 '행20:32; 엡2:20'으로 되어야 할 곳이다.

2.2.8. 골4:16ㅏ 딤전5:27

[16]ㅏ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디모데전서 5장은 25절이 마지막이다. 그러므로 이 곳의 딤전5:27은 잘못된 것이다. 「구역」과 「연합본 문리관주」는 '살전 5:27'로 되어 있다.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의 내용과는 '편지를 읽으라'는 내용으로 서로 연관이 된다.

살전5:27 [27]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2.2.9. 히2:9ㅜ 미16:28; 요8:52

히2:9 [9]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간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ㅜ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미가서는 7장까지밖에 없다. 이곳의 '미16:28'은 오류이다. 26년판 「선한문」 관주와 ABS판 관주에서는 '마16:28; 요8:52'로 되어 있다. '죽음을 맛보다'의 '죽음'과 마16:28 '죽기 전에'의 '죽음'과 요8:52의 '죽음을 맛보다'의 '죽음'을 함께 관련지어서 살펴보라는 내용의 관주로 이해할 수 있다.

마16:28 [28]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요8:52 [52]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2.2.10. 계22:17ㄹ 계21:6 사55:1, 7:37

계22:17 [17]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ㄹ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곳의 관주에서는 7:37이 어떤 책을 나타내는 관주인지 알 수가 없다. 언뜻 이사야서처럼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렇다면 7:37이 55:1보다 앞에 있어야 한다. 26년판은 '요7:37'로 되어 있다. 다음의 관주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보면, '목마르다'와 관련된 내용으로 관련지어 보라고 하는 내용의 관주임을 알 수 있고, 구역의 관주가 바른 것임을 알 수 있다. 흥미 있는 것은 이 관주 요7:37이 영국에서 나온 '콜린사'의 관주에만 있다는 점이다. 두 가지의 문리관주나 ABS판 관주나 「일본어 성경」[10] 관주 등에는 보이지 않는다. 영어 개역 관주에 이 부분이 있는

지 궁금하다.

요7:37 [37]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계21:6 [6]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사55:1 [1]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 2.3. 본문 속 관주 기호의 위치의 변화

26년판「선한문」 또는「구역」과 현재의「개역한글판」의 관주를 비교해 보면서, 관주가 붙는 위치가 달라진 곳이 있음을 알았다. 두 번역 사이에 본문의 차이가 없는 경우는 거의 문제가 없이 이전「선한문」과「구역」의 관주가 개역의 관주로 옮겨졌다. 그러나 본문의 번역문이 달라진 경우에, 그 위치가 문맥에 맞게 바르게 달라진 곳도 있지만, 기계적으로 작업하여, 관주가 엉뚱한 곳에 붙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한 본문 안에서 번역문이 상반절과 하반절의 어순이 바뀐다든지 할 때에, 각각의 자리에 관주가 있었다면, 번역문의 변화를 따라서 관주가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 2.3.1. 관주의 위치가 문맥에 맞게 바르게 달라진 곳

(1) 개역한글판 마태복음 2장 1절

[1]ㅈ헤롯 왕 때에 ㅊ예수께서 유대 ㅋ베들레헴에서 나시매 ㅌ동방으로부터 ㅍ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ㅌ : 비, 창 25:6 왕상4:30
ㅍ : 렘39:3

선한문 마2:1 ㅈ헤롯王 時에 ㅊ예수씌서 유대 ㅋ벳을네헴에 誕生ᄒᆞ시니 ㅌ

10) 「聖書(引照つき)」, 일본성서협회, 1955년 개역.

博士等이 ㅍ東方으로브터 至ᄒᆞ야 言ᄒᆞᄃᆡ
ㅌ : 렘39:3
ㅍ : 비, 창 25:6 왕상4:30

여기서는 보는 대로, ㅌ과 ㅍ의 어순이 바뀌면서 관주도 정확하게 기호가 앞뒤로 바뀌어서 표기가 되었다.

(2) 개역한글판 마태복음 3장 3절

[3]광야에 ㅏ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ㅓ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선한문 마3:3 曠野에 ㅏ聲이 有ᄒᆞ야 呼ᄒᆞ야 曰 ㅓ主의 路를 豫備ᄒᆞ며 其捷徑을 直케 ᄒᆞ라

여기서는 관주의 기호 'ㅏ'가 붙는 자리가 달라졌는데, 이는 본문의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올바로 그 위치를 조정한 것이다. 관주가 붙는 자리가 이사야서 40:3의 본문을 인용한 것을 나타내는 관주인데, 개역의 이사야서의 번역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로 되어 있어서, 관주의 자리를 기계적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옮겼음을 알 수 있다. 만일 기계적으로 옮겼다면 '聲'의 자리에 있는 관주를 '소리'의 자리로 옮겼을 것이다.

2.3.2. 신약에서 관주 기호의 위치가 잘못된 곳들
(1) 마태복음 3장 7절

한글판 마3:7 누가 너희를 가르쳐 ㄱ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선한문 마3:7 誰가 爾等을 敎ᄒᆞ야 將來의 ㄱ怒ᄒᆞ심을 避ᄒᆞ라 ᄒᆞ더냐
연합본문리 誰示爾避將ㄱ來之怒乎
위원회본 誰示爾避後日之ㄱ刑乎
개역관주 ㄱ : 롬5:9 엡5:6 골3:6 살전1:10
연합본관주 : 롬5:9 살전1:10
위원회본 관주 : 롬5:9 살전1:10

이곳의 관주는 26년「선한문」판과「구역」은 같고 개역에 와서 달라졌다.「국

한문판」은「한글판」과 같다.

롬5: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엡5:6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골3:6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살전1:10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들 네 곳에서 보면「개역한글판」처럼 "임박한 진노"로 수정이 되기가 곤란하다. 다만 살전1:10에서만 보면 "장래 노하심"이라는 구절이 보이지만, 다른 관주들은 내용상 '하나님의 노하심'이다. 따라서 이곳의 변화는 오교정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런데, 문리역을 보면 '來之怒(닥쳐올 노여움)'로 현재의 개역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구역에서 개역으로 오면서 기계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혹 다른 관주를 보면서 검토를 하여 고쳤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이러한 유사한 예를 볼 수 있다면 모르거니와 이러한 가능성은 적다. 이 단계에서 꼼꼼하게 검토하여 관주의 위치를 조직적으로 바꾼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한글 관주의 특성상 하반절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전체에 대한 관주로 위치를 정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마태복음 3장 11절

마3:11 ㅂ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ㅅ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마3:11 ㅂ我는 水로 洗禮를 施ᄒᆞ야 爾等으로 ㅅ悔改케 ᄒᆞ거니와

ㅂ : 요1:26 행1:5
ㅅ : 행13:24 행19:4
ㅂ : 요1:26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행1: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ㅅ : 행13:24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

에게 전파하니라

행19:4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 곳 마3:11 상반절에서는 번역의 내용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관주는 순서가 달라지지 않아서 거꾸로 되었다. 개역의 관주 'ㅂ'은 두 곳 다 '물로 세례를 준다'는 내용이어서 'ㅅ' 기호가 있는 "물로 세례를" 자리의 관주 내용이고, 'ㅅ'은 본문의 내용이 둘 다 '회개의 세례'와 관계된 내용이어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의 본문에 붙은 기호 'ㅂ'에 대한 관주이다.

이러한 오류는 관주를 구역에서 개역으로 옮기면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어순이나 내용의 변화와 무관하게 관주의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여서, 결과적으로 개역한글판의 관주가 틀리게 뒤바뀌었다. 이곳의 오류는 국한문판의 관주 위치에도 그대로 잘못된 대로 이어져 있다.

(3) 마태복음 5장 43절 관주

[43]또 ㅏ네 이웃을 사랑하고 ㅓ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ㅕ너희가 들었으나

관주 ㅏ : 보, 21

이 관주는 '21절을 보라'는 말이다.

[21]ㅅ옛 사람에게 말한 바 ㅇ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ㅈ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곳 21절의 관주 ㅅ은 '비, 27, 31, 38, 43'이라는 관주 내용이 있어서, '43절과 비교해 보라'는 뜻을 띠고 있다. 내용을 살펴 보면 43절의 관주 ㅏ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에 해당하는 관주가 아니라 절 전체의 내용과 관련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21, 27, 31, 38, 43절 모두가 '옛사람에게 말한바-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는 형식의 어법으로 말하는 구절이다. 이러한 특징을 비교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주 'ㅕ'의 관주 내용으로 '보, 21'이 붙어야 적합하다.

관주 'ㅓ':

레19:[18]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마19:[19]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43절의 관주 'ㅓ'는 실제로 "네 이웃을 사랑하고"에 붙어야 할 관주이다. 그래야 레19:18의 내용에 잘 어울린다. 또 같은 곳에 있는 관주 '보, 마19:19'를 따라가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 교정 과정에 'ㅓ'의 위치가 뒤로 밀려서 잘못 붙은 것이다.

43절의 관주 'ㅕ'는 '비, 신23:6'인데, 이는 신명기 23장 6절과 비교하여 보라는 지시이다.

신23: [3]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 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4]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브돌 사람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5]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6]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찌니라

본문을 찾아보면 암몬 사람에게 대하여 복을 빌지 말라는 본문이다. 이 관주는 내용상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본문과 대응이 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관주 기호의 위치가 이 내용을 가리킬 수 있는 자리에 붙어야 할 내용이다. 이 관주도 역시 뒤로 약간 밀려서 잘못 붙은 것이다.

26년판과 구역의 본문과 거기에 붙은 관주를 보면 이러한 문제가 번역 과정에 본문의 내용이 앞뒤로 바뀌면서 일어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선한문관주」: [43]ᄒᆞ또 ᄒᆞ신 言을 爾等이 聞ᄒᆞ엿ᄂᆞ니 ㅓ爾의 隣을 愛ᄒᆞ고 ㅕ爾의 讐를 惡ᄒᆞ라 ᄒᆞ엿스나

한글 관주의 뿌리인 이 본문의 관주는 정확하게 제 자리에 관주가 붙어 있다. 관주 기호와 그 기호의 관주 내용이 잘 호응을 이루고 있다. 이는 다음의 구역에서도 제대로 되어 있다.

「구역」: 43ㅏ또 ᄒᆞ신 말ᄉᆞᆷ을 너희가 드럿ᄂᆞ니 ㅓ네 리웃을 ᄉᆞ랑ᄒᆞ고 ㅕ네 원슈를 뮈워ᄒᆞ라 ᄒᆞ엿스나

이러한 관주가 개역으로 오면서, 본문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관주를 기계적으로 옮기면서 오류가 일어났다. 구역에서 개역으로 번역이 바뀌면서, 번역 본문의 어순이 바뀌었는데도 관주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순서대로 옮겼기 때문에 일어난 오류이다. 이곳의 오류도 국한문판에 그대로 이어져 있다. 이 관주는 다음과 같이 되어야 올바르다.

[43]또 ㅏ네 이웃을 사랑하고 ㅓ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ㅕ너희가 들었으나
ㅏ : 레19:18 마19:19
ㅓ : 비, 신23:6
ㅕ : 보, 21

(4) 마태복음 6장 18절

「개역한글판」 [18]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ᄎᆞ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선한문」 [18] 此는 禁食ᄒᆞ는 것을 他人의게 示ᄒᆞ려고 홈이 아니오 다만 隱密ᄒᆞᆫ 中에 在ᄒᆞ신 爾父의 示홈이니 ᄎᆞ隱密ᄒᆞᆫ 中에 鑒ᄒᆞ시는 爾父가 報ᄒᆞ시리라
ᄎᆞ: 4, 6

이 곳의 관주는 4절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6절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갚으시리라”와 짝을 이루는 내용임을 알려 주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개역한글판」의 관주는 잘못 붙은 것이고, 「선한문」 관주 기호와 같이 두 번째 나오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에 관주가 붙어야 할 자리이다. 관주를 옮기면서 비슷한 본문에 같은 낱말이 나오는 자리에서, 작업자가 잘못 보아서, 다른 자리에 관주 기호를 붙인 것 같다. 바로잡아야 한다.

(5) 마태복음 6장 30절

「개역한글판」 [30]ㅇ|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선한문」 [30]ㅇ|少信者들아 今日에 在ᄒᆞ다가 來日 아궁에 投ᄒᆞᄂᆞᆫ 野草도 하ᄂᆞ님이 如此히 닙히시거든 況 爾等이야 더욱 닙히지 아니하시랴

이 : 마8:26; 14:31; 16:8; 비, 마17:20

마8:26 [26]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14:31 [31]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16:8 [8]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마17:20 [20]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곳의 관주 '이'는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에 대한 관주이다. 그런데, 번역이 개역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가 절의 끝쪽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개역한글판의 관주가 이동하여야 하는데, 개역한글판의 관주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내용의 변화에까지 관심이 미치지 못하였다.

(6) 마태복음 8장 26절

「개역한글판」 [26]예수께서 이르시되 ㄱ어찌하여 ㄴ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ㄷ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ㄹ잔잔하게 되거늘

「선한문」 [26]예수ㅣ 謂ᄒᆞ샤ᄃᆡ ㄱ少信者여 엇지 ㄴ懼ᄒᆞᄂᆞ냐 ᄒᆞ시고 卽起ᄒᆞ샤 ㄷ風과 海를 叱ᄒᆞ신ᄃᆡ 아조 ㄹ潺潺ᄒᆞ거ᄂᆞᆯ

ㄱ : 보, 마6:30

ㄴ : 요14:27
ㄷ : 시104:6,7; 비,눅4:39
ㄹ : 욥38:11; 시65:7; 비, 마14:32;

이 곳의 관주 가운데서 관주 'ㄱ'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도 역시 구역과 개역의 본문의 번역이 달라지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가 뒤로 위치가 이동하였는데, 관주를 따라서 그 자리로 옮기지 않고, 원래의 순서대로 두어서, 잘못된 것이다. 이는 개역의 관주 작업을 하면서 이러한 관주의 내용의 변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작업한 것일 수도 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은 "[30]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인데, 관주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로 병행이 되는 내용을 안내해 주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관주 기호가 이동하고, 관주 내용도 앞뒤가 바뀌어야 한다.

[26]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ㄱ무서워하느냐 ㄴ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ㄷ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ㄹ잔잔하게 되거늘

ㄱ : 요14:27
ㄴ : 보, 마6:30
ㄷ : 시104:6,7; 비,눅4:39
ㄹ : 욥38:11; 시65:7; 비, 마14:32;

(7) 마태복음 9장 36절

「개역한글판」 [36]ㅊ무리를 보시고 ㅋ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ㅌ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선한문」 [36]ㅊ群衆이 ㅋ牧者無ᄒᆞᆫ 羊과 ᄀᆞᆺ치 苦生ᄒᆞ며 遊離ᄒᆞᄂᆞᆫ 것을 見ᄒᆞ시고 ㅌ憫히 녁이샤

ㅊ : 비, 마14: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ㅋ : 민27:17 [17]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왕상22:17 [17]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

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겔34:5 [5]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ㅌ : 막6:34 [34]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곳도 본문의 번역이 어순이 달라졌는데, 관주의 순서는 본문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선한문 성경에서 ㅊ은, 마태복음 14장 14절과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었다'는 내용으로 병행이 됨을 안내해 주는 관주이다. 그러므로 'ㅊ'은 36절 전체와 관련이 있는 관주로, 이 자리에 그냥 두는 것이 바른 것이다.

관주 'ㅋ'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내용으로 서로 관계가 있음을 알려 주는 관주이다.

관주 'ㅌ'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관련이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곳의 관주 'ㅋ'과 'ㅌ'은 서로 바꾸어서 관주를 붙여야 한다. 26년판 「선한문」의 관주는 제대로 된 것인데 비해, 번역이 달라진 「개역한글판」은 어순의 변화를 따라 관주의 내용도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

(8) 신약 마태복음을 1장부터 10장까지만 표본으로 대조하여 검토를 한 결과 7곳의 관주가 본문 내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본문 내용에 변화가 온 곳에 있는 관주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서, 26년 「선한문」판과 「구역」의 관주를 「개역한글판」으로 옮기면서, 내용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내용을 모르는 작업자가 기계적으로 관주를 옮긴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비율로 문제가 있다면, 신약 전체 260장 가운데서 180여곳 정도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단순 계산을 할 수 있다.

### 2.3.3. 구약에서 관주 기호의 위치가 잘못된 곳들

(1) 창세기 1장 7절 관주 ㅁ

한글판 [7]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ㅁ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국한문판 [7]하나님이 穹蒼을 만드사 穹蒼 아래의 물과 穹蒼 ᄆᆞᆷ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선한문 : 하ᄂᆞ님이 穹蒼을 造ᄒᆞ샤 ᄆᆞᆷ其上下水를 ᄇᆞᆫ分ᄒᆞ시니

관주 내용 시 148:4 : [4]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찌어다

관주의 내용인 시편 148편을 볼 때, 이 곳은 국한문 성경처럼 관주가 붙어야 할 자리이고, 한글판의 관주가 부정확한 것이다. 오히려 '하늘 위의 물'과 호응을 이루는 관주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전체에 관주를 붙일 수도 있겠고, 좀더 구체적으로 관주를 붙인다면 뒤쪽에 "궁창 위의 물"에 관주를 붙일 수도 있겠다.

(2)시편 1편-10편

구약에서 시편을 표본으로 삼아 1편부터 11편까지 「선한문」의 관주와 「한글판」의 관주를 대조하여 보았다. 그 결과 이 곳들에서는 본문의 어순이 마태복음의 경우와 같이 바뀐 곳들이 있었으나, 대부분 관주의 내용이 그 변화에 맞게 정확하게 바뀌어서 제대로 되어 있었다.

시편 2편 1절에서 'ㅐ'와 'ㅗ'가 그러하고, 5편 12절의 'ㅇ'와 'ㅐ', 7편 10절의 'ㅈ'과 'ㅊ', 이러한 곳들이 본문의 어순이 바뀐 대로, 그 변화에 맞게 관주의 순서와 내용이 조정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마태복음을 검토해 본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시편 1-11편에서도 약간의 관주의 오류는 발견이 되었다.

3편 2절의 'ㅐ'는 두 어절 더 앞으로 올라가서 붙어야 정확하다.

「한글판」3:2 [2]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ᄒᆞ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ㅐ' 삼하18:31-32 [31]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고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32]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

기를 원하나이다.

「선한문」3:2 ᄒᆡ彼가 救援홈을 하ᄂᆞ님께 得치 못ᄒᆞᆫ다 ᄒᆞ옵나이다(셀나)

사무엘하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묻는 곳인데, 구스 사람이 대답한 말이 시편 이곳의 본문과 상응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한글판」의 관주는 「선한문」의 관주와 같이 "ᄒᆡ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라는 내용이 관주가 되는 것이므로, '저는' 앞에 관주가 붙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시편 3편 7절의 'ㄷ'은 지금과 같이 "ㄷ나를 구원하소서"에 붙을 내용이 아니라 7절 처음의 "ㄷ주여 일어나소서"에 붙어야 할 관주이다.

「한글판」 [7]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ㄷ나를 구원하소서
「선한문」 [7]여호와여 ㄷ紀ᄒᆞ옵쇼셔 我의 하ᄂᆞ님이어 我를 救援ᄒᆞ옵쇼셔

관주 'ㄷ': 시7:6; 시9:19; 시10:12; 민10:35
시7:6 [6]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시9:19 [19]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시10:12 [12]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민10:35 [35]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위 네 곳의 관주에 모두 "주여 일어나소서"와 상응하는 구절이 있다. 「한글판」의 관주는 오류이다.

7편 5절의 'ㄱ'과 4절의 'ㅐ'는 나름대로 조정이 된 곳인데, '5'절에 있던 'ㅐ'가 4절로 간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선한문 : [4] 我의 親ᄒᆞᆫ 者의게 惡으로 報ᄒᆞ엿거든 [5] 怨讐가 我의 靈魂

을 追執ᄒᆞ고 ᄋᆞ我의 生命을 地에 賤ᄒᆞ며 我의 榮華를 塵埃에 埋케 ᄒᆞ옵쇼셔
오직 ㄱ無故히 怨讐된 자를 我가 拯ᄒᆞ엿나이다(셀나)
'ᄋᆞ' 단8:7 비, 시89:39
'ㄱ' 삼상24:7; 26:9

한글판 : [4]화친한 자를 악으로 1) ㅐ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5]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ㄱ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셀라

'ㅐ' 삼상24:7 [7]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삼상26:9 [9]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ㄱ' 단8:7 비, 시89:39

「선한문」의 'ᄋᆞ' '단8:7 비, 시89:39'가 'ㄱ'으로 된 것은 본문의 변화를 따라 올바로 된 것이다. 선한문에 있던 'ㄱ' "無故히 怨讐된 자를 我가 拯ᄒᆞ엿나이다(셀나)"는 번역이 달라지면서 4절 b로 옮겨간 본문을 따라서 앞으로 옮겼다. 그래서 그 내용도 따라서 「한글판」의 'ㅐ'로 옮겨 간 것이다. 문제는 본문의 번역이 달라지면서 내용상의 상응 관계가 사라진 것이다. 구역의 번역에서는 본문의 내용이 '무고히 원수된 자를 내가 구하였다'는 것으로, 관주의 내용이 사무엘상의 두 곳과 상응하였는데, 「한글판」의 번역은 이곳의 본문과 구역 때처럼 잘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무엘기의 두 곳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형편이 되었는데, 죽이지 못하도록 하여 구하는 본문이다. 이 곳은 본문 번역의 변화와 관주의 상관관계가 역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앞으로 「개역개정판」 이후에 관주를 재검토하고 개정할 때에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 3. 관주개역한글판과 관주개역간이국한문판의 관주 위치의 차이 (창세기 1-5장을 중심으로)

### 3.1. 창세기 1장 1절 관주 ㄱ

(1) 관주의 위치

간이국한문 [1]太初에 하나님이 天地를 ㄱ創造하시니라

개역한글판 [1]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ㄱ창조하시니라(106판 이후의 관주개역한글판)

[1]ㄱ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104판 이전의 관주개역한글판, 86년 6월 25일)

26년선한문 창1:1 ㄱ太初에 하ᄂᆞ님이 天地를 創造ᄒᆞ시니라

| | | | |
|---|---|---|---|
| 개역한글판관주 | ㄱ 태초에 | | |
| 개역간이국한문관주 | ㄱ 창조하시니라 | | |
| 콜린사판관주 | [a] beginning | [b] created | |
| 미국성서공회판관주 | [a] beginning | | |
| 연합본문리성경관주 | 甲 太初 | 乙 創造 | |
| 위원회역본문리관주 | 太初之一時 | | |
| 일본어성경관주 | [a] 神 | [b] 創造 | |

(2) 관주의 내용

다음은 각 책에 실려 있는 관주의 내용이다. 창세기 1장 1절만 비교해 보았는데, 서로 완전히 같은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약간의 유사성은 있지만, 다 다르다.

| 개역한글판 | 콜린사 | ABS판 | 연합본 문리관주 | 일본어 | 위원회역본 문리관주 |
|---|---|---|---|---|---|
| 욥38:4-7 | [b]욥38:4 | | 甲욥38:4-7 | | |
| | | | 乙시8:3 | [a]시8:3 | |
| 시33:6 | | | 甲시33:6 | [a]시33:6 | 시33:6 |
| | | | | [a]시102:25 | |
| 시136:5 | | 시136:5 | | | |
| | | | | [a]사40:21 | |
| 사42:5 | | | 甲사42:5 | [a]사42:5 | 사42:5 |
| | [b]사44:24 | | 乙사44:24 | [a]사44:24 | |
| 사45:18 | | | 甲사45:18 | [a]사45:18 | |
| 요1:1-3 | [a]요1:1-3 | 요1:1-3 | 甲요1:1 | [b]요1:1 | 요1:1-3 |
| 행14:15 | | | 乙행14:15; | | 행14:15 |
| 행17:24 | | | 乙행17:24 | | |
| | [b]롬1:20 | | 乙롬1:20 | [a]롬1:20 | |
| 골1:16,17 | [b]골1:16 | 골1:16,17 히1:8-10 | 乙골1:16 | [a]골1:16 | 골1:16,17 |

| | | | | | |
|---|---|---|---|---|---|
| 히1:10 | [a]히1:10, | | [甲]히1:10; | [b]히1:10 | 히1:10 |
| 히11:3 | [b]히11:3 | 히11:3 | [甲]히11:3(히11:3) | | a히11:3 |
| 계4:11 | [b]계4:11 | | [乙]계4:11 | [a]계4:11 | |
| 같은 곳 | 6 | 4 | 10 | 7 | |
| 차이빈도 | 7곳 | 9곳 | 5곳 | 9곳 | |

(미국성서공회판:1960; 콜린사:1967; 일본어:1955; 개역한글판; 연합본구신약성경; 문리관주:1912; 위원회역본신구약성서 문리관주:1920.)

(3) 관련 관주와 그 본문

욥38:4-10 [4]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찌니라 [5]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6]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7]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8]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9]그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10]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시33:6 [6]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136:5 [5]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42:5 [5]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45:18 [18]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요1:1-3 [1]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행14:15 [15]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

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 오라 함이라

17:24 [24]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골1:16,17 [16]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히1:10 [10]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3 [3]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계4:11 [11]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4) 개역 관주의 내용 검토

'태초'의 개념이 있는 절은 이 가운데 히1:10, 요1:1-3 두 곳이고, 이 두 곳 모두 '창조'의 개념은 들어 있다. 콜린사에서 나온 영어관주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을 a b 둘로 나누어 a를 '태초에'에 붙이고, a의 자리에 이 히1:10, 요1:1-3 두 곳을 관주로 붙이고 있다. b는 '창조하다에 붙이고 위 두 곳을 제외한 6곳 욥38:4 사44:24 롬1:20 골1:16 히11:3 계4:11 등의 관주를 붙이고 있다. 이 관주 내용은 개역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ABS판 관주성경을 보니 '처음'의 자리에 관주 기호가 하나만 있고, 시136:5 요1:1-3 골1:16,17 히1:8-10; 11:3 등의 관주가 있다.

「연합본문리관주」 성경의 관주는 '태초'의 관주로 욥38:4-7 시33:6 사42:5; 45:18 요1:1 히1:10; 11:3 '창조'의 관주로 시8:3 사44:24 행14:15; 17:24 롬1:20 골1:16 히11:3 계4:11 등의 관주가 있다.

관주 내용으로 올라 있는 곳이 모두 18곳인데, 그 가운데 개역한글판의 관주가 13곳이고, 「연합본문리역」이 개역과 같은 곳이 10곳으로 불과 세 곳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요한복음 1장 1절과 1-3절의 차이를 배제하면 11곳이 같고 두 곳이 다르다. 개역에는 있고 문리역에는 없거나 문리역에는 있고 개역에는 없거나 해서 다른 곳이 5곳이나 있어서, 관주가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영어개역관주」를 아직 보지 못했고, 현재로서는「개역한글판」과 관주가 완전히 일치하는 성경을 보지 못했다. 1912년의 연합본문리성경과는 관주 내용이 상당히(위의 비교 중 가장) 유사하다. 문리 성경을 보면서 미국성서공회쪽 관주를 참고하면 한글 관주의 내용과 상당히 같아진다. 1절의 관주를 'ㄱ, ㄴ'으로 나누지 않고 'ㄱ'으로만 한 것은 미국성서공회쪽의 관주와「위원회역본문리관주」뿐이다. 영어개역 관주가 우리의 관주와 완전히 같은지, 비교해 보아야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여러 관주 성경을 함께 참조하면서 보면 개역의 관주의 오류는 바로잡을 수 있다.

26년판「선한문」과「구역」(1930)은 '태초'의 자리에만 관주가 하나 붙어 있다. 한글 관주의 일반적인 성격을 볼 때에, 이 관주는 '태초'에 대한 관주라기보다는 1절 전체에 대한 관주로 보인다. ㄱ과 ㄴ을 가르지 않은 것이 그 증거 가운데 하나이고, 한글판 성경 관주의 일반적인 성격 가운데 하나가 상반절이나 하반절 또는 한 절 전체에 대한 관주가 많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대한 한글 관주의 성격은「관주성경전서개역한글판」성경의 106판부터 달라진다. 105판은 확인하지 못했고, 104판(1986년 6월) 이전까지는 한글판은 '태초에'에 관주가 붙어 있었다. 그랬던 것을 106판부터 '창조'로 옮겼다. 국한문판은 '창조'에 관주 기호가 붙어 있다. 짐작컨대, 두 판의 관주가 다른 것이 문제로 제기되자 더 적합한 자리로 보이는 '창조' 쪽으로 한글 관주를 옮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태초'와 '창조' 두 자리를 두고 비교할 때에는 '창조' 쪽이 더 적합하다. 위의 관주를 검토해 보면 각 절에 '짓다'나 '창조하다'가 공히 들어 있다. 그러나 이는 구역으로부터 개역까지, 창세기 1장 1절의 관주 'ㄱ'이 절 전체를 아우르는 관주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내용상 한 절 전체에 대한 관주로 본다면 '태초에'에 관주 기호를 붙인「개역한글판」(104판 이전)과「구역」이 합당하다. 그러나 맞고 틀리는 문제는 아니고 선택의 문제로 보인다.

다음에 계속해서 검토가 되겠지만,「관주개역한글판」과「관주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의 관주 기호가 붙는 자리는 다르다. 1962년 초판의「관주성경전서개역한글판」이 나오고 나서, 1964년에 나온 관주가 있는 국한문판을 만들 때,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였다.[11]

---

11) 개역한글판을 만드는 일을 맡아서 하였던 김태룡 장로는 국한문 성경의 관주 작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하였고, (김태룡 장로는 1960년에 대한성서공회 일을 떠남) 대한성서공회에 오래 재직한 김호용 총무와 정말용 부총무의 옛 기억으로는 당시 대한성서공회에서 일을 하던 강석모 님이 이 일을 맡아서 진행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이 작업에 대한 기록은 현재 발견하지 못했다. (혹 당시의 교계 신문이나 잡지들에 이러한 일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

### 3.2. 창세기 1장 9절 관주 ㅅ

| | |
|---|---|
| [9]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ㅅ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 [9]하나님이 가라사대 ㅅ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

관주 : 욥38:[8]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9]그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10]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11]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찌니라 하였었노라

국한문 성경(왼쪽)에서는 단순히 '물'에 대한 관주로 처리하였고, 한글판 성경(오른쪽)에서는 '천하의 물' 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에 대한 관주로 처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속성상 '천하'에 대한 관주로 일단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중시하여, 64년 국한문성경에서는 '물'에 대한 관주로 한정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한문 성경의 판단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모든 관주가 한 낱말에 대하여 관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BHS처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처럼 관련된 구절의 처음과 끝에 관주 기호를 붙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각각의 관주에 대하여 일일이 다 검토하고, 그 관주가 한 낱말에 대한 관련 구절인지, 두세 어절에 대한 관련구절인지, 상반절 또는 하반절이나 한 절 전체와 관련된 구절인지를 검토하고, 판단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그 구분이 칼로 썰 듯 딱 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 3.3. 창세기 1장 16절 ㅋ

| | |
|---|---|
| [16]하나님이 두 큰 ㅋ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 [16]하나님이 ㅋ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

선한문 : 하ᄂᆞ님이 ㅋ二巨光을 造ᄒᆞ샤 其中에 巨者는 晝를 主管ᄒᆞ게 ᄒᆞ고 小者는 夜를 主管ᄒᆞ게 ᄒᆞ며

신4:19 [19]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시136:7-9 [7]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한문 26년 성경은 '二巨光'이라는 한 낱말로 되어 있는 곳에 관주가 있고, 한글판은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에 대한 관주로 보이고, 국한문 성경을 이를 특화시켜 '광명체'에 대한 관주로 한정시켜 고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은 혹 '두'나 '두 큰'에 대한 관주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모든 관주를 이렇게 핵심 한 낱말로 특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범례에서, 관주의 성격을 한두 줄로 설명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4. 창세기 1장 21절 ㅍ

| | |
|---|---|
| [21]하나님이 ㅍ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 [21]ㅍ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

시104:25-26 [25]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3)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26]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4)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한글판 성경은 '하나님이'로부터 '창조하시니'까지 상반절 전체에 대한 관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국한문 성경은 관주를 '큰 바다 짐승들'로 특화시켰다. 내용상 '하나님'에 대한 관주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내용이 상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 창조하시니" 전체와 상응하는 문맥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ㅍ하나님이 …… 창조하시니ㅍ"과 같이 하지

않는다면, 약간 오해 가능성이 있더라도, 원래 개역한글판대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관주 표시가 될 것 같다.

### 3.5. 창세기 1장 26절 ㅓ

| | |
|---|---|
| [26]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1)온 땅과 땅에 기는 ㅓ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 [26]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ㅓ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1)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

창9:2 [2]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시8:6-8 [6]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7]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8]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1)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약3:7 [7]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와 같이 한 낱말이 아니라 상반절 또는 하반절 전체에 대한 관주의 경우는 그 시작 부분에 관주를 넣는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된다. 국한문 판에서는 나름대로 '모든 것'에 관주를 붙여서 전체를 나타내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특히 이 곳의 '모든'은 "땅에 기는 모든 것"의 '모든'이어서 앞의 '새' 등을 포용할 수 없다. 원래 한글판 자리에 있던 것을 수정한 것이나, 이것은 국한문판이 잘못 고친 것이다.

### 3.6. 창세기 1장 31절 ㅠ

| | |
|---|---|
| [31]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ㅠ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 [31]ㅠ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

전7:29 [29]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꾀를 낸 것이니라

딤전4:4 [4]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상반절에 대한 관주로, 한글판처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 국한문판은 이를 '심히 좋았더라'로 특화시켰는데, 딤전4:4나 전7:29 모두가 '심히 좋다'는 것으로만 한정되는 내용이 아니다. 국한문판에는 '전7:29' 관주가 누락되어 있다. 「문리관주」에도 이 부분이 있다. 「국한문판」의 교정 오류로 보인다.

## 3.7. 창세기 2장 4절 ㅐ

| | |
|---|---|
| [4]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ㅐ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 [4]여호와 하나님이 ㅐ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

창1:1 [1]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글판, '창조'만의 관주라기보다는 '천지 창조'에 대한 관주로 보는 것이 옳겠다. 이곳도 국한문판의 일반적인 개정과 같이 개정이 한 어절의 관주로 특화시키는 개정이다. 한 낱말에 대한 관주인 것과 상반절 또는 하반절 등 한 절에 대한 관주인 것을 서로 다른 기호로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 3.8. 창세기 2장 5절 ㄴ

| | |
|---|---|
| [5]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ㄴ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 [5]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ㄴ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

창1:10,11 [10]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1]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

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초목'에 대한 관주로만 보기보다는 하반절 전체에 대한 관주로 보인다. 혹 '들'에 대한 관주로 생각할까보아 국한문판과 같이 고쳤는가? 한 낱말에 대한 관주와, 절 전체에 대한 관주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계속 제기된다.

### 3.9. 창세기 2장 7절 ㄷ

| | |
|---|---|
| [7]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ㄷ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 [7]여호와 하나님이 ㄷ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

창3:19 [19]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3 [23]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18:27 [27]오십 의인 중에 오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오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사십 오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시103:14 [14]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전12:7 [7]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고전15:47 [47]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관주의 내용이 '흙'에 대한 것이므로, 개역한글판대로 '흙으로'에 기호를 붙여야 한다.

관주 ㅂ

인, 고전15:45 [45]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라는 하반절 문장에 대한 관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한문판이 좀더 구체화시키기는 했지만, 한글판 성경을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

### 3.10. 창세기 2장 8절 ㅅ

| | |
|---|---|
| [8]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ㅅ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 [8]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ㅅ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

15 [15]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13:10 [10]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사51:3 [3]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겔28:13 [13]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31:8 [8]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욜2:3 [3]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 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계2:7 [7]그들이 용사 같이 달리며 무사 같이 성을 더위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오를 어기지 아니하며

한글판과 같이 하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에 대한 관주로 볼 수도 있다. 사51:3 ‘여호와의 동산’이 있어서, 국한문판과 같이 ‘동산’에 대한 관주로 볼 수도 있다. 26년판에는 ‘동산’에 관주가 붙어 있다. 구역에서 “ᄉᆞ에덴 동편에 흔 동산을 만ᄃᆞ샤”와 같이 되었다.

### 3.11. 창세기 4장 15절 ㅍ

| | |
|---|---|
| [15]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ㅍ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ᵒ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 [15]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ㅍ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ᵒ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

시79:12 [12]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훼방한 그 훼방을 저희 품에 칠 배나 갚으소서

한글판은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라는 문장을 배려한 관주로 보인다. 시79:12를 보건대 ‘칠 배’에 관주 부호를 붙인 국한문판의 고침도 타당성이 있다.

관주 ㅎ

비, 겔9:4, 6 [4]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6]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찌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1)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계14:9, 11 [9]또 다른 천사 곧 세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1]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표’에만 관주 표시를 한 국한문의 표지가 더 합당하게 보인다.

## 3.12. 창세기 4장 24절 ㅏ

| | |
|---|---|
| [24]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ㅏ칠 배일찐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25]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ㅏ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ㅓ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ㅕ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 [24]ㅏ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찐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25]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ㅏ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ㅓ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ㅕ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

ㅏ창4:15 [15]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ㅍ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ㅎ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국한문판의 표지가 적합하다. 한글판에서는 문장 단위로 관주를 붙인 것이고, (ㅏ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찐대) 국한문판에서는 이를 '칠 배'로 국한시켰다. 일반적으로 더 구체적인 관주가 쉽고, 문장 단위의 관주는 틀렸다 할 수는 없으나, 범위가 넓어서 생각을 좀 더 해 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

ㅏ 대상1:1 [1]아담, 셋, 에노스,
눅3:38 [38]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26절의 '셋'에 있어도 문제가 없는 관주를 25절의 '셋'으로 옮긴 까닭은 모르겠다. '셋'이 같기 때문에 생긴 교정 오류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관주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문제는 없는 곳이다.

ㅕ 시116:17 [17]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습3:9 [9]그 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케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슥13:9 [9]내가 그 삼분지 일을 불 가운데 던져 은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호와의 이름(한글판)' 보다는 '이름'이 더 구체적이지만, 꼭 이렇게 고칠 까닭은 없을 듯하다. 스가랴에서는 '내 이름'이라고만 나와서 그랬을까?

### 3.13. 창세기 5장 1절 ㅗ

| | |
|---|---|
| [1]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ㅗ형상대로 지으시되 | [1]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ㅗ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

보, 창1:26,27 [26]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든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용어 쪽으로 관주 체제를 손질을 하였다. 이 곳도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다. 26절에는 '우리의 모양'이라 하여서,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구절은 없다. 그러므로 관주를 '모양'으로만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국한문성경의 관주에만 엡4:24와 골30이 나오는데, 이는 한글판과 26년판에는 없던 관주이다.

엡4:24 [24]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3:10 [10]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를 보면 '골30'은 '골3:10'의 오기로 보인다. 엡4:24는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없는 관주이다. 잘못 들어간 곳으로 보인다. 개정판 때에는 빼야 할 것이다.

## 4. ‘개역개정판’ 관주를 위한 단기적 작업

### 4.1. 개역 관주의 오류 교정

현재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되고 있는 관주 성경은 그 근간이 「貫珠聖經全書改譯簡易國漢文한글판」(H073MS)의 관주와 「관주성경전서개역한글판」(H073)의 관주이다. 이 한글 관주의 뿌리는 1926년의 「선한문관주성경전서」(또는 구역)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주의 주가 완전히 26년판의 관주와 일치하였다. 이것이 구역의 관주로, 개역의 관주로 이어진다. 어쩌다 달리 된 곳은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구역의 교정 오류이거나, 개역한글판(1961) 관주의 교정 오류였다. 앞에서 논의한 12건의 오류가 모두 1926년판에서는 제대로 되어 있던 것이 구역에서와 개역한글판에서 교정이 잘못된 곳이다. 이 가운데 2건은 구역에서도 잘못되어 있었고, 26년판 관주는 12건이 모두 바로 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오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관주의 오류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일차로 26년판 「선한문」 관주와 현 「한글판」 관주 성경을 대조해 보아야 추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대조 작업을 통해서 차이가 발견이 되면, 그 자료들은 따로 검토를 한 다음에 어떤 쪽이 잘못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전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일 수도 있다.)

내용의 검토는, 차이를 보이는 곳 가운데, 26년의 오류를 혹 개선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교정 오류로서 26년판의 내용대로 고쳐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이미 발견된 곳 외에는 거의 오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류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정도의 교정 작업은 현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소한의 작업이다.

### 4.2. 관주 위치의 오류 교정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구역에서 개역한글판으로 올 때에 번역이 바뀐 곳의 관주가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 26년판 또는 구역의 관주를 가지고 현재의 관주와 관주 기호의 위치를 비교하여, 한 절 안에서 어순이 바뀐 개정이 있는지, 그 경우에 관주에 영향을 미치는 곳인지를 찾아야 한다. 앞에서 검토한 대로 이러한 곳은 앞뒤 관주 순서를 내용에 맞게 재조정하여야 한다. 개역의 관주 작업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오류는 개역한글판의 관주를 개역개정판으로 옮길 때도 일어날 수 있는 오류이다.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

### 4.3. 「관주성경전서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의 관주와 「관주성경전서개역한글판」의 관주

이 둘 사이에는 본문에 관주가 붙는 자리에 큰 차이가 있다. 검토해 본 결과, 26년의 관주를 가지고 구역의 관주와 현재의 「관주개역한글판」을 만들었으며, 「관주개역한글판」을 가지고 다시 검토 수정하여 현재의 「관주성경전서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H073MS)의 관주를 만들었다.

「국한문판」에서 달라진 곳은 관주의 내용이 아니라, 본문에 관주기호가 붙는 자리이다. 일반적으로, 적지 않은 경우에 이전의 「구역」으로부터 「관주개역한글판」은 문장 단위로 관주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문장 단위와 낱말 단위의 관주가 섞여 있음으로써, 문장 단위의 관주는 오해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의 관주에서는 주로 문장 또는 상반절이나 하반절 단위의 관주를 그 속의 핵심 어절 단위로, 관주 기호를 붙이는 자리를 바꾸었다. 그러나 그 수정이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이제 관주 체제를 검토한다면, 두 종류의 세로쓰기 관주를 대조하여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을 검토하되, 나중에 개정된 관주인 「관주성경전서간이국한문한글판」의 관주를 기준으로 하여, 두 관주 사이에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실제로 국한문관주 성경보다는 한글판관주 성경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 온 한국 교회의 현실을 중시해서, (구역으로부터 내려온 그대로의) 개역한글판 관주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국한문판에서 변경된 곳은 본격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관주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 5. 장기적인 관주 개정 작업

개역한글판을 개정하듯 관주의 개정 작업도 필요하다. 이 개정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오기를 찾아내는 교정과, 국한문판의 작업을 보완하는 검토뿐만 아니라, 「개역개정판」에 올리게 될 관주를 이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하는 일이다. 이 작업은 단순히 개역한글판의 관주를 개역개정판의 본문에 옮기는 정도의 작업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써 오던 관주 자체를 전반적으로 연구하여 재검토하는 일이다.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될 때부터 몇 번 개정되어 「개역개정판」이 되기까지

수십 년 동안 영어권이나 독일어권 등에서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관주 성경이 나왔다. (해설관주성경의 관주는 독일어권에서 나온 또다른 관주의 한 예이다.) 개역의 관주는 1926년에 완성된 것으로, 그동안 거의 한 번도 본격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다. 64년판 관주성경은 관주를 붙이는 자리에 대한 보정의 성격으로서, 관주 자체의 내용을 검토한 것은 아니다. 이제 새로운 작업은 개역개정판의 관주를 위한 검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주 체계를 세울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이제까지 사용하여 온 관주를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장기적 작업이 될 것이다. 이것은 성서학자들이 검토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본격적인 관주 작업을 뜻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관주의 내용을 분석하고, 현 관주의 원 자료와 성격 등을 밝힌다. 현재의 관주에서 출발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곳을 첨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곳을 삭제하여, 전면적으로 관주에 대하여 연구와 검토와 개정 작업을 한다.

## 6. 맺음말

이 글은 한글 관주의 바탕인 「영어 개역 관주 성경」(옥스퍼드대학교와 캠브리지대학교 출판부)을 직접 비교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영어 개역 관주 성경」을 구하는 대로 다시 한 번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관주 성경들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역본들마다 관주가 조금씩 달랐다. 관점과 필요에 따라서 다른 관주 체계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관주는 어떠한지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역의 관주에 약간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것은 성과이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관주 개역개정판」에서 「개역한글판」의 관주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류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개역성경의 관주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관주의 내용과 성격을 밝히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 우리말 「신약전서」: 세 번역 고찰

김태룡*

## 1. 글의 첫머리에

우리 겨레가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게 되기에는 천주교회와 개신교회, 이 두 갈래 길이 있었다.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로 보면, 천주교회가 백 년이나 앞섰지만, 성경 번역의 역사로는 개신교 쪽이 도리어 백 년이나 훨씬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양쪽 '번역사'에 대해서는 따로 독자의 공부에 맡긴다.) 이 글에서는 '성경' 전체가 아니라 '신약'만을 다루기로 한다.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성경 번역에 임하는 정신과 방법상의 자세가 뚜렷이 달랐다. 개신교 쪽에서는 성경 본문만을 충실히 번역하는 데 힘썼는데, 천주교 쪽에서는 본문 못지 않게 교리에 따르는 해설을 붙이는 번역에 역점을 기울였다.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인준'이 공인역의 필수 요건인 반면, 개신교회는 각 교파가 집결한 성서공회 주관의 번역을 공인역으로 한다. 그러므로 대한성서공회는 번역의 기본을 '본문만을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이 그 본분이라'고 거듭 천명하여 왔다.

1968년 1월 신·구교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성서를 번역하게 되었다. 이것은 20세기 후반기에 있어서 기독교인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깊은 의미를 지닌 큰 일이다.

그 뒤, 양쪽 계열의 번역이 많이 일어났고, 공동번역의 당사자인 천주교 쪽에서나 개신교 쪽에서도 새로운 번역의 필요성이 들끓어 일어나, 천주교 쪽에서는 '200주년 성서'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개신교 쪽에서는 '표준번역이 될 만한 새번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 다루어야 할 것은 「개역개정판」의 출현이다. 한국 교계에서 반세기

---

* 1949-1961년, 대한성서공회 출판실무 담당자,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원고 작성자.

이상 거의 대부분 신자가 애독하여 온「개역」성서를 그 번역 체재는 고수하고, 원전의 뜻을 어긋낸 낱말, 표현이 알맞지 못한 부분, 우리말 어법에 거스르는 것들만을 바로잡기에 손을 댄다는 취지로 이룩한 큰 작업이었으니 그 공력을 기려 마땅하다. 이「개역개정판」은 현대의 한국 교계를 이끌고 있는 기성인 층이 고정관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이해력을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우물 안 개구리 생각이 존속되고 잔존하는 한, 상당한 기간 중용될 것도 뻔한 노릇이다.

필자는 우리 겨레, 우리말 성서를 읽는 교우들에게 자기가 지금껏 읽는 번역본만이 완전하고, 여타 역본을 배격하려 드는 옹졸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권하는 생각에서 이 논제를 잡았다. 성서 번역에 힘쓰신 분들의 공력을 높이 평가하는 바이니,

>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마음대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벧후 1:20-21,「표준새번역」)

한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이다.

이 글의 표제로 잡은 세 역본 신약은 ① 천주교쪽「천주교 200주년 신약성서」, ② 개신교쪽「표준새번역」, ③「개역개정판」을 두고 한 것인데, 오늘날 퍼져 있는 우리말 신약들 가운데서 대표적이라 꼽는 것이 엉뚱한 편견은 아니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2. 세 신약 번역의 특성 개관

### 2.1.「200주년 신약성서」

'공동번역'을 공인역으로 받아들인 천주교회는, 교회 창립 200주년이 되는 1984년에 대어 기념 신약을 독자적으로 번역하기로 하였다. 곧 '공동번역'은 전례용으로 하고, 학습용으로는 새로운 번역을 기획하고 힘을 기울인 열매가 1991년 3월 25일자 보급판 초판이다. 그 실물을 놓고 살펴보자.

200주년 역의 보급판 속표지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인준-

#### 2.1.1. 천주교 쪽의 최신역 신약임

현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번역이다.

### 2.1.2. 번역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글

(1) 머리말 인용

1974년 뜻 있는 가톨릭 성서학자들의 동참에 힘입어 '200주년 신약성서 번역위원회'를 구성하고 곧 번역작업에 착수했습니다. 10년 계획으로 1984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에 맞추어 출간할 예정이었으나 제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미루어 오다가 이번에 보급판을 먼저 펴내게 되었습니다. 낱권으로 발행되는 주석판이 완간되기까지는 좀더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보급판이라 한 것은, 거의 직역에 가까운 주석판의 역문들을 다소 윤문하여 일반 신자들이 읽기 쉽게 다듬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주해는 주석판에 수록되었으므로 여기에는 참조 구절과 간단한 각주만 곁들였습니다. (줄임) -분도 출판사-

(2)「200주년 신약성서」의 탄생을 반기며

-한국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이병호-

"주교들은 '사도적 가르침을 위탁받은 이들로서' 자기들에게 위탁된 신자들이 필요한 주해가 충분히 달려 있는 성서 번역을 통해서 교회의 자녀들이 신약성서, 그 중에서도 복음성서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교회의 자녀들이 안전하고도 효과적으로 성서와 친밀해지고 그 정신에 젖도록 해야 한다." (계시헌장 25항)

근래에 와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 성서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그에 대한 연구가 대단한 세력으로 확산되고 있음은 무엇보다도 반가운 일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는 지탱과 힘이 되고, 교회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힘, 마음의 양식, 영신생활의 깨끗하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힘과 능력을 간직하고 있기(동 21항)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서에 대한 신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연구 분위기에 걸맞은 성서 번역본 특히 지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바 '필요한 주해가 충분히 달린' 우리말 성서가 없었다는 것은 아쉬움을 넘어 부끄럽기까지 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제 주로 몇 분의 뜻 있는 학자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참으로 큰 다행이며 한국교회 전체에 더없이 반가운 일입니다. (줄임)

(3)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활동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에서는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성서' 번역을 시작하여 1977년 2월에 첫권「호세아・미카」가 그 작업의 선을 보였다.

김수환 추기경은 그 머리말에서 이 성서의 용도를 학문용으로 규정하였다.

(줄임) 마침내 우리 교회가 이제 정예한 지성의 신학자들을 배출하였고 이들에 의해 성서번역사업의 앞날에 보다 밝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성서의 번역은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새로이 번역될 필요도 있으니, 세대가 거듭할수록 성서신학이 더욱 발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전은 바로 하느님 말씀의 농사가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의 성서 번역 사업은 전례용을 위하여 가톨릭과 개신교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왔다. (줄임) 신구교가 공동으로 성서를 번역하고 사용하는 일은 기독교 일치운동에 따른 아름다운 결실로서 계속 높이 평가 되어야 한다.

한편 이번에 가톨릭 교회의 성서학자들에 의해 새로이 번역 출간되는 200주년 성경은 학문용으로서, 풍부한 각주를 곁들인 일종의 주해서이다. (줄임) -리 진호 지음「한국성서백년사」I. 280쪽에서 재인용.

위의 (1)(2)(3)은「200주년 신약성서」가 천주교 성서 번역의 기본 주안점 곧 주해 성서에 충실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해는 본문의 분량보다 훨씬 많이 자세하게 기록되었다.

또한「입문서」에는 성서 저자의 경력・주관・전체의 요약을 상세하게 썼다.

2.1.3. 번역 대본을 밝힘.

그리스어 성서 제 3판(1975) The Greek New Testament(Published by the United Bible Societies)을 사용하였다.「공동번역성서」보다 더 최신의 원전을 썼다.

2.1.4. 번역자를 밝힘.

김병학 김영남 김윤주 민병섭 박상래
박영식 범선배 서인석 신교선 이영현
이홍기 임 세바스티안 장 엘마로 정양모
정태철 진 토마스
(이분들은 서강대・가톨릭대・대건신대・지도 신부가 본직인 성서학자임)

#### 2.1.5. 우리말 다루는 솜씨가 뛰어남

우리말은 고유의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뒤섞이어 이루어진다. 그 말을 활용하는 법이 뚜렷하여, 높임・낮춤의 구별, 공손한 말・막말, 어려운 말・쉬운 말 따위 대응에 합당한 말을 가려 써야 뜻을 이루기에 다다르는 까다로움이 뒤따른다. 낱말과 구절을 잘 조정해야만 매끈한 말이 되는 특성을 지니고, 부드러운 정서를 일으키는, 우리말 어법의 묘미를 잘 살려 놓았다.

#### 2.1.6. 예수의 대화에 '하오체'는 정말 혁명적임.

우리말 신약이 110년을 내려오면서 어느 역본이나 한결같이 예수의 말씀은 대화 상대자에게 '해라체' 말을 써 왔다. 그것을「200주년 신약성서」에서 '하오체'로 정립한 것은 과단성 있는 혁명적 처사이다. (「공동번역 신약」 초판(1971)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오체'가 그 개정판(1977)에 다시 '해라체'로 되돌아선 일이 있지만) 예수의 인권 존중 사상보다 뉘 있어 그분을 앞서겠는가? 그러한 예수의 인격적인 대화에서 상대방을 낮춤말로 대했을 리가 없다. 반드시 '하오・ 하시오・ 보오・ 보시오・ 갑시다' 하고 말끝을 맺으셔야 우리말다운 것이 아닌가?

신앙문화로 언어문화를 물리치려는 인위적 조작은 옳지 못하다. 언어문화에 융합되어 순리로운 어법으로 다듬어져야 원문의 뜻이 전달됨을 믿는다.

말이 살아야 현장감이 우러나고, 생동감이 솟아나 감동에 젖게 됨을 믿어, 이 번역의 우리말 처리를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 2.2.「표준새번역 신약전서」

이 번역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손꼽을 조건의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말, 구어체로 된 점이다.

신약 원문이 그리스말 가운데서도 가장 쉬운 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코이네, 보통 말로 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 보게 된다. 서로가 대화로 정을 주고받는 '말체'로 옮겨진 이 번역은 우리말다운 점에 힘쓴 큰 열매라고 높이 평가할 일이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낮춤말투로 한 점에 대하여, 필자는 잠잠히 넘어갈 수 없어 감히 공분을 터뜨린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나 민중에게나 공손히 인격적으로 대하셨을 것이 분명한 일인데, 예수님을 어찌 대화법을 그르치는 분으로 만드는가? 상대방을 낮잡아 얕보는 말투를 써야만 그분의 신격에 있어, 권위와 위엄이 드높여지고 경전으로서의 경건미가 발휘되는가?

1967년「새번역 신약」에서 겪은 교계의 견제, 소아병적 단견의 세에 밀려 뒤집어 쓴 굴레를 이 번역에서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전통・권위를 고수하는 미명에 얽매이어, 우리말 어법에 거스르는 처사는 결코 슬기로운 일이 아니다. 빗나간 충성심이 저지르는 폐단이 민족적 총력을 기울인 역자의 공력에 먹칠한 꼴이 되었으니 말이다.

### 2.2.1. 번역의 배경, 완료

먼저 그 '머리말'을 살펴본다.(1993년 1월 30일 초판)

"1983년 10월에 번역을 시작하여 1992년 성탄절 전야에 끝마무리를 하기까지 …(줄임)

현재 한국교회에서 쓰고 있는「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은 출간된 후,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까닭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교계의 많은 목회자들과 신도들로부터, 앞으로 교회에서「개역」성경의 뒤를 이어 사용할 새번역 성경을 준비해 달라는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어, 대한성서공회에서「표준 새번역」성경 번역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 쓰고 있는「개역」성경의 수정이나 교정이 아닌, 전적으로 새로운 번역을 하되,「개역」성경의 보수적인 정신과 한국교회의 전통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정하였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0대와 20대, 그리고 우리말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현대어로 번역한다. 이것은「표준새번역」에 사용될 언어의 성격과 수준을 규정한 것이다.「표준새번역」성경을 보통말, 곧 현재 우리 사회 대다수의 언어인구가 널리 쓰고 있는 표준말로 번역한다는 것이다.

둘째, 언어의 뜻을 분명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의 어법에 맞게 표현한다. 이것은 번역원칙을 요약한 것으로서, 번역 본문에서 번역어투를 없애고, 우리말 관용구를 활용하여 원문이 뜻하는 바를 우리말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번역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말을 쓰는 신도들이나 독자들이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다는 것이다. 원문을 읽는 독자의 이해와 번역문을 읽는 독자의 이해가 같도록 한다는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다.

셋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학교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번역이 되도록 한다. 이것은 번역성경의 용도를 밝힌 것이다. 그래서「개역」을 바탕으로 교회에서 이미 널리 쓰이는 용어들은「표준새번역」에서 그대로 받

아들였다.(줄임) 또 성경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유행어나 저속한 표현은 쓰지 않았다. (줄임)

번역 대본으로는 세계성서공회 연합회에서 출판한「그리스어 신약」(제3판-1983)을 사용하였다. (줄임)

### 2.2.2. 번역에 참여한 분들

번역위원

김창락 교수 (한신대)
박형용 교수 (합동신학원)
서중석 교수 (연세대)

문장위원

김연수 (여성시인)
김정은 (숙명여대, 박사과정)
나채운 (장신대 교수)
도한호 (침례교신대 교수)
박창해 (전 연세대 교수)
전무용 (대한성서공회 번역실)
정길남 (서울교육대 교수)
전혜영 (이화여대 교수)

대한성서공회는 이 작업을 마치고, 교계에 완료 보고서를 성의와 친절을 다하였다. 곧 소책자「표준새번역 성경전서 이렇게 출간되었습니다」를 펴 내었다. 그 내용은 8개 항목을 들고 있다.

1. 성경을 왜 다시 번역하였는가?
2. 번역자는 어떻게 선정되었고 무슨 훈련을 받았는가?
3. 번역의 원본은?
4. 번역의 지침은?
5. 편집의 특징은?
6.「개역」성경의 어려운 표현이「표준새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7. 여호와를 '주'라고 하였는데 그 까닭은?
8. 감수위원과 자문위원의 역할은?

감수위원

서병주 (전 대한감리회 감독)

오병세 (고신대학원장)
이상근 (예장통합 중경회장)
이성헌 (대구 서문교회 목사)
정진경 (전 신촌성결교회 목사)

위의 명단들은 리진호 지음「한국성서백년사」35, 36 에서 옮김.

### 2.2.3. 교계의 시비

한국 개신교계 풍토를 생각할 때, 이「표준새번역」은 논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내용의 여하를 살피기 전에 우선 거부하는 자세로 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말 번역이 새로 나올 때마다 거부하는 역사가 흘러 내려왔다. 1938년「구역」에서「개역」으로 새로워질 때,「새번역」이 나왔을 때와「공동번역」이 나왔을 때, 지도층에서 배격한 고정관념이 오늘날에도 그 흐름의 틀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표준새번역」에 대하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장 통합, 감리교회, 기독교장로회, 예장 고신 등에서는 수용하기로 하였으나, 개체 교회의 지도층에서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신도들에게 권하여 깨쳐주기에 마음 쓰지 않았다.

「표준새번역」에 대한 평론을 살펴본다.

◎ 박창환 목사 - '표준새번역에 대하는 마음가짐' (성서한국 1993. 6.)

◎ 이상훈 교수 - '표준새번역 성경을 읽고' (성서한국 1993. 6.)

◎ 이현주 목사 - '표준새번역에 대한 시비는 정당한가' (새누리신문 1993. 7. 3.)

◎ 나채운 교수 - '표준새번역에 대한 이해' (기독교사상 1993. 10.)

◎ 리진호 장로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출판을 환영하며' (주간 기독교 1993. 3. 7)

한편, 1993년 3월 16일 예장(합동) 총회 회의실에서「표준새번역」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고, 4월 22일에는 예장(합동) 노회장, 총회 임원, 증경 총회장, 학부원 연속회의에서 '「표준새번역」 성경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개정출간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다. -리진호 지음 한국성서 백년사 I. 230쪽 이하-

이에 대하여 대한성서공회에서는 그 지적된 사항에 18항목으로 자세히 성실한 해명서를 공표하였다. (문제 제기한 쪽의 반응을 듣지 못하였다. 필자의 과문의 소치일까?)

이런 소용돌이 가운데 성서공회에서는「표준새번역」의 개정을 공약하고,

1993년 11월 13일에 개정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오로지 개신교 신학자・목회자・어학자의 협력으로 공들여 번역하고 다듬고, 교계 중진의 감수위원회를 거쳐 신중하게 역사적 금자탑으로 출간한지 9개월 만에, 그 번역의 참여자는 제외하고 새로 선출된 위원, 16개 교단에서 참여한 위원으로 되었다.

이제 다시 손질하는 작업에 들어갈 양이면, 정말 우리말답게 예수님 대화에 '하오체'로 고쳐지기를 바라는 필자의 속생각을 외람되이 털어놓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조바심하는 바이다.

### 2.2.4. 의역의 틀을 잡았다.

성서 번역의 방법에는 형식 합치 곧 원문에 직결시키는 직역과, 내용 합치 곧 원문의 뜻 이해를 중요시하고 옮기는 의역이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직역은 우리말이 될 수 없다. 낱말의 개념이 꼭꼭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짜임새가 아주 다르니 어울릴 수 없고, 말에서 우러나는 정서가 매끄러울 수 없는 일이요, 뜻이 순리롭게 통해질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의역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

길이 막히면 곁길로 둘러가는 것이 지혜로움 같이 원천어 개념에 딱 맞아 떨어지는 우리말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뜻의 말을 찾아야 하고, 말의 흐름에 걸치적거리는 경우에는 줄이기도 하고, 뜻을 전달하기에 트릿하게 아쉬움이 있으면 보태어 채워주는 조정이 적절해야 좋은 번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숙한 번역은 변경・감축・첨가의 조절을 요구하는 의역 방법이 필요한 것이니, 우리말 어법에 걸맞는 융화점을 찾아야 한다. 원전에서도 그리스말 대신에 히브리말을 채택한 것을 보면 좋겠다.

'임마누엘, 메시아, 아멘, 할렐루야' 따위가 히브리 말이다.

문장위원 전무용 님은「기독교사상」(1993.3.)에 발표한 "「표준새번역」의 우리말을 다듬으면서" 글에서

> "… 한국교회의 전통 때문에, 좀 어색하지만, 더이상 매끄럽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 (줄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대목은 내가 느끼는 '해라체'에 관한 것이 아닌지?

우리말의 존비법은 날카로운 어감을 자아낸다. '해라, 하게, 하시게, 하오, 하시오, 하십시오' 들은 그 단계마다 제자리에 바로 들어서야 말이 부드럽게 흐르게 된다. 이에 덧붙여 바라는 것은 예수에 대한 삼인칭 대명사로 '그'라 하는 것보다 '그분'으로 씀이 좋겠다.

#### 2.2.5. 번역 대본의 차이

대본이 달라서 결과에 엉뚱한 바가 있는 예 - 마태복음서 21:28 이하의 '두 아들 비유'를 본다. 「개역한글판」에서는 맏아들이 "가겠나이다" 하고서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소이다" 하였다가 뉘우치고…가 「200주년역」과 「표준새번역」에서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사본의 차이에서 달라짐)

또 「200주년역」에는 '주의 기도'(마태 6:9이하) 끝맺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아멘] 문구가 없다.

#### 2.2.6. 좋은 점 몇 가지

(1) 풍부한 각주

「개역개정판」의 난외주보다 훨씬 풍부하게 붙여놓은 각주는 본문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마가 16:9-20의 긴 끝.

(2) 적극성 의지를 북돋움

구하라 · 찾으라 · 두드리라 → 구하여라 · 찾아라 · 두드려라

(3) 부드러운 말을 씀

개역- 가난한 자 → 표준새번역 - 가난한 사람

온유한 자 온유한 사람

※ 국어사전 풀이: 자(者) - 사람을 가리켜 얕잡아 이르는 말.

(4) 문장부호에 충실한 점.

## 3. 「개역개정판 신약전서」

우리말 세 번역 신약의 하나로 지목된 이 역본은 그 바탕이 글말로 쓰인 문어체로서, 새모습으로 개정하여 교계에 제공된 최신 간행이다.

「개역 한글판」을 개정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시작한 실무 작업 진행 소식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성서한국」에 공개된 바 있었다.

1997년 가을치 「성서한국」에 개역 개정 감수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박사(서울신학대 전 총장), 서기 도한호 박사 (침례신학대 교수)의 '개역성경 개정작업 완료 보고 기사'가 있었고, 1998년 8월 31일자로 대한성서공회 김호용 총무는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을 출간하였습니다' 라는 글을 교계에 띄웠다. 곧

"1961년에 최종적으로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역 한글판」 성경은 역사적으로 한국교회의 사랑을 받아온 자랑스러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그대로 계속해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 교과서와 국어사전에서 쓰는 한글맞춤법이 변하였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현실 언어도 많이 변하였으며, 성서학 및 관련 학문들도 눈부시게 발전하여 번역을 개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는 가능한 한 현재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소한도로 꼭 필요한 부분만 개정한다는 원칙하에 개정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983년 9월부터 약 10년간의 작업 끝에 '개역한글판 개정원고'가 완성되었고, 1993년 8월 16일 각 교단에서 대표로 파송한 성서학자 · 신학자 · 목회자 · 국어학자 등으로 '개역한글판 개정감수위원회'가 조직되어 4년 동안 157회의 독회와 토론을 거쳐 개정원고를 감수하였으며, 1997년 11월에는 '감수용'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감수용 성경을 1,600여명 이상의 한국교회 각 교단의 목회자들과 학자들에게 보내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1998년 5월에는 개정위원들과 감수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교회로부터 들어온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수렴하여 개정판에 반영하였습니다. 더 좋은 번역을 만들려는 열성을 가지고 작업한 결과,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곳을 개정하게 되었지만, 시대와 언어의 변화를 감안하여 꼭 고쳐야 할 부분만을 개정함으로써「개역한글판」의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개역의 문체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줄임)

위의 글로써「개역개정판」의 성격과 그 배경은 충분히 밝혀졌다. 우리말을 성경 언어로서 합당하게 다듬어 놓은 역사적으로 자랑스러운 번역임을 자임하였다.

### 3.1. 한자어 숭상의 번역

우리말은 겨레 고유의 순 우리말과 한자어가 아우러지는 바탕을 지니고 있다. 국어사전을 펼쳐 보면, 기본말 수의 70% 이상이 한자어 임을 알 수 있다.「개역」성경 번역은 한자어를 숭상하는 풍토에서 이루어졌다. '아버지 · 어머니'보다는 '부친 · 모친'이 존대말이요, '아들'보다는 '자제'라 불리어야 흐뭇해하는 것들이다.

### 3.2. 언문일치의 번역

우리말 성경은 대체적으로「이수정역」과 유성준의「국한문신약」말고는 일상 생활의 대화에서 쓰는 말과 글로 적은 말이 일치하게 하는 문어체로 번역되

었다. 뜻글자인 한자가 지닌 강력한 조어력에 눌려, 한자어가 성서언어의 주축을 이루게 된 것이 순리로운 추세로 우리말 구실을 함에 큰 몫을 하였다고 본다. 60년간 우리말 성경으로서 왕좌 자리를 차지하여 오늘에 이른 문체로, 이 시점에도 한국교계를 지탱하여 온 개역판이 이제 새롭게, 겨레의 지성인 신학자·목회자·어학자의 협력과 한껏 정성을 쏟아넣은 이 개정판은 새롭게 번역된 최신역의 출현에 못지않게 우리말 신약의 하나로 손꼽아야 한다.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문장 기호를 쓰지 않은 점이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마 5:3-4)와 같이 몇 군데 구두점을 썼을 뿐이니, 현대 문장 표기에 어긋나게 고집부린 것도 좋은 보수성일까? 문맥의 단락마다 그 대목의 대지(작은제목)를 붙이는 친절을 베풀면서 이해에 도움되는 문장 기호를 쓰지 않은 것은 무슨 뜻에서일까? 매양 한 절씩 따로따로 새줄을 잡은 것은 잘한 일이다.

## 4. 끝맺음 : 세 가지 신약의 번역 비교

마태복음 1:18-19

| 「200주년역」 | 「표준새번역」 | 「개역개정판」 |
|---|---|---|
|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는데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몸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롭고 또한 마리아의 일을 폭로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몰래 그를 소박하기로 작정하였다. |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

마태 복음6:9-13

| 「200주년역」 | 「표준새번역」 | 「개역개정판」 |
|---|---|---|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일용할 빵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이들을 용서했듯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마태복음 16:21-22

| 「200주년역」 | 「표준새번역」 | 「개역개정판」 |
|---|---|---|
| 이 때부터 예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앞일을) 밝히기 시작하셨으니, 당신은 마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원로들과 대제관들과 율사들로부터 많은 고난 |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

| | | |
|---|---|---|
| 을 겪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만에 일으켜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분을 붙들고 나무라기 시작하며 (하느님께서) 은혜로우시기를 빕니다.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주님, 안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하면서, 예수께 항의하였다. |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

누가복음 1:3-4

| 「200주년역」 | 「표준새번역」 | 「개역개정판」 |
|---|---|---|
| 저 역시 모든 일을 그 시초에서부터 더듬어 면밀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존귀하신 데오필로님, 당신을 위해서 순서대로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읽어보시고) 당신이 이미 배우신 말씀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납득하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귀하께 이 이야기를 차례대로 엮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귀하께서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

요한복음 1:1-5

| 「200주년역」 | 「표준새번역」 | 「개역개정판」 |
|---|---|---|
|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느님과 |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

| | | |
|---|---|---|
| 함께 계셨으니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은 맨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생겨난 것치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함께 계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의 안에서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 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

요한복음 14:16-17

| 「200주년역」 | 「표준새번역」 | 「개역개정판」 |
|---|---|---|
| 나는 아버지께 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협조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본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 |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

| | | |
|---|---|---|
| 이 여러분과 함께 머무시고 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 | |

로마서 7:24-25

| 「200주년역」 | 「표준새번역」 | 「개역개정판」 |
|---|---|---|
| 비참한 인간,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 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

고린도전서 2:1

| 「200주년역」 | 「표준새번역」 | 「개역개정판」 |
|---|---|---|
|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도 나는 탁월한 말이나 지혜로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신비를 전하려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 형제자매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

고린도 후서 4:16-17

| 「200주년역」 | 「표준새번역」 | 「개역개정판」 |
|---|---|---|
|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외적 인간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사실 우리의 일시적인 가벼운 환난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비할 데 없이 넘치도록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니,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룩해 줍니다. |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

갈라디아서 6:9

| 「200주년역」 | 「표준새번역」 | 「개역개정판」 |
|---|---|---|
| 우리는 선을 행하는 데에 싫증을 내지 않도록 합시다. 지금 맥을 놓지 말아야 제때에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

에베소 2:14-16

| 「200주년역」 | 「표준새번역」 | 「개역개정판」 |
|---|---|---|
| 실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두 편을 하나로 만들고 자신의 몸으로 장 |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 |

| | | |
|---|---|---|
| 벽 곧 적개심을 없애셨으며, 조문들로 된 계명들의 율법을 철폐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평화를 이룩하여 자신 안에서 둘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한 몸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두 편을 하느님과 화해시켜, 자신 안에서 적개심을 죽이셨습니다. |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 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

빌립보서 2:5-7

| 「200주년역」 | 「표준새번역」 | 「개역개정판」 |
|---|---|---|
|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어야 할) 생각을 서로 품으시오. 그분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노획물인양 (중히)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셨으니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시어 여느 사람 모양으로 드러나 |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

| | | |
|---|---|---|
| 셨도다. | 나타나셔서 | |

히브리서 9:24-26

| 「200주년역」 | 「표준새번역」 | 「개역개정판」 |
|---|---|---|
|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성소)의 모조품에 불과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면전에 나타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대제관이 다른 피를 가지고 매년 성소에 들어가듯이 당신 자신을 여러 번 바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번 바쳐야 한다면) 그분은 세상 시초부터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시대의 종말인 지금 자신의 희생을 통해 죄를 없애기 위하여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고 하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시려고 시대의 종말에 오직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

요한계시록 22:21

| 「200주년역」 | 「표준새번역」 | 「개역개정판」 |
| --- | --- | --- |
|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그렇다. 내가 곧 오겠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총이 모든 이와 함께! |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

# 「BHQ」의 서문, 부호와 약자, 용어 정의와 해설 번역

민영진*

차례

서문
- 히브리어 본문
- 마소라 주기
- 본문비평장치
- 지면 편집
- M$^{L}$의 본문과 마소라 주기
- 감사

부호와 약자
- 증거 본문 기호
- 본문비평장치에 사용된 부호
- 약자

본문의 성격규명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와 약자 유형별 분류
- 유형별 성격규명
- 본문의 성격규명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와 약자 알파벳 순서 목록

소마소라에 사용된 용어 해설

---

* 대한성서공회 부총무, 성경원문연구소 소장, 구약학

# 서문

라이프치히에서 히브리어 성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이하 BH) 첫 판(BH1)이 나온 것은 20세기가 밝아오던 1906년이었다. 그후 한 세기 동안 BH의 새로운 개정 편집이 줄곧 나오기는 했으나, 본문비평학에서 확인된 것만이 첨가되었을 뿐 기본적인 편집 골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1913년에, 역시 라이프치히에서 출판된 제2판(BH2)은, 초판을 극히 부분적으로 개정한 것에 불과하였다. BHK 혹은 BH3라고 부르는 제3판은 슈투트가르트에서 1929-1937년 사이에 나왔는데, 여기에는 이전 것에 비해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우선, 기초 본문으로, 그 때까지 사용한 야콥 벤 하임의 1524-1525 봄베르크 판을 버리고, 레닌그라드 코덱스의 히브리어 본문으로 기초 본문을 대치하였으며, 본문비평 장치 역시 철저하게 다시 썼다. 제 4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30년 후였다. 제4판은 이름부터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라고 바꾸었다 (BHS, 1967-1977). 기초 본문은 BHK를 따라 레닌그라드 코덱스의 히브리어 본문을 사용하였으나, 사본의 마소라 부호와 본문비평장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이제 한 세기가 마감되고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최근의 사본 발견, 특히 사해 두루마리의 발견과 함께, 지난 수십 년 동안, 히브리어 성서의 본문 전달 과정에 관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탐구가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연구와 함께 본문비평의 목적과 한계에 관한 새로운 이해가 증대되면서, BH의 새로운 편집(제5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 새로운 편집이 바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퀸타」 (BHQ)이다. 히브리어 성서 전권(全卷)의 출판에 앞서, 「룻기」 분책(分冊)을 제일 먼저 내놓는 것을 계기로 삼아, 이 새로운 편집이 그 이전의 다른 편집에 비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개략적으로나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새 편집은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주선하여 기획하였고, 독일성서공회가 후원하여 출판되기에 이르렀다. 그 동안도 독일성서공회는 BH를 위시하여 여러 종류의 학문용 성서를 편집해 오는 일에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 온 바 있다. BHQ의 성격을 형성함에 있어서, 그 배후에는 두 역사의 줄기가 있다. 하나는, BH의 편집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히브리어 구약성서 본문 프로젝트」 역사이다.

BH가 새로운 판으로 거듭 날 때마다 매 발전 단계에 몇 가지 중요한 결정들이, 첫 판부터 최근 판에 이르기까지, 특유의 성격을 형성해 왔는데, 그러한 특성은 현재의 제5판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BH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편집

을 거듭하는 동안에도 중형판(中型版 Handausgabe)을 계속하여 지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기초 본문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루돌프 키텔이 명확하게 밝히고 결정한 대로, 절충본문을 싣지 아니하고, 단일 편집 혹은 단일 사본의 히브리어 본문을 기초 본문으로 인쇄하였으며, 주석과 번역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이독(異讀)이나 추측하여 수정한 본문은 본문비평장치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제시해 놓았다. 처음 두 판에서는 야곱 벤 하임의 봄베르크 판을 기초 본문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삼판(1937년)부터는, 파울 칼레의 주선으로,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있는 러시아국립도서관 (전 살티코브-시체드린 국공립도서관) 제2 피르코비치 콜렉션의 B19a (이하 $M^L$) 코덱스 형 사본에 실린 히브리어 본문을 기초 본문으로 인쇄하였다. 칼레는 BH가 히브리어 본문 외에 $M^L$의 소마소라 주기와 대마소라 주기를 BH에 함께 편집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강조했다. 그리하여, 3판부터 소마소라 주기를 BH에 실리게 되었었다. 그리고, 제한된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BH의 4판인 BHS부터는 대마소라 주기를 함께 편집하였다. 또 1940년대 말부터 사해사본이 공개되기 시작하였으므로 BHK 7쇄(刷)부터는 오토 아이스펠트의 주선으로 1QIsa$^a$와 1QpHab에 나타난 이독을 본문비평장치에 반영시키기도 하였다. BHQ가 비록 기존의 본문비평장치의 내용을 새롭게 갱신하기도 하고 새로 다듬기도 하였지만,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러한 원칙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BHQ 역시 이전의 BH처럼 반드시 본문비평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학자와 목회자와 번역자와 학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형판으로 편집하였다. 그러나 이 분야에 아직까지 본격비평판(editio critica maior)이 없는 만큼, 본문비평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편집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쓸모가 있도록 편집하였다. 이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면서 편집위원들 사이에서는 본격적인 비평적 편집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그러한 대규모의 본격적 비평본의 실용성에도 의문이 없지 않았던 데다가, BH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일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다만 편집위원들로서는 이 새로운 BH의 편집이 언젠가는 본격비평판의 출판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큰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전의 여러 차례의 편집이 보여준 전통을 따라서, 이번에도 BHQ는 완결편 출판에 앞서 낱권을 먼저 선보인다. 그 첫 번째 낱권으로 「메길롯」에 속한 다섯 권의 책을 먼저 출판한다. 각 낱권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는다.

- 서론
- 부호와 약자 목록

- $M^L$의 히브리어 본문과 마소라 주기
- 본문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이독을 보여주는 본문비평장치
- 본문비평장치에 언급된 요소 중에서 더 확대할 내용과, 대마소라의 영어 번역과, 대마소라와 소마소라 중에서 난해한 부분에 대한 설명 등이 보충되어 있는 별 권「주석」

마지막에 가서, BHQ의 완결판은 두 권으로 출판될 것이다. 한 권은, 그 동안 우리가 보아 온 것처럼, 서론과 부호 및 약자 목록과 히브리어 본문과 마소라 주기와 본문비평장치가 포함된 것(BH의 편집 형태를 따른 단 권)이고, 다른 한 권은 본문비평과 관련된 해설과 대마소라의 영어 번역이 들어 있는「주석」이다.

BH의 이 새 편집은, 우수한 단일 마소라 사본을 기초 본문으로 사용한 것이라던가, 기초 본문과 다른 여러 형태의 이독을 증거 본문과 함께 제시하는 본문비평장치를 첨가시킨 것 등, 편집 형태는, 1937년 판에서 확정된 편집 형태를 그대로 따른다. 이러한 구조는 이미 키텔이 결정한 1906년판의 구조를 답습한 것이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사용된 히브리어 기초 본문이 그 때는 단일 마소라 사본이 아니고 봄베르크 본문이었다는 점이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신약성서 본문비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절충본문"이라고 적절하게 부르고 있는 그러한 본문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떤 단일 본문 전승을 반영하는 하나의 사본 본문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최근의 논의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편집위원회에서는 세 가지 이유에서 전통적인 편집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첫째, 아직 우리는, 한 절충 본문을 재구성할 만큼, 히브리어 본문 발달사에 있어서나, 다양한 본문 전승에 관하여서, 어떤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 둘째, 히브리어 성서의 절충본문을 제시하는 그런 편집은 본문 발달 과정에서 어느 특수한 한 시점의 본문을 재구성하는 길을 반드시 선택하기 마련인데, 그러한 본문 재구성이 목표로 하는 적절한 본문 발달 단계에 관한 일치된 의견이 결여되어 있는 이 마당에, 아직도 논의 중인 어느 한 주관적인 의견을 따라 히브리어 본문을 재구성하여 성서학도들이나 일반 비전문 독자들에게 제시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셋째, 위원회는, 절충본문은 반드시 현존하는 모든 증거 본문 사이의 이독을 모두 제시한 다음에 거기에 근거하여 만들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방대한 이독의 제시는 단 권으로 출판되는 현재의 편집 분량으로서는 불가능하다.

## 히브리어 본문

1937년의 3판에서 쇄(刷)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줄곧 견지되어 왔고, BHS에서 한 번 더 다듬어진 전례에 따라, 이 새로운 편집은 그 기초 본문으로 $M^L$의 원문을, 교정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제시하였다. $M^L$과 거기에 있는 마소라 주기(註記)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M^L$을 기초 본문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 점에 있어서는, 결코 이상(理想)적일 수만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아래에서 재론 됨). 사실, 위원회에서는 다른 본문을 기초 본문으로 사용할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다. 알렙포 코덱스 (이하 $M^A$)의 본문을 사용해 볼 생각을 안한 것도 아니었으나, 무엇보다도 그것이 구약전서 전부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적인 사본이어서 결국은 그것을 기초 본문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결정을 보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대학교 성서 프로젝트가 이 사본을, 방대하고 본격적인 비평본인「히브리대학성서」의 기초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코헨이 편집한 바르일란 대학교 히브리어 성서 역시 그 기초 본문으로 $M^A$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등이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본을 기초 본문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 편집위원회에서는 각각 따로따로 흩어진 히브리어 구약성서의 세 부분, 곧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의 사본으로서 최초의 벤 아셰르 사본으로 알려진 사본들을 BHQ의 기초 본문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해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시도를 포기하고 기존의 $M^L$을 기초 본문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배후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M^L$이 히브리어 구약성서 모든 책을 다 가지고 있는 완전한 한 벌 사본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사본들 사이의 격차를 다른 사본으로 메워서 사용한다고 생각할 때 (즉 알렙포 코덱스를 사용한다고 할 때, 율법서에 부분적으로 파손된 공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이고, 이것 외에도, 성문서 즉 케투빔이 전부 빠져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어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사본들의 상태가 다 단편적인 것이므로 결국은 기워 맞추기 식의 본문을 재구성해 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셋째, 이 새로운 편집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판 작업을 한다고 할 경우, 이미 독일성서공회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동안 수십 차례 수정을 거듭하여 이제 거의 완벽하게 수정된 조판 원고를 가지고 있는 터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지, 새로운 사본을 기초 본문으로 다시 조판 작업을 하게 된다면, 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라는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BHQ 편집을 위해 히브리어 본문을 모두 컴퓨터에 입력하기로 결정한 마당에서, 티베리아 사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본인 $M^L$이 이미 전자(電子) 본문으로 입력되어 있었으므로 달리 더 다른 사본을

고려하기가 어려웠다. 현재의 비평적 편집을 만드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히브리어 본문을 구체적인 전자 형태로 전환시키는 복잡한 절차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초기에 전자 본문 안에 예상하지 못한 여러 종류의 오류가 발생했었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 클래어몬트의 고대성서 사본센터 (the Ancient Biblical Manuscript Center in Claremont, California, USA)에서 입수한 컬러 투명 필름으로 그런 오류를 다 고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현재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가 있었다. 이 투명 필름은 로스앤젤레스 서부셈어연구소가 구성한 고대성서 사본센터 팀이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직접 촬영한 레닌그라드 사본($M^L$)으로 만든 것이다. 이 사진은 투명성이나 질에 있어서 기왕에 찍었던 다른 사진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것이다. BHS 5쇄(1997)에서도 미처 고치지 못한 오류들을 앞으로 이 투명 필름으로 더 고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레닌그라드 사본($M^L$) 전자 본문 역시 이 새로운 사진판에 의거하여 철저히 검토될 것이다. 히브리어 성서 낱권의 편집자가 하는 것 말고도 별도로 학술적인 공편자(共編者)들을 선정하여 이 임무만 맡게 할 것이다.

BH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BHQ의 경우에도 $M^L$ 본문을 기초 본문으로 사용하였다. 사본 자체의 오류도 기초 본문에 그대로 재생하였다. 다만 오류가 분명하여, 티베리아 계통의 다른 사본에 의거하여 교정한 경우에는, 그 교정 내용은 기초 본문에 싣지 않고 해당 본문비평장치에 실었다. 이 밖에도, $M^L$의 새 사진판에도 곳에 따라 사본에 파손된 곳이 있어서 읽을 수 없는 곳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음 부호나 억양 부호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편집자들이 본문을 재구성하여 기초 본문에 반영시키기고, 문제가 되는 곳에서 $M^L$ 사본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처럼 본문을 회복하는 근거로서 어떤 티베리아 계통의 증거 사본을 사용하였는지, 그 교정 배경을 해당 본문비평장치에서 밝힌다는 원칙을 세웠다. $M^L$ 사본이 최초의 필사자의 기록과 그 이후의 교정자가 잘못 고친 것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다. (교정자가 잘못 고친 것이라는 것은, 사본에서 흐리게 지워진 부분을 다른 사람이 진하게 잉크로 덮어쓰는 과정에서 잘못 쓴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더 언급됨]). 이런 여러 경우에 편집자는 사본의 타당한 읽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된 읽기를 기초 본문에 넣고, 그 관련 자료는 본문비평장치에 싣는 원칙을 취하였다.

편집 양식에 있어서 BHQ는 그 이전까지 나왔던 BH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서 $M^L$의 페이지 레이아웃을 사본에 있는 그대로 재생시키는 방법은 피하였다. BH에서는 편집자는 산문이라고 판단되는 본문은 단일 난으로 편집하고, 시문이라고 판단되는 본문은 시 형태로 행을 나누어 편집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BH

가 시문에서 행을 나누는 기준은 늘 바뀌어 왔다. 산문 본문 안에 시문이 들어 있는 경우, $M^L$은 전통적인 페이지 레이아웃 편집 방법에 따라, 시문을 시 형식으로 행을 나누어 기록하였는데, BHQ는 이 경우에 $M^L$의 시 형태 기록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원칙을 지켰다. 그 밖의 경우에는, 현재의 편집은 시문을 시 형태로 행을 나눌 때 마소라 억양을 따라 행을 구분하였다. 시문의 행 구분은 언제나 첫 분리 억양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상이한 구문 구분이 분리 억양에 표현된 것에 비해 더 바람직한 독법으로 판정된 것일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그런 경우에는 더 바람직한 그 독법에 따라 행 구분을 하였다. 행 구분이 두 줄로 혹은 석 줄로 구분되는 경우는 억양부호들 사이에서 등급별 우선순위에 따라 그렇게 하였다. 때로는 한 행의 줄이 길어서 쪽의 끝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동의적 평행법 (*parallelismus membrorum*)을 살려서 행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줄 혹은 석 줄로 행 구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소라 사본과 관련된 다른 특수 현상들 (곧 확대되어 쓰여진 글자, 어깨 위의 첨자, 독본 부분의 각종 부호들, 반전된 눈[inverted *nunim*])은 $M^L$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재현시켰다. 이것은 1937년이래 BH의 전통이다. 그러나 서투모트 (*səṯumôṯ*)와 퍼툭호트(*pəṯuḥôṯ*)는 빈 행에 표시하지 않고, ס와 פ를 삽입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것은 BH 출판의 초창기부터 지켜온 전통이다.

## 마소라 주기

BH 3판 서언에서 칼레는 $M^L$ 본문에 마소라 주기가 첨가될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Vollständig wird dieser Text erst durch die ihm beigegebene Masora"(p.viii)고 지적하면서 BH에다가 $M^L$의 전체 마소라 주기를 출판해야 할 목적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다. 그 결과, 마침내, 1937년 판에서 소마소라 주기를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BHS는 칼레가 의도했던 대로 소마소리와 대마소라 주기를 둘 다 출판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BHS를 위해서 바일이 별도로 편집 출판한 $M^L$의 마소라 주기는 $M^L$의 마소라 주기를 거기에 쓰여 있는 그대로 펴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고치고 다듬어서 출판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과는 달리, BHQ의 편집위원회에서는 $M^L$의 소마소라와 대마소라를 둘 다 사본에 있는 그대로 재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사실, 마소라 주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BHQ의 기초 본문을 구성하는 $M^L$ 본문의 일부인데다가, 또 그것을 재생시키는 경우, 사본에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재생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마소라 주기를 다른 형태로 제시한다는 것은 위원회로서는 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M^L$의 대마소라와 소마소라 자체가 결함을 지니고 있고, 더욱이 마소라 전통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하는 편집이었던 만큼, 편집자들은, 완전한 마소라 주기를 다 포함한 편집을 하려 할 경우 다른 사본에 있는 마소라 주기를 모두 수집해야 한다는 것과, 한 권으로 편집되어 나오는 현재와 같은 분량으로서는 그러한 자료를 다 담을 수도 없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M^L$의 마소라 주기가 사본의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것을 교정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그대로 BHK와 특히 BHS가 지켜온 원칙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독법은 BHQ의 별 권「주석」에서 설명을 하였다. 소마소라에 사용된 일반적인 약자 해설은 본 편집의 서론에 포함시켜 독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난해하여 적절하게 번역할 수 없는 소마소라의 주기는, 대마소라의 모든 주기와 함께, 별 권「주석」에 번역해 놓았다. 번역을 해 놓아도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 함축적 정보를 지닌 마소라 주기 역시「주석」에서 다루었다.

$M^L$의 소마소라 주기 중에는 짝이 없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본문 안에는 소마소라 주기가 있음을 알리는 부호 동그라미가 낱말 위에 표시되어 있으나, 난 외 여백에 거기에 해당하는 주기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난 외에 소마소라의 주기는 있으나 본문 안에 그 주기와 관련된 낱말이나 구를 알리는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해당 페이지의 본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마소라 주기가 그 페이지에 적혀 있는 것도 있다. BHQ는 이러한 사정을 가능한 한 확실하게 제시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해당 주기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본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으면, 여기에서도) 본문 안에다가 동그라미를 삽입해 넣었다. 그리하여, 그러한 주기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가까운 지시 대상과 관련시켜 나타나게 하였다. 그러나 그 지시 대상에 대한 그릇된 확신은 전달되지 않게 하였다. 동일 페이지 혹은 인접 페이지의 본문 문제와는 도저히 연관시킬 수 없는 대마소라의 주기들은, 사본에서 주기가 지닌 편집상의 위치와 그 특징을 고려하여, 그 주기들이 나타나는 해당 페이지의 첫 단어와 연관시켰다.

## 본문비평장치

일찍부터 BH는 본문비평장치라는 것을 고안해서, 문제가 있는 본문을 다루

면서도 깡그리 다 다루지 아니하고, 번역과 주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취급한 바가 있는데, 이런 전통은 이번 BHQ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본문비평장치의 내용과 그 제시 방법에 있어서 BHQ는 이전의 어떤 BH와도 같지 아니한 독특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본문비평장치가 제 2의 역사에 의해 가장 두드러지게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BHQ의 본문비평장치는 제 2의 역사인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히브리어 구약성서 본문 프로젝트(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다. HOTTP가 시작된 것은 1969년이었다. 위원회는 히브리어 성서학자 여섯 명(도미니크 바르텔레미, 알렉산더 훌스트, 노버트 로핑크, 맥하디, 한스 피터 류거, 제임스 샌더즈)으로 구성되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유진 나이다가 위원장직을 맡았다. 위원회는 11년 동안 매년 연례적으로 만나서, 본문비평상의 문제를 지닌 약 5,000여 개의 항목을 다루었다. 5천여 개의 항목은, 존 톰슨이 「영어개역표준판 (RSV)」, 「새영어성서(NEB)」, 「예루살렘성서(JB)」, 「루터역 개정판」등을 비교하여, 추려낸 것이다. 중간보고서가 나온 것이 1973년부터 1980년이었다. 당시 위원회 서기였던 아드리안 셴커가 그 중간 보고서를 다섯 권으로 편집하여 「서문과 중간보고서 (*Preliminary and Interim Report*)」라는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지금은 최종 보고서 일부가 출판되었다. 프리벅의 도미니크 바르텔레미가 책임 편집자가 되어, 현재까지 3권으로 출판한 「구약본문비평 (*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이 바로 그것이다. 최종 보고서는 아직 두 권이 더 출판될 예정이다.

이 히브리어 구약성서 본문 프로젝트 위원회는 본문비평의 과제에 독특한 접근을 고안하여 시도하였다. 말하자면, 이 위원회가, 구체적인 본문비평상의 문제와 본문의 문학적 발달사를 분명하게 구분한 것이라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외적 증거에 의존하는 본문비평의 고유 영역과 순수하게 내적 증거에 입각하여 수행하는, 다른 학문적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본문 연구의 다른 영역과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정교한 방법을 고안하여 실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BHQ를 편집함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접근을 본문비평의 원칙으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HOTTP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던 학자들 중에서 일곱 사람을 편집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였고, 그들이 1990년 8월에 스위스랜드의 프리벅 대학에 모여서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일곱 위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서 프리벅 대학의 아드리안 셴커가 위원장이 되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관례에 따라, 편집 위원회의 구성뿐만 아니라 실제 집필자 곧 29명의 프로젝트 실무 팀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하였다. 편집위원회는, 위원회 자체의 작업과 구약 각 권의 본문비평장치 집필

자들의 작업 내용과 세계적으로 널리 유포시켰던 견본 페이지에 대한 반응에 입각하여, BHQ의 개념, 특히 본문비평장치의 개념을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었다. 이처럼 정립된 개념은 「본문비평장치 집필 규정」 (*Guidelines for the Contributors*)과 계속적으로 첨가된 보충 규정에 잘 나타나 있다.

BHQ 본문비평장치의 기능은, 본문 전달과 관련된 증거들을 제시하고, 그 증거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문비평장치에 제시된 해당 본문들은 고대의 증거 본문들을 철저하게 대조하여 조사한 것에 근거하여 선별된 것들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대의 증거 본문들이라 함은, 율법서의 경우 티베리아 계통의 삼대 사본, 예언서와 성문서의 경우 ($M^L$외에) 티베리아 계통의 이대 사본, 수집 가능한 전-티베리아 히브리어 증거 본문들 (pre-Tiberian witnesses), 그리고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독립적 지식을 지닌 흔적을 제시하는 모든 고대의 번역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 본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본문상의 차이들을 선별하여 본문비평장치에 포함시킬 때 두 가지 선별 기준을 세운 바 있다. 첫째 기준은, 그러한 이독(異讀)이나 이문(異文)이 본문비평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논쟁이 되는 본문이라고 해서 다 BHQ의 기초 본문과 다른 히브리어 본문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BHQ의 기초 본문과 다른 본문일 때만 선별하여 실었다. 둘째 기준은, 그 이독이나 이문이 잠재적으로 번역이나 주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문비평장치에 등록된 것들은 일반적으로 대조된 증거 본문들이 지니고 있는 증거자료로서의 신빙성을 나타낸다. 실제 본문들이 제시될 때마다, 그 실제 본문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는 축약형이 아닌 완전 형태로, 그리고 로마자 음역이 아닌 원어와 원어의 철자로 제시된다. 한 이독이나 이문이 분명하고 간결하게 기술될 수 있는 극소수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술은 바로 그 본문에 우선하여 제시되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고 고대의 번역에만 있는 첨가 요소들이 한 절을 넘거나, 해당 낱권의 별도 판에 나올 만큼 (에스더기의 경우처럼)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사실만이 언급될 뿐, 분량이 제한된 편집인만큼, 전체 본문이 제시되지는 않는다. 고대의 번역을 히브리어로 되 번역하는 것 [retroversion]은 기초 본문 안에서 발견된 바람직한 본문이라고 제안된 본문에만 제한하였다. 본문비평장치가 본문 전달과 관련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고 평가하는 것에만 관심하기 때문에 가설에 입각하여 재구성된 읽기 (hypothetical reading) 곧 추측하여 재구성한 읽기가 본문비평장치에 들어 간 경우는 BHQ에서는 기존의 읽기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였다.

편집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 본문비평장치에 포함시킬 자료 선정을 위한

두 가지 기준이라는 것이, BH의 기존의 입장과 결별을 선언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세기초의 본문비평 관행과도 결별을 선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기존의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주석상의 난제와 같은) 다른 기준에 입각하여 오랫동안 본문비평의 문제로 취급되어 온 추가 사항이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편집자들의 견해로 볼 때는 결코 본문비평의 문제는 아니지만) BHQ의 본문비평장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BHQ의 본문비평장치에 제시된 이러한 추가 사항들은 (예를 들면, 문제가 된 읽기가 본문비평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순수하게 언어학과 관련된 것일 때) 더욱 간략화된 형태를 취하였다.

현재의 편집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본문비평장치에 포함시킬 자료 선정을 위한 두 가지 일반 원칙 외에, 몇 가지 추가 원칙 (additional principles)이 적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번역이나 주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을 본문비평장치에 넣어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또 다른 형태의 중요한 문제를 지닌 항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본문비평장치에 포함시켜 논의를 하기 위해 추가적인 원칙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케티브와 케레에서 볼 수 있는 이독뿐 아니라, 쿰란이나 마사다나 무라바아트 자료와 같은 히브리어 (다니엘서와 에스라기의 경우는 아람어) 증거 자료들에서 나타난 이독들이 순수하게 철자법상의 차이만이 아닐 경우에는 모두 본문비평장치에 넣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오경에서 발견되는 이독들도, 순수하게 언어학과 관련된 것이거나 철자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본문비평장치의 논의에 포함시켰다.

이것과 상응하여, 또 다른 보충 원칙(supplementary priniples)을 정하였다. 이 원칙을 정한 까닭은 본문비평장치 안에는 다만 본질적인 것과 입증 가능한 것만을 넣기 위해, 본문비평장치의 내용을 분명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카이로 게니자 자료 중에서 본문비평장치에 포함시킬 것은, 한 편으로는 관련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한 편으로는 본문비평장치를 읽는 독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실증(實證)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원 후 1,000년 이전 것으로서, 이미 발행된 것으로만 제한하였다. 제2경전/외경, 위경, 쿰란 자료, 필로와 요세푸스의 작품, 신약, 타나이트와 아모라 자료, 교부들의 자료 등도 필요할 경우에는 본문비평장치에서 다루었다. 다만 이것들이 배후에 서로 다른 히브리어 본문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리고 이것들이 특정한 읽기에 이르는 바로 그 통로가 되고, 히브리어 본문 전승에 특수한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한에서만 본문비평장치에 포함시켜 다루었다. 현존하는 이문이나 이독이 번역판에서 기인되는 경우, 그리고

그 이문이나 이독들이 순전히 번역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 (예를 들면, 번역되는 수용언어에 맞추기 위하여 원문의 어색한 표현을 바꾸거나 문체를 바꿈으로써 생겨난 본문상의 차이), 그리고 본문을 다른 표현으로 달리 쓰거나 설명을 붙임으로써 생겨난 본문상의 차이 등은, 그것들이 이전까지의 논의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이 아닌 한, 본문비평장치에 넣지 않았다. 이것과 비슷하게, 타르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타르굼의 「아가」의 경우처럼), 한 책 전체가 다른 표현으로 달리 쓰이거나 설교와 교훈으로 첨가된 것이 많은 경우는,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자료와의 대조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계속하여 인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하였다. 이런 것들은 본문비평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편집자들은 그런 것까지 다 본문비평장치에 넣는다는 것은 본문비평장치에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수많은 증거 본문들 중에는, 그것들이 히브리어 대본(臺本 *Vorlage*)을 규칙적으로 반영하는 것일 수 없는 것들이라고 판단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본문비평장치에 빈번하게 인용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서, 그것들 중에는 때때로 히브리어 대본에서 유래한 읽기를 보고해 주는 것 같은 것도 있고, 본문비평장치에 들어와 있는 문제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관련이 있는 것 같은 것도 있다. 시로-헥사플라와 그것과 관련된 고대 그리스어 역의 오리겐 수정본에 대한 증거자료들은, 그것들이 고대 그리스어역과도 다르고 MT와도 다른 경우에만 증거 본문으로 인용하였다. 고대 라틴역은 그것이 히브리어 증거와 일치하거나, 거의 틀림없이 독자적 본문에 대한 증거가 되거나, *그리고* 어떤 그리스어 사본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일 때만 인용하였다. 오경 사마리아 타르굼과 갈리아 시편과 콥트어 역 등은 체계적으로 대조되지는 않았지만, 개별 편집자들이 유용한 본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인용하였다.

BHQ는 빈번히 증거 본문으로 인용되는 티베리아 사본들의 경우, "써투모트(*sətmôṯ*)"와 "퍼툭호트(*pətuḥôṯ*)"는 완전하게 대조하였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번역과 주석에 있어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들만 본문비평장치 안에 들어갔다. 실제로 이것은, "써투모트"나 "퍼툭호트"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해 어떤 불일치가 있는 경우만이 본문비평장치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M$^{L}$이 가지고 있는 "써투모트"와 "퍼툭호트"의 완전 목록과 대조된 티베리아 사본들은 각 권 서론에 들어 있다.

BH의 초기 편집 본들과는 달리, BHQ는, 케니콧과 드로시가 본문비평장치에서 증거 본문으로 인용한 중세 사본들은 인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러한 중세 사본들이 본질적으로 본래의 것이 아니라 파생된 본문이며 마소라는 티베리아

마소라 학자들이 만든 것이라는 모세 곳센 곳스타인의 주의 깊은 논쟁적 견해를 따른 결과이다. 그리하여, 이들 중세 사본들은 티베리아 사본들과는 독립된 증거 본문으로서의 가치를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케니콧과 드로시가 대조한 사본에 관해서는 여러 이독들의 성격규명 단계에서 언급되거나, 혹은 케니콧과 드로시 자료 안에 들어 있는 읽기나 읽기들이, 편집자가 그대로 두고자 하는 전승된 본문에 대한 태도나 자세에 관해 증거를 제공할 때는 케니콕과 드로시의 대조를 언급하였다.

사해 두루마리와 시리아어역 페시타를 다룸에 있어서, 그리고 범위가 좁기는 하겠지만 칠십인역과 불가타역을 다룸에 있어서, BHQ는 이전의 어떤 편집과도 상이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사해 두루마리의 경우,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본들이 정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출판될 수 있었기 때문에, BHQ의 본문비평장치는 현존하는 사해 사본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처 출판되지 않은 것까지도 미리 참고할 수 있었던 배려에 대하여 사본 소유 기관에 대하여 감사하는 바이다. 페시타의 경우는, 라이덴 페시타 프로젝트 작업이 그동안 아주 훌륭한 총서를 출판해 내고 있고, 아직 출판되지 않은 것은, 그 원 자료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 주어서,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었다. 그리하여, 여기 BHQ의 본문비평장치에 인용된 페시타 증거 자료들은, BHK나 BHS가 참고했던 옛날 편집 본에서 인용된 것이 아니라, 우수한 초기 사본들에서 인용된 것들이다. 칠십인역의 경우는, 어떤 것은 BHS처럼 괴팅겐 셉투아진트 총서(叢書)를 사용했지만, 그 후에 최근까지 그 총서에 속한 다른 책들이 속속 출판되어 BHS가 미처 참고하지 못한 귀중한 자료를 참으로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었다. 더욱이, 그것을 편집 출판하는 연구소에서는 아직 출판되지 않은 것은 그 원고를 BHQ 편집자들이 참고하여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불가타의 경우, BHK나 BHS는 산 기롤라모 판의 초창기 출판물만을 참고할 수 있었지만 BHQ는 그 불가타 판이 이제 곧 완결되어 출판될 것이므로 그것들을 다 참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BHQ의 본문비평장치는 본문 전달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기초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한 읽기가 기초 본문에 들어 있는 읽기보다 더 바람직한 읽기일 때는, 제시된 바로 그 증거 자료들을 평가하여 그러한 사실을 식별하는 것도 본문비평장치의 주요 목적이다. 그리하여 본문비평장치는, 때때로, 기초 본문에서 발견되는 읽기가 아닌, 증거 본문의 다른 읽기가 더 바람직한 읽기라고 제안하기도 한다. 본문비평장치가 그러한 판단을 내릴 때는 거기에 주관적인 요소가 필수적으로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 이미 자주 지적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는 본문비평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가, 기존의 이독들 중에서 더 좋은 읽기를 제안하는 본문비평장치에서 제거될 수 없는 것이므로, 편집자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본문비평장치가 가능한 한 객관성을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 이독들의 성격규명을 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판단이 합리적인 확실성과 투명성을 지닌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기로 결정하였다. 본문비평장치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다 논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 권의 「주석」에서 자신들의 판단 그 근거를 더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편집자가 가지고 있는 기초 본문의 한 읽기보다 다른 증거 본문의 읽기가 더 바른 읽기라고 판단되는 확실성과 투명성을 분명하게 밝히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문비평장치 자체 안에서도 약자를 사용하여 이독이나 이문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다음에 나오는 "본문의 성격규명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와 약자"를 볼 것) 본문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밝히려고 하였다. BHQ 자체가 본문비평장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한 편집 목적은 바로 "유용한 증거에 근거하여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초기의 본문 형태를 (the earliest attainable forms of the text based on the available evidence)"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목표를, 고대의 증거 본문들의 증거를 제시하고 평가하는 본문비평장치의 핵심적 성격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였다. 본문 증거를 제시하고 평가하는 본문비평장치의 이러한 이중 역할은 문제의 본문을 제시하는 본문비평장치의 이중 구조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각 증거 본문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편집자들은 본문 전달 과정에 대한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였다. 그리하여, 편집자들은, 본문 전달 과정이 기계적인 것만이 아니라, 본문이라는 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필사자들이나 번역자들이 속했던 그 공동체에 따라 본문의 의미가 영향을 받으면서 전해지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비평가는, 한 편으로는 사본 제작의 기계적인 측면에서 유래하는 변화의 종류를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본문에 할당된 의미의 연계 안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번역판에 나타난 증거들을 다룰 때에는, 편집자들은, 이 증거들을, 뚜렷한 각 번역 단위의 구조 속에서, 번역 기술과 번역의 특징과 히브리어와 비교할 때 나타나는 번역의 특징 등을 충분히 참고하여 고려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편집자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독자들 혹은 본문 전달의 다른 국면을 연구하고 있는 독자들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증거를 제시하고 자신들의 결론을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 본문에서 인용된 표제어 (lemma)를 따라, 본문비평장치에 올라 있는 각 표제어에서 편집자들은, 대조한 증거 본문들 사이의 동일한 혹은 상이한 읽기

를, 그리고 증거 본문들 사이의 계열을 제시한다. 본문비평장치에 올라 있는 표제어들은 일정한 구조로 배열된다. 기초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낱말이나 구가 표제어가 된다. 그 다음에 이것과 다른 읽기들이 제시된다. 그리고 각 읽기 -표제어든 이독이든- 다음에는 그 읽기를 지원하는 증거 본문들의 부호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한 이독에 대한 주요 증거 본문이 제시된다. 연속으로 제시된 이독들 중에서는 첫째 이독이 본문비평의 문제를 발생시킨 읽기이다. 나머지 이독들의 (그 이독이 유래한 증거 본문과 함께) 배열은 언어 배열순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기타)에 근거하여 배열하고, 같은 언어 자료는 개략적인 연대순에 따라 배열하였다. 두 개의 이독이 단일 본문비평의 표제어가 될 때에는 그것을 다른 이독들보다 앞세웠고, 두 이독의 배열 순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언어학적-연대적 연계를 따랐다. 주어진 한 읽기가 2차적인 것으로 판단될 때 (기초 본문에서 나온 표제어까지 포함하여), 그리고 편집자가 그 읽기의 성격규명 약자를 표시하는 것이 독자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합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표현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그러한 성격규명 표시를 그 증거 본문을 표시하는 부호와 함께 약자로 표시하여 주었다. 읽기와 문제 본문의 성격규명은 일반적으로 더 바람직한 읽기에 붙어 있다. 한 읽기가 다른 읽기와 관련하여 성격규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더 바람직한 읽기가 아닌 경우에는, 성격규명을 위한 참조점을 제공하는 그 읽기 부호들은 바로 그 성격규명에 붙게 된다. 이 본문비평장치에서 한 번역판의 읽기를 이독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히브리어 본문 쪽에서 발생한 것인지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이러한 질문은 항상 열려 있는 질문으로 남게 된다. 그리하여 더러는 번역본 읽기의 성격규명은 그 성격규명이 어느 쪽 (히브리어 본문 쪽? 혹은 번역 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표시되기도 한다. (“heb”라고 표시하면 히브리어 대본 쪽을 가리키는 것이고, “vrs”/“vrss”는 번역본 쪽을 가리키는 것이다.) 동시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증거 본문들이 기초 본문과는 다른 히브리어 본문을 가리키는 경우, 본문비평장치의 강조하는 바와 조화를 이루어, 증거 본문들의 배열은 그 가능한 히브리어 본문 쪽을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같은 한 낱말의 두 유사어를 제공하는 두 개의 그리스어 증거 본문은, 편집자가 그 두 증거 본문이 비록 서로 다른 그리스어 대응어이지만 같은 한 히브리어를 반영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때 배열된다.

편집자가 기초 본문에 있는 읽기 외에 다른 읽기를 더 바람직한 읽기로 제안하는 경우는 그것을 표제어 설명 결론 부분에 놓고 그 앞에 세로 겹줄(‖)을 놓아 그것이 편집자의 제안임을 밝혔고, 뒤이어서는 약자 “pref”를 표기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읽기(preferred reading)”임을 밝혔다. 그 바람직한 읽기를 지원

하는 증거는 되풀이하여 표기해 놓았다. 만일 그 바람직한 읽기를 기존의 어떤 증거 본문도 직접적으로 입증을 해 주지 않고 다만 그 증거가 내포되어 있기만 하다면, 거기에는 "(origin)"이라는 부호만 표시해 두었다. 즉 이것은 간접적으로 입증된 기존 읽기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다. 만일 그 바람직한 읽기의 문법 형식이 성서 시대의 다른 히브리어 본문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읽기의 외적 지원의 종류에 입각하여 거기에는 "unatt" (=unattested 입증되지 않은)라는 약자 혹은 "conjec-phil" (philological conjecture 언어학적 추측)이라는 약자를 표시해 놓았다. 제안된 읽기가 추측인 경우에는 거기에는 "pref" (preferred 바람직한) 라는 약자를 써넣는 대신에 "conj" (=conjecture 추측)라는 약자를 표시해 놓았다. 본문비평장치 자체가 본문 "전달"의 증거를 제시하려고 만들어진 것인 만큼, 바람직한 읽기를 제안하는 것은 결코 본문의 문학사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다. 어느 한 책에서 다른 문학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읽기들에는 "lit"표시로 본문의 성격규명을 해놓았다 ("lit"의 뜻에 관해서는 이하 "본문의 성격규명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와 약자"를 보라).

어떤 항목이 별 권의 「주석」에서 더 상세히 논의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는 그러한 항목에다가는 끝에 ♣표를 붙여 놓았다. 다른 경우에도 이것이 「주석」에서 논의되는 것일 때는 본문비평장치의 기재 사항에는 →♣ 표시가 주어진다. • 표시는 본문비평장치 안에서 한 항목의 설명이 끝났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 지면 편집

이 편집의 주요 요소는 기초 본문과 마소라 주기와 본문비평장치와 본문 주석과 마소라 주기의 번역이다. 이들 다섯 가지 요소가 현재의 편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편집되어 있다. 매 페이지 한가운데에는 레닌그라드 사본 ($M^L$)의 마소라 본문을 기초 본문으로 놓았다. 장과 절은 아라비아 숫자로 해당 본문 안에 기록해 넣었고, 페이지에 따라 왼쪽 혹은 오른쪽 여백에서 장과 절 표시를 한 번씩 더 반복하였다. 성구집 부분과 이것과 유사한 마소라 주기(예를 들면, 거꾸로 세운 *nûnîm*같은 것)는 $M^L$에 있는 그대로 안쪽 여백에 표시해 넣었다. 이밖에 성구집의 이름들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일년 주기에 따라 책이름과 함께 토라의 오른쪽 페이지 상단 난 외 표제 자리에 표기하였다.

$M^L$의 소마소라 주기는 각 페이지의 바깥쪽 여백에 표기하였다. 다만 독자들

이 유념할 것은 기초 본문 안의 낱말이나 낱말 사이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것이 바로 소마소라 주기를 가지고 있는 낱말이나 낱말들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 본문에 동그라미 표시는 있으나 난 외 여백에 소마소라 주기가 없는 것이 있고, 소마소라 주기는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표시를 가진 낱말이나 낱말들이 기초 본문 안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이 편집을 사용하는 독자들은 이 편집에 제시된 약자 해설과 용어 해설의 도움을 받아 소마소라 주기를 스스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ML 본문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주기나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는 소마소라 주기는 별 권 「주석」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독자들은 그 경우에 「주석」 부분을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M^{L}$의 대마소라 주기는 매 페이지 상단 책제목 바로 밑에 기재되어 있다. 사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마소라 주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낱말이나 낱말들이 기초 본문 안에 어떤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대마소라 주기를 갖는 낱말(들)은 소마소라 주기를 가지고 있는 낱말(들) 중에 포함되어 있다. 독자가 대마소라 주기와, 기초 본문 안에 그것과 관련된 낱말이나 구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현재의 편집은 그러한 주기를 성서 본문 안의 낱말의 순서에 따라 편집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대마소라의 순서는 사본의 페이지 안에 기록된 것과는 달라지게 되었다. 대마소라 주기의 번역은 「주석」에 나와 있다. $M^{L}$의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 주기 혹은 난해한 주기에 대한 설명도 「주석」에 나와 있다.

본문비평장치는 페이지 밑에 배치하였다. 편집자들은 본문비평장치의 표제어와 기초 본문 안에 있는 해당 본문과를 연결시키기 위한 문자나 숫자나 부호를 기초 본문 안에 표시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대신에 독자는 해당 표제어 자체가 그것이 한 낱말이든 그 이상의 낱말들이든 모두 완전한 형태로 본문비평장치에서 다시 한 번 재현된 것을 볼 수 있다. 본문비평장치는 그것 자체로 완결된 독자적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별한 부호를 주어 「주석」에서 더 논의가 계속됨을 밝혔다.

## $M^{L}$, 본문과 마소라 주기

낱권 서론마다 거기에서 사용된 증거 본문들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있다. 그

러나 $M^L$은 히브리어 성서 모든 책에 다 사용되는 동일한 증거 본문이므로 매번 낱권 서론에서 반복하여 소개하는 것을 피하고, BHQ의 일반 서론에서 한 번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려고 한다.

러시아의 세인트 피터스벅에 있는 러시아 국립도서관의 제 2 피르코비치 컬렉션 서가(書架) 표시를 따라 B19a로 알려진 히브리어 구약 성서 사본은 달리 레닌그라드 코덱스 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었다. 이 도서관은 전에는 "[레닌그라드] 살티코브-시체드린 공립도서관"이라고 불리었고, 그 전에는 "[상트 페테르스부르크] 제국공립도서관"이라고 불리었다. 이 사본은 하카비와 스트락의 1875년 목록에 정식으로 독자적 사본 번호를 부여받고 등록되었고 상세히 소개되었다 (Harkavy, A. and Strack, H. L., *Catalog der hebräischen Bibelhandschriften der kaiserlichen öffentlichen Bibliothek* [St. Petersburg: C. Ricker, 1875; Leipzig: J. C. Hinrichs, 1875]). 그 후 이 사본은 오랫동안 이 목록에 기재된 대로만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 베트아리예와 시랏과 글랏처 (M. Beit-Ariél, C. Sirat and M. Glatzer, *Codices Hebraicis Litteris Exarati Quo Tempore Scripti Fuerint Exhibentes*, Tome 1, Jusqu'à 1020 [Monumenta Palaeographica Medii Aevi, Series Hebraica; Turnhout: Brepols, 1997])의 책이 이 사본에 관하여 더욱 더 철저하게 그리고 새롭게 기술함으로써, 오랫동안 표준적인 기술로 알려져 왔던 하카비와 스트락의 기술이 이 책의 것으로 대치되었고, 이 기술은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이 사본의 본문과 마소라가 소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첫 개시를 한 이가 칼레이다. $M^L$의 본문과 마소라에 대한 주목할 만한 기술로서는 브로이어(M. Breuer, כרת ארם צובה והנוסח המקובל של המקרא [Jerusalem: Mosad HaRav Kook, 1976]), 예빈 (I. Yevin, *Introduction to the Tiberian Masorah* [Missoula: Scholas Press, 1980]), 레벨 (E. J. Revell, "The Leningrad Codex as a Representative of the Masoretic Text," in *The Leningrad Codex*, xxix-xlvi [ed. D. N. Freedman, et al.;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98; Leiden: Brill Academic Publishers, 1998]), 도탄 (A. Dotan)의 수많은 저작이 있다. 아래의 논의는, 비록 현재로서는 앞으로 마무리될 프로젝트의 기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오히려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단계에서는 이 연구가 더 발전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부분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저작들에 근거한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편집자들 자신들의 $M^L$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이 코덱스 형 사본은 사무엘 벤 야콥이 라비 메보락 벤 요셉 하코헨을 위하여 카이로에서 만든 것이다. 이 사본의 제작 연대가 서로 다른 다섯 종류의 역법(曆法)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을 풀어보면, 서기 1008년, 1009년, 1010

년, 1013년 등 서로 다른 네 연대가 나온다. 베트아리예와 시랏과 글랏처를 따라서 우리는 서기 1008년을 이 사본의 탄생 연대로 받아들인다. 사무엘 벤 야콥은 사본이 지니고 있는 모든 국면 곧 자음 본문, 모음 부호, 마소라 주기 등을 다 복사하고 교정하였다.

이 사본은 491 개의 폴리오 판 크기의 양피지로 되어 있다. 글씨는 검정색에서 흑갈색에 이르는 색깔이 나는 잉크로 쓰여 있다. 첫 463 폴리오에는 모음 부호와 억양 부호와 소마소라 주기와 대마소라 주기와 함께 24권으로 나뉜 히브리어 구약전서가 들어 있다. 일반적으로, 매 페이지는 세 칼럼으로 나뉘어 있고, 시편 욥기 잠언은 매 페이지 두 칼럼으로 나뉘어 있다. 각 칼럼은 27행이다. 소마소라 주기는 페이지 옆 여백과 칼럼 사이 여백에 기록되어 있고, 대마소라 주기는 매 페이지 상단과 하단 여백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본은 중세 특유의 전형적인 동방 사본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본에 대한 철저한 사본학상의 논의와 권말 부록에 대한 본문과 번역문을 보려면 위에 소개한 베트아리예와 시랏과 글래처의 저작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본은 그 상태가 전반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 매 페이지마다 악화되고 손상된 구체적인 상태는 위에서 인용한 어드맨/브릴 복사판의 일부인 보존 노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사본의 파손 정도는 사본에 쓰인 글을 해독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판독에 영향을 줄만한 요소는 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7장 28-31절이 적힌 폴리로 250 같은 것은, 인접 칼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특히 오른쪽 칼럼의 반 이하에 적힌 본래의 본문의 많은 부분이 엷게 벗겨져서 후대에 그 위에 잉크로 다시 조잡하게 덮어 쓴 흔적이 있다. 단지 이 칼럼에서만 잉크로 다시 덮어쓰는 과정을 통해서 본문 안에 오류가 기어 들어갔다. 30절에 본래는 נאם-יהוה가 쓰여 있었다. 그러나 뭉개진 것을 다시 쓸 때는 נאום-יהוה 라고 썼다. 다시 덮어 쓴 손이 본래의 철자를 오해한 것이다. 최초의 본문이 뭉개지고 그 위에 누군가가 잉크로 다시 덮어 쓴 것은 어드맨/브릴의 흑백 복사판으로도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난 구체적인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이 프로젝트가 만든 칼라 투명 필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덟 개의 부록 중에 여섯 번째 것 (폴리오 479r)에서 사무엘 벤 야콥은 자신이 다른 필사본, 곧 아론 벤 모세 벤 아셰르가 쓰고 고친 다른 필사본을 보고서 이 사본을 교정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M^L$의 교정된 본문과 마소라가 벤 아셰르의 전통에 매우 가깝게 일치한다는 것은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벤 아셰르와 벤 납달리가 차이를 보이는 「키타프 알킬라프(*Kithāb al-khilāf*)」에서 예를 들어보면, $M^A$는 벤 아셰르를 94% 따르고, $M^L$은 92% 따른다. 벤 아셰르와 납달리가 다른 전거에 대항하여 서로 일치하는 데에서, $M^A$와

$M^L$은 벤 아셰르를 90% 따른다. 이렇게 일치하는 점에서 현존하는 다른 어느 벤 아셰르 전통보다 $M^A$와 $M^L$이 이렇듯 가깝다. 그리하여 $M^L$이 티베리아 마소라 본문의 벤 아셰르 전통을 가장 잘 이은 우수한 사본으로 판명이 난 것이다. $M^L$은 벤 아셰르의 전통에 충실한 점에 있어서는 $M^A$ 다음으로는 첫째이고, 그리고 구약에 포함된 책을 다 가지고 있는 가장 잘 보존된 사본이다. 이제 널리 인정되고 있는 바이지만, 이 티베리아 마소라 본문은 사해 두루마리들 사이에서도 옛 선조를 확인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본문의 오랜 역사적 흐름 속에서도 신중하게 잘 보존되어 온 후손 사본이다.

자주 언급되듯이, $M^L$은, 비록 우수한 사본이기는 하지만 $M^A$만큼 신중하게 준비된 것은 아니다. 조심성의 수준, 그리고 $M^A$로부터의 변화의 수준이 본문의 국면에서 서로 다르다. 중간 모음 글자는 별문제로 하고, 자음 본문 안의 변화도 극히 드물다. 중간 모음 글자 사용에 있어서, $M^L$은 더욱더 평범한 철자법 편중의 경향을 보인다. 읽기 전통에 나타난 변화도 적은 편이다. "써투모트"와 "퍼툭호트" 사용에 있어서의 변화는 좀 많은 편이다.

$M^L$과 $M^A$사이에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그리고 $M^L$의 부정확함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은 바로 마소라 주기 표시이다. 마소라 주기의 내용에 있어서는 $M^L$과 $M^A$ 사이에 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정보 제시 방법에 있어서 이 둘은 크게 차이를 보인다. 여러 연구에서도 분명히 드러났고 특히 BHS 안에 들어 있는 바일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M^L$의 마소라 주기의 상당수가 사본의 본문 안에 그 관련 낱말(들)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때로는 마소라 주기가 잘못 복사되는가 하면, 참고 구절 제시에 혼선을 빚기도 하고, 위치가 틀린 곳에 놓이기도 하였다. 다른 한 편,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사본의 완성의 측면에서 볼 때, 뿐만 아니라 $M^L$에만 있는 특수 자료를 고려해 볼 때, $M^L$의 마소라가 지닌 참 가치는 결코 부정할 수 없다.

## 감사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그 목적이 성취되도록 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과 여러 기관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자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우선, 도미니크 바르텔레미, 한스 피터 뤼거, 제임스 샌더스, 이상 네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이분들은 미국성서공회의 히브리어 구약 본문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을 추진해 왔고, 일찍부터 이와 같은 새로운 히브리어 성서 편집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편집위원회 탐구를 위한 모임을 주선해 주었다. 우리는 또한 세계성서공회연합회와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학문용성서편집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프로젝트의 초창기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얀 드 바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또한 출판사 쪽에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의 새로운 편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새로운 편집의 출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불가결한 실제적 지원을 아끼지 아니한 지그프리트 모이러와 그의 후계자 얀 비노, 그리고 독일성서공회 당국에게도 충심으로 감사한다. 이 새로운 편집은, 탄력성과 통제력을 지닌 새로운 컴퓨터 출판 방법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이 편집에 포함될 모든 자료들을 모두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해 넣을 수 있었고, 입력된 데이터 베이스를 적절히 활용하여 그것들을 필요에 따라 전자 형태로 혹은 인쇄 형태로 다양하게 전환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이 프로젝트의 「정보 시스템 컨설턴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알란 그로브스, 그의 프로그램 조수 소지안토, 독일성서공회의 빈프리이트 바더 등의 지도와 협조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는 BHQ를 대신하여 이 분들의 헌신적 노력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우리는 또한 레닌그라드 사본을 투명 컬러 필름으로 훌륭하게 제작해 준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 고대성서 사본 센터와 그곳 원장 제임스 샌더스, 총무 마이클 펠프스의 협조에 감사해 마지않는다. 마소라 부분을 위한 프로젝트 컨설턴트가 되어주기로 흔쾌히 허락해 주고 그 방면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준 텔아비브대학교의 아론 도탄에게도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이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는 동안 계속되는 실무 작업에서 필요불가결한 공헌을 한 분들이 적지 않다. 그들의 중요한 공헌에 대하여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한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해롤드 스캔린은, 성서 사본과 다른 필요한 자료에 접근하는 일이라던가, 영문 서론과 각 권의 영문 주석의 영어 문체를 다듬는 편집자로서 수고를 해 주는 등 실제적 방법으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을 용이하게 하였다. 슈투트가르트의 노버트 라버와 더블린의 조나단 키니는 $M^{L}$의 메길로트 부분의 전자 본문과 투명 필름을 일일이 세밀하게 대조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결코 적지 아니한 공헌을 한, 프리벅 성서학부의 버나드테 샤허는, 프로젝트 팀 멤버들 사이에서 재빨리 정확하게 오고 가야 하는 정보와 자료를 믿음직스럽게 잘 관리해 주었다.

우리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특히 두 인물을 기억하고자 한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지 않지만, 라이덴 대학교의 마틴 얀 물더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레이몬드 딜라드는 각각 「아가」와 「에스더기」의 편집을 시작하던 분들

이었다. 이 두 분이 이 프로젝트를 맡고 나서 얼마 안되어 졸지에 타계함으로써 두 권의 편집이 완료되지 못했다.

편집자들은 편집자 각자가 소속한 기관이 베풀어 준 사려 깊은 배려와 협조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하는 바이다. 그런 여러 기관의 협조가 없다면 이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뜨거운 격려와 사려 깊고 유익한 비평을 함께 하여준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동료들에게도 감사한다. 이 모든 협조와 지도 편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BHQ 프로젝트 팀 멤버들이 이 새로운 편집을 사용하는 독자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선배들을 따라 루돌프 키텔이 남겨준 문장 속에서 우리의 적절한 결론을 찾고자 한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는 '낮이 낮에게 말한다(Dies diem docet)'라는 격언에 늘 복종할 것이다. 다만 바라기는, 이 책이 어디에서나 공정한 비평가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특별히 이 주제의 위대성에 어울리는 독자들을 만나기를 바란다!"

**1998년 5월**

**편집위원회**

## 부호와 약자

아래 목록은 BHQ에 사용된 각종 부호와 약자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성서 각 권의 책이름 약자나 외경과 위경의 책이름 약자, 그리고 성서학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부호 등은 JBL, CBQ, HTR 등의 것을 그대로 따랐다. (이런 것에 관해서는 JBL 107[1988] 579-586의 투고 규정을 보라.) 이 목록이나 JBL, CBQ, HTR 등에도 올라 있지 않은 부호나 약자를 쓸 때는 「시카고 체재 편람」(*The Chicago Manual of Style: Fourteenth Edition, Revised and Expand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93)의 목록과 규정에 올라 있는 것을 그대로 따랐다.

아래 목록에 기재(記載)된, 사본이나 증거 본문을 표시하는 부호나 약자의 경우에는, 다른 비평적 편집에서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그대로 따랐다. 고대 그리스어 역의 경우는, 「괴팅겐 칠십인역」(*Goettingen Septuaginta Unternehmen*)에 사용된 사본의 부호와 약자를 그대로 따라서 사용하였다. 다만, 「에스더기」의 알파 본문(Alpha-Text of Esther)만은 (아래에 제시된) $G^{AT}$의 부호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쿰란과 사해 부근의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자료에 사용된 사본 부호는 휘츠마이어의 「사해 두루마리: 주요 출판물과 연구 도구」(J. A. Fitzmyer, S.J., *The Dead Sea Scrolls: Major Publications and Tools for Study*, SBLRBS, 20; rev. ed.; Atlanta: Scholars, 1990, 1-8)에 사용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기존의 약자가 문헌의 이름에 근거한 것은 그 문헌의 일련 번호에 근거하여 만든 부호를 선호하였다. 라틴어역 불가타의 경우에는 산 기롤라모의 「라틴어 불가타역 성서」(San Girolamo, *Biblia Sacra iuxta Latinam Vulgatam Versionem*. Eighteen volumes. Rome: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26-1995)에 사용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페시타의 경우 사본 부호와 약자는 라이덴 페시타 프로젝트가 고안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 증거 본문 기호

| | |
|---|---|
| α′ | 아퀼라(Aquila) |
| αλ′ | ὁ ἄλλος, οἱ ἄλλοι |
| β′ | 헥사플라의 둘째 난 (Second column of the Hexapla) |
| ɣ′ | "셋" (the "Three") |

ε′ 퀸타 (Quinta)
εβρ′ ὁ ἑβραίος
ετ′ οἱ ἕτεροι
ς′ 섹스타 (Sexta)
ζ′ 셉티마 (Septima)
θ′ 테오도숀 (Theodotion)
ιω′ 요시포스 (Iosippos)
λ′ λοιποί
ο′ οἱ ἑβδομήωκοντα
π′ πάντες
σ′ 심마쿠스 (Symmachus)
συρ′ ὁ Σύρος
<α′> 되번역으로 얻은 아퀼라 (Aquila, established by retroversion)
<αλ′> ὁ ἄλλος, οἱ ἄλλοι, 되번역으로 얻은 것 (established by retroversion)
<ϛ′> 되번역으로 얻은 "셋" (the "three", established by retroversion)
<ε′> 되번역으로 얻은 퀸타 (Quinta, established by retroversion)
<εβρ′>되번역으로 얻은 ὁ ἑβραίος, (established by retroversion)
<ετ′> 되번역으로 얻은 οἱ ἕτεροι, (established by retroversion)
<ς′> 되번역으로 얻은 섹스타 (Sexta, established by retroversion)
<ζ′> 되번역으로 얻은 셉티마 (Septima, established by retroversion)
<θ′> 되번역으로 얻은 테오도션 (Theodotion, established by retroversion)
<λ′> 되번역으로 얻은 λοιποί ( λοιποί, established by retroversion)
<ο′> 되번역으로 얻은 οἱ ἑβδομήκοντα (οἱ ἑβδομήκοντα, established by retroversion)
<π′> 되번역으로 얻은 πάντες (πάντες, established by retroversion)
<σ′> 되번역으로 얻은 심마쿠스, (Symmachus, established by retroversion)
<συρ′>되번역으로 얻은 ὁ Σύρος (ὁ Σὺρος, established by retroversion)

헥사플라 본문 부호에 하이픈 연자부호(連字符號)가 붙은 것 (예를 들면 α′-, σ′-, θ′-)은 한 본문이 헥사플라 본문의 둘 혹은 그 이상의 본문에 함께 속하여 동일한 증거 본문이 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Akh 아크밈의 (Akhmimic)

anon 익명(匿名 anonymous)의 (혹은 일반적으로 제롬이나 크리소스톰이 말하는 확인되지 아니한 그리스어 증거 본문. 늘 증거 본문 자료 이름의 우측에 위 첨자로 표시된다.[예: Hie$^{anon}$])

Barb 하박국3 바버리니 본문 (Barberini text of Habakkuk 3)

Bo 보하이르 (Bohairic)

G 고대 그리스어역의 읽기(the reading for the Old Greek)

$G^{*}$ 고대 그리스어역의 읽기, 그리스어 칠십인역의 비평적 편집의 본문과 다른 것으로서, BHQ 편집자가 판단한 고대그리스어 역의 읽기

$G^{Ms}$ 적정대조표준(appropriate collation standard) 본문비평장치에 제시된 고대 그리스어역 읽기에 대한 단일 증거 자료

$G^{Mss}$ 적정대조표준(appropriate collation standard) 본문비평장치에 제시된 고대 그리스어역 읽기에 대한 하나 이상의 증거 자료

Gα (문학적 자료가 다른, "parallel"로 표시되는) 동일 본문의 평행 번역본이 있을 경우에(예를 들면, 에스라기, 왕상 12:24), 이 부호는 "첫째" 역본을 가리킨다(예를 들면, Esdras α′, 왕상 12:24a-z).

Gβ (문학적 자료가 다른, "parallel"로 표시되는) 동일 본문의 평행 번역본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에스라기, 왕상 12:24), 이 부호는 "둘째" 역본을 가리킨다(예를 들면, Esdras α′, 왕상 11:1-12:14, Esdras β′).

$G^{AT}$ 에스더기의 알파 본문(the Alpha-Text of Esther)

$G^{L}$ 고대 그리스어역의 루시안 교정(the Lucianic Recension of the Old Greek)

$G^{O}$ 고대 그리스어역의 오리겐 교정(the Origenian Recension of the Old Greek)

Ga 갈리아 시편 (Galican Psalter)

Gnz 카이로 게니자에서 나온 사본 파편 (fragment from the Cairo Geniza 늘 증거 사본의 위 첨자로 표시된다. 예를 들면, $T^{Gnz}$)

Hbrs 「히브리어 시편」(*Psalterium iuxta Hebraeos*)

Ḥev 나할 헤베르에서 나온 그리스어 역 소예언서 (the Greek Minor Prophets Scroll from Nahal Hever)

Hex 설명 없이 언급된 헥사플라의 읽기 (a Hexaplaric reading referred to without specification)

Hie 히에로니무스 (=제롬) Hieronimus (Jerome) (제롬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고하는 경우를 나타낼 때 사용한 Hie$^{hebr}$와 제롬이 히브리어 본문을 설명하는 경우를 말하는 Hie$^{comm}$ 과는 서로 구별되는 것을 유념하라)

Hie$^{SF}$ 수니야와 프레텔라에게 보낸 제롬의 편지 (Jerom's letter to Sunnia and Fretela)

La 고대 라틴어(Old Latin)

La$^{Ambr}$ 암브로시우스의 글에 인용된 것 (Quotations in the writings of Ambrosius)

La$^{Ep}$ 에피파니우스 스콜라스티쿠스가 번역한 필로의 아가(雅歌) 주석 번역의 주제 본문 (the Lemma text in the translation by Epiphanius Scholasticus of Philo of Carpasia's commentary on Canticles)

La$^{169}$ 살츠부르크 성베드로 수도원 소장 사본 Ms IX 16 (Salzburg, Abbey of St. Peter, Ms IX 16)

M 마소라 본문(Masoretic text) (L 사본 및 수집 대조된 티베리아 사본들과 일치하는 것)

M$^{[siglum]}$ (e.g., M$^{C}$) 단일 마소라 사본의 본문으로서 늘 위 첨자로 표기됨

M$^{A}$ 알렙포 코덱스(Aleppo Codex)

M$^{B}$ 영국박물관 소장 사본 Oriental Ms. 4445

M$^{C}$ 예언서 카이로 코덱스 (Cairo Codex of the Prophets)

M$^{L}$ 레닌그라드 코덱스(the Leningrad Codex), 세인트 피터스버그 러시아 국립도서관 (전 살티코브-시체드린 공립 도서관) 소장 피르코비치 II.B19a 사본

M$^{L17}$ 세인트 피터스버그 러시아 국립도서관 (전 살티코브-시체드린 공립 도서관) 소장 피르코비치 II.17 사본 (manuscript Firkovich II. 17)

M$^{L34}$ 세인트 피터스버그 러시아 국립도서관 (전 살티코브-시체드린 공립 도서관) 소장 피르코비치 II.34 사본 (manuscript Firkovich II. 34)

M$^{S1}$ 삿손 사본 1053(ms Sasson 1053)

M$^{S5}$ 삿손 사본 507 (ms Sasson 507)

M$^{Y}$ 캠브리지 대학교, 사본 Add. Ms. 1753

Mur 무라바아트 88 (Murabb'ât 88)

S 시리아어 역의 읽기 (the reading of the Syriac)

S$^{*}$ 시리아어 역의 읽기, 암브로니아누스 B21 사본에 근거하여 편집된 라이덴 페쉬타의 비평적 편집의 본문과는 다른 것으로서, BHQ 편집자가 판단한 시리아어 역의 읽기

S$^{Ms}$ 적정대조표준(appropriate collation standard) 본문비평장치에 제시된 시리아어 역 읽기에 대한 단일 증거 자료

S$^{Mss}$ 적정대조표준(appropriate collation standard) 본문비평장치에 제시

된 시리아어역 읽기에 대한 하나 이상의 증거 자료

Sa Sahidic 사히드어 (Sahidic)

Smr 사마리아 오경 (Samaritan Pentateuch)

Syh 시로헥사플라 (Syrohexapla)

T 타르굼의 읽기 (오경에서 이 부호는 수집 가능한 모든 오경 타르굼이 입증한 본문을 뜻한다.

$T^{*}$ 타르굼의 읽기, 적정 본문 대조 표준(appropriate collation standard) 타르굼의 읽기와는 다른 것으로서, BHQ 편집자의 판단에 각 번역의 타르굼 본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읽기. 각 타르굼 번역판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기하였다. $T^{O*}$, $T^{J*}$, $T^{N*}$, $T^{F*}$.

$T^{R}$ 에스더기 첫 타르굼 (Targum Rishon to Edther)

$T^{Sh}$ 에스더기 둘째 타르굼 (Targum Sheni to Esther)

$T^{Smr}$ 사마리아 오경 타르굼 (Samaritan Pentateuchal Targum)

$T^{Ms}$ 적정 대조 표준(appropriate collation standard) 본문비평장치에 제시된 타르굼 읽기에 대한 단일 증거 자료

$T^{Mss}$ 적정 대조 표준(appropriate collation standard) 본문비평장치에 제시된 타르굼 읽기에 대한 하나 이상의 증거 자료

$T^{OJF}$, $T^{NJF}$, $T^{NJ}$, etc. 같은 읽기에 증거가 되는 여러 오경 타르굼 (multiple Pentateuchal Targumin witnessing the same reading)

$T^{Be}$ 잠언 타르굼 사본 베르린 오리엔탈리스 1213 (the manuscript Berlin Orientalis 1213 for the targum of Proverbs)

$T^{Br}$ 잠언 타르굼 브레슬라우 사본 (the Breslau manuscript of the Targum for Proverbs)

$T^{F}$ 오경 타르굼 단편 (the Fragment Targum to the Pentateuch)

$T^{J}$ 오경 위(僞) 요나단 타르굼 (Targum Pseudo-Jonathan to the Pentateuch)

$T^{N}$ 오경 네오피티 타르굼 (Targum Neofiti to the Pentateuch)

$T^{O}$ 오경 온켈로스 타르굼 (Targum Onqelos to the Pentateuch)

$T^{U}$ 잠언 타르굼, 바티카누스 우르비나스 사본1 (the manuscript Vaticanus Urbinas 1 for the Targum of Proverbs)

$T^{Z}$ 잠언 타르굼 자모라판 (the Zamora edition of the Targum for Proverbs)

V 라틴어역 불가타의 읽기 (the Reading of the Vulgate)

$V^{*}$ 불가타의 읽기, 산 기롤라모(San Girolamo) 판 비평적 편집에 반영된

독법과 다른 것으로서, BHQ 편집자가 판단한 불가타 역의 읽기

$V^{Ms}$ 산 기롤라모(San Girolamo) 판의 본문비평장치에 제시된 불가타 읽기에 대한 단일 증거 자료

$V^{Mss}$ 산 기롤라모(San Girolamo) 판이 본문비평장치에 제시된 읽기에 대한 하나 이상의 증거 자료

$V^{We}$ 베버의 불가타 (Weber, R., ed. *Biblia Sacra iuxta vulgatam versionem*. Two volumes. Stuttgart: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75)

## 본문비평장치에 사용된 부호

• 본문비평장치 안에서 한 항목의 끝 표시

‖

| 서로 다른 본문 전승 구분 표시

> ...에 없다

→ 유의해 보도록 방향 유도

√ 어근

♣ 별책 주석에 더 상세한 설명이 있다는 표시

1, 2, etc. (위 첨자) "첫째" "둘째"....

+ 표현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 "prec"과 "foll"과 함께 사용됨

? 한 두 가지 사항에 의심을 나타낼 때, 이 부호를 위 첨자로 쓴다($^{?}$).

- 그 독법이 가장 좋은 것인지의 여부를 잘 모를 때 (예를 들면, $G^{?}$, $G^{*?}$)
- 그 독법을 헥사플라의 증거 본문으로 돌릴 수 있는가?

이러한 용법들은 증거 본문들의 계열에 관한 의심이 있는 곳 (이 경우 "indet" 약자가 사용되는데)에서 각 경우의 특성에 따라 구별된다.

// 본문비평장치의 서두에, 그 페이지 어디서나 일반적 방법으로 표현될 평행 본문의 참조 구절을 표시한다.

* 히브리어 사본 표시에 위 첨자 형식으로 표기될 경우는 (예를 들어, $M^{A*}$), 첫 필사자의 부정확한 기록을 표시한다. 같은 기호가, 개별 사본이 아닌, 고대 역본에 첨자로 붙어서 표기된 경우 (예를 들면, $G^{*}$), 이것은 BHQ 편집자가 그 역본의 그러한 독법을 원문의 반영이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을 표시한다. 같은 기호가 헥사플라 증거 본문에 사용될 경우 (예를 들면, $\alpha'^{*}$), 이것 역시 증거 본문에 대한 헥사플라의 독법

에 대한 과제에 관한 BHQ 편집자의 선택을 표시한다. 그러한 결정은 BHQ의「주석」에서 설명된다.

## 약자

abbr abbreviation 약자(略字)

act active 능동

adj adjective 형용사

ampl amplification 확대

aram Aramaic 아람어의

art article 정관사

assim assimilation 동화(同化)

ast asterisk 별표(*): 이 별표는 이 표가 붙어 있는 본문, 곧 논의되고 있는 본문에 대하여 원-마소라 본문 (proto-MT)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그 자체가 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자체 내에 보고가 되어 있는 증거 본문은 첨자로 표시된다 (곧, $ast^{Syh}$). 이 증거는, 물론, ast와는 별도로, 자체의 고유한 기능 때문에, 다시 인용될 수 있다.

caus causative 사역(使役) 동사

cf confer 비교하라

chron chronology 연대기(年代記)

cohort cohortative 권고(勸告)

comm commentary 주석

confl conflation 이문융합(異文融合)

conjec conjecture 추측

conjec-phil philological conjecture 언어학적 추측: 이것은 한 바람직한 읽기가 세 가지 중에 하나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1) 그것의 어근이 성서 시대의 히브리어 [혹은 다니엘서와 에스라기의 경우에는 아람어] 안에서 입증된 것이지만 그것의 binyan이나 그것에 상응하는 binayn은 둘 다 입증되지 않은 것; (2) 그것의 어근이 성서 시대의 히브리어 안에서 입증된 것이지만, 그 경우에 나타난 그런 의미로는 입증되지는 않은 것; (3) 그것의 어근이 성서 시대의 히브리어 안에

서 입증되지 않은 것.

cons of the consonantal text 자음 본문의

conv converted (imperfect/perfect) 전환(轉換)된 (미완료/완료)

copt Coptic 콥트어의

cp compare 비교하라

crrp corrupt 본문의 전와(轉訛)

cstr construct state 구문격(構文格)

ctext context 문맥

cultur cultural 문화적인

dbl double reading/translation 중복 본문/번역

differ difference, different 차이

differ-txt different text 다른 본문 - 달리 인용되지 아니할 한 읽기를 "묘사" 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적인 표시법 (곧, 시리아어역 시편의 표제, 평행구, 그러나 Tanak에서는 다른 본문)

dissim dissimilation 부동화(不同化), 이화(異化)

ditt dittography 중복오사(重複誤寫)

div division [of the consonantal text] 자음본문의 구분

elus elusive [motivation or cause] 이독의 동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em scr emendation of the scribes 서기관들의 수정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는 "티쿠네 쏘프림(Tiqqune Sopherim)" 목록에 들어 있거나 안 들어 있거나, 서기관들의 수정이 분명한 것

emph giving emphasis 강조

err error 오류

euphem euphemism 완곡법(婉曲法)

exeg exegesis 주석

explic [making] explicit 함축의미명시(含蓄意味明示)

facil facilitation 간편화(簡便化)

foll followed by 뒤 선 ("prec"과 +부호도 유의해 볼 것)

frag fragmentary 파편(破片)의

georg geography 지리

gk Greek 그리스어의

gram grammar 문법

graph graphic 그림의

hapl haplography 중자탈락(重字脫落)

| | |
|---|---|
| harm | harmonization 조화 |
| hebr | Hebrew 히브리, 히브리어 |
| hist | history, historical 역사, 역사적 |
| homarc | homoioarcton 유사문두(類似文頭) |
| homtel | homoioteleuton 유사문미(類似文尾) |
| ideol | ideologically [motivated] 이념적 [동기] |
| idiom | idiom/idiomatic 숙어, 관용구의 |
| ign | ignorance 무지 |
| impf | imperfect 미완료 |
| implic | [making] implicit 함축(含蓄) |
| impv | imperative 명령 |
| inauth | inauthentic 출처불명 |
| indet | indeterminate 불확정한 |
| indic | indicative 직설법의 |
| inf | infinitive 부정사(不定詞) |
| insuf | insufficient [data for conclusion] [결론을 위해서는] 부족한 [자료] |
| interp | interpretation 설명 |
| interpol | interpolation 삽입 |
| interr | interrogative 의문의 |
| irrel | irrelevant [to the case at hand] 현재의 문제와는 부적절한 |
| Jos, Ap | Josephus, *Contra Apionem* (*Against Apion*) 「아피온을 거슬러」 |
| Jos, Ant | Josephus, *Antiquitates Judaicae* (*Jewish Antiquities*) 「유대 고사(故事)」 |
| Jos, BJ | Josephus, *Bellum Judaicum* (*The Jewish War*) 「유대전쟁기」 |
| Jos, Vit | Josephus, *Vita* (*Life*) 「삶」 |
| ket | Ketive (늘 M에 위 첨자로 쓰임. 예 $M^{ket}$) |
| K-R | Kennicott와 de Rossi판에 기록된 사본들 |
| lacun | lacuna 탈문(脫文) |
| lat | Latin 라틴어의 |
| lem | lemma 올림말, 표제어(標題語) |
| lex | lexical 사전(辭典)의 |
| lib | liberty 자유 |
| lit | literary 문학의 |
| loc | locative 처격(處格) |

metath metathesis 음위전환(音位轉換)
Mf Masorah finalis 끝 마소라
mg margin 난외(欄外)
midr midrash 미드라쉬
Mm Masorah magna 큰 마소라
modern modernization 현대화
Mp Masorah parva 작은 마소라
ms manuscript 사본 (단수)
mss manuscripts 사본 (복수)
narr narrative 이야기
neg negative 부정적(否定的)인
obel obelos [÷] 오벨로스 Since: 이 오벨로스 표는 이 표가 붙어 있는 본문, 곧 논의되고 있는 본문에 대하여 원-마소라 본문 (proto-MT)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그 자체가 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자체 내에 보고가 되어 있는 증거 본문은 첨자로 표시된다 (곧, obel$^{Syh}$). 이 증거는, 물론, "obel"과는 별도로, 자체의 고유한 기능 때문에, 다시 인용될 수 있다.
obj object 목적어
om omission 삭제
order word order 어순(語順)
origin origin 원문 (한 바람직한 읽기가 기존의 다른 읽기를 설명해 주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기존 읽기가 아닌 경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용어)
orth orthographic 정자법(正字法)의
par parallel text 평행본문
paraphr paraphrase 바꾸어 말하기
part particle 소사(小詞)
pass passive 수동
pf perfect 완료
Philo, *Abr* *De Abrahamo* (*On Abraham*) 「아브라함에 관하여」
Philo, *Aet* *De Aeternitate Mundi* (*On the Eternity of the World*) 「세상의 영원성에 관하여」
Philo, *Agr* *De Agricultura* (*On Husbandry*) 「농업에 관하여」
Philo, *Cher* *De Cherubim* (*On Chrubim*) 「그루빔에 관하여」

Philo, *Conf* *De Confusione Linguarum* (*On the Confusion of Tongues*)
「방언의 혼란에 관하여」
Philo, *Congr* *De Congressu quarendae* (*On the Preliminary Studies*)
「예비 공부에 관하여」
Philo, *Dec* *De Decalogo* (*On the Decalogue*) 「십계명에 관하여」
Philo, *Det* *Quod Deterius Potiori* (*The Worse attracts the Better*)
「더 나쁜 것이 더 좋은 것을 유인한다」
Philo, *Ebr* *De Ebrietate* (*On Drunkenness*) 「술취함에 관하여」
Philo, *Flacc* *In Flaccum* (*Flaccus*) 「플라쿠스」
Philo, *Fug* *De Fuga et Inventione* (*On Flight and Finding*)
「도주와 발견에 관하여」
Philo, *Gaium*, *De Legatione ad Gaium* (*On the Embassy to Gaius*)
「가이우스 대사관에 관하여」
Philo, *Gig* *De Gigantibus* (*On the Giants*) 「거인에 관하여」
Philo, *Hyp* *Hypothetica* ([*Apologia pro Iudaeis*]) 「휘포테티카」
Philo, *Jos* *De Iosepho* (*On Joseph*) 「요셉에 관하여」
Philo, *Leg Alleg* *Legum Allegoriae* (*Allegorical Interpretation*) 「우화적 해석」
Philo, *Mig* *De Migratione Abrahami* (*On the Migration of Abraham*)
「아브라함의 이주에 관하여」
Philo, *Mos* *De Vita Mosis* (*Moses*) 「모세」
Philo, *Mut* *De Mutatione Nominum* (*On the Changing of Names*)
「이름바꾸기에 관하여」
Philo, *Op* *De Opificio Mundi* (*On the Creation*) 「창조에 관하여」
Philo, *Plant* *De Plantatione* (*On Noah's Work as a Planter*)
「노아의 경작자로서의 생업」
Philo, *Post* *De Posteritate Caini* (*On the Posterity and Exile of Cain*)
「가인의 후손과 추방」
Philo, *Praem* *De Praemiis et Poenis* (*On Rewards and Punishment*) 「상과 벌」
Philo, *Prov* *De Providentia* (*On Providence*) 「섭리에 관하여」
Philo, *QE* *Quaestiones et Solutiones in Exodum*
(*Questions and Answers on Exodus*)
「출애굽기에 관한 질의응답」
Philo, *QG* *Quaestiones et Solutiones in Genesin*
(*Questions and Answers on Genesis*)

「창세기에 관한 질의응답」

Philo, *Quis Rerum Quis Rerum Divinarum Heres* (*Who is the Heir*)

「그 상속인은 누구인가」

Philo, *Quod Deus Quod Deus immutabilis sit* (*On the Unchangeableness of God*)

「하나님의 불변성에 관하여」

Philo, *Quod Omn Quod Omnis Probus Liber sit* (*Every Good Man is Free*)

「선한 사람은 자유롭다」

Philo, *Sac De Sacrificiis Abelis et Cainl* (*On Sacrifices of Abel and Cain*)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관하여」

Philo, *Sob De Sobrietate* (*On Sobriety*) 「절주(節酒)에 관하여」

Philo, *Som De Somniis* (*On Dreams*) 「꿈에 관하여」

Philo, *Spec Leg De Specialibus Legibus* (*On the Special Laws*)

「특별법에 관하여」

Philo, *Virt De Virtutibus* (*On the Virtues*) 「덕(德)에 관하여」

Philo, *Vit Cont De Vita Contemplativa* (*On the Contemplative Life*)

「묵상생활(默想生活)에 관하여」

phonol phonological 음운론(音韻論)의

pl plural 복수(複數)

prec preceded by 앞 선 ("foll"과 +부호도 유의해 볼 것)

pref preferred reading 선택된 본문 (본문비평장치에 제시된 이독 중에서 "pref"라고 표시된 본문은 가장 초기의 것으로 입증된 본문으로 선택된 본문임을 표시한다.)

prep preposition 전치사

pron pronoun 대명사

ptc participle 분사(分詞)

qere Qere 케레 (늘 M의 위 첨자[添字]로 사용됨. 예: $M^{qere}$)

redunt removing redundancy 잉여표현 제거

refl reflexive 재귀(再歸)의

rest restoration 회복

seman semantic 의미론의

sfx suffix 접미사(接尾辭)

sg singular 단수

shift shift of meaning 의미교체

spont spontaneous 자발적인

styl stylistic 문체의
subj subject 주어
substit substitution 대용(代用)
synct syntactic 구문(構文)상의
syr Syriac 시리아어의
theol theological[ly motivated] 신학적 [동기]
tiq soph Tiqqun Sopherim 티쿤 쏘프림: 서기관의 수정. 이것은, 문제의 본문이 실제로 서기관의 수정이라고 판단되든 안 되든, 서기관들이 성서의 본문을 수정해 놓은 것이라고 하여 전해져 오는 목록 안에 올라 있는 본문을 일컫는다.
transcr transcription 필사(筆寫)
transf transfer 이전(移轉)
transl translational 번역상의
translit transliteration 음역(音譯)
transp transposition 전위(轉位)
txt text 본문
unattest unattested 입증되지 않은: 이 약자는, 되번역 (retroversion)을 통해서 얻은 한 바람직한 읽기가 binyan에 속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다른 형태는 성서 시대의 히브리어 [다니엘서와 에스라기의 경우는 아람어]에서 입증되지 않은 것이지만, 그 대응 binyan은 입증된 것이다.
unconv unconverted (imperfect/perfect) 변하지 않은 (미완료/완료)
usu usual [expression] 일상 [표현]
v verse 절(節 단수)
vv verses 절(節 복수)
vb verb 동사
via 특수한 기존 본문 독법에 자극제 구실을 한 히브리어 어근 혹은 히브리어 문법 형태
vocal vocalization 발성(發聲)
vocat vocative 호격(呼格)
vrs version 번역본 (단수)
vrss versions 번역본 (복수)

# 본문의 성격규명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와 약자 유형별 분류

아래에 제시된 목록은, 본문비평장치에 사용된 여러 유형의 "읽기"의 성격규명에 대한 정의(定意)와 거기에 사용된 약자(略字)를 해설한 것이다. 이 목록은, 구체적으로는, 성격이 규명되어 제시된 "읽기"와 편집자의 의견에 더 좋다고 생각되는 "바람직한 읽기" (때로는 "또 다른 읽기") 사이의 관계의 성격을 규명한 편집자의 판단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먼저, 문제되는 "읽기"의 성격규명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이어서, 거기에 사용된 용어를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알파벳 목록에서는 약자가 올림말로 오르고, 이어서 정자(正字)가 표시되며, 그 용어에 대한 정의나 설명이 첨가된다.

## 유형별 성격규명

편집자는, 문제가 있는 "읽기"를 제시하고 그것의 성격을 규명할 때마다, 그렇게 규명할 만한 합리적 확실성과 투명성을 독자에게 제시한다. 그러한 확실성과 투명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이, "읽기"의 성격을 유형별로 규명하는 것이다. 각 유형의 성격에 따라 그때 그때마다 어떤 이름을 지어 주는데 이것이 바로 각 "읽기"에 대한 성격 부여, 혹은 성격규명 (characterization)이다. 여기에서는 본문비평장치에 사용된 성격규명 용어들을 열거하고, 그것들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그러한 용어의 약자를 소개하려고 한다.

다음의 여덟 가지 유형 분류는, 특별한 "이독(異讀 variant reading)"과 "바람직한 읽기(preferred reading)" 사이에 내재하는 다양한 특이성에 따라, 다양한 "읽기"의 성격을 유형별로 구분(區分)해 본 것이다. 첫째 구분은, 관련성 기준 (criterion of relevancy)에 입각한 것이다. 유형 I은 해당 쟁점과는 무관한 읽기의 성격을 기술한 것이다. 유형 II-VII은 쟁점과 관련이 있는 읽기의 성격을 기술한 것이다. 둘째 구분은, 어떤 형태의 차이가 두 읽기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저 확인만 하는 성격규명 (유형 II)과, 성격이 규명된 그 읽기가 바람직한 읽기로부터의 변화를 대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성격규명 (유형 III-VII)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한 읽기를 다른 읽기에서 생겨난 변화로 기술한 성격규명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성격규명이 변화의 동기(動機)를 제시하는지 (유형

IV-VII), 혹은 동기를 제시함 없이 다만 변화에 연루된 그 본문의 움직임만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인지 (유형 III)에 근거하여 구분된다. 특수한 읽기와 관련된 변화의 동기를 제시하는 성격규명들은, 그 동기가 우연(偶然)한 것인지 (유형 IV), 의도(意圖)적인 것인지 (유형 VII), 또는 본문 전달자 쪽의 의식적(意識的)인 혹은 무의식적(無意識的)인 전달과정을 나타내는 충동의 결과인지 (유형 V-VI)에 따라 세분된다. 마지막으로, 셋째 구분은

한 읽기를 의도적 변화의 결과로 보는 성격규명들은 (유형 VII), 그 의도가 지닌 특이성의 정도에 따라서, 변화의 의도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 (VII. A.), 의도적 본문 변화의 결과(結果)와 관련하여 변화의 의도를 언급한 것 (VII. B), 의도적 본문 변화의 목적(目的)과 관련하여 변화의 의도를 언급한 것 (VII.C.) 등, 셋으로 세분된다.

I. 쟁점과 무관한 읽기

| | |
|---|---|
| insuf | insufficient (불충분한) |
| indet | indeterminate (불확정한) |
| irrel | irrelevant (무관한) |
| lit | literary (문학적) |

II. 다른 것과 다른 읽기, 그 차이점만을 확인하는 것

| | |
|---|---|
| differ | difference (차이) |
| | differ-div (본문 구분상의 차이) |
| | differ-gram (문법상의 차이) |
| | differ-graph (자음본문 기록상의 차이) |
| | differ-orth (철자법상의 차이) |
| | differ-phonol (음운론상의 차이) |
| | differ-vocal (모음화의 차이) |

III. 변화의 동기에 관한 언급 없이, 다른 읽기로부터의 변화의 "형태"를 대표하는 읽기

| | |
|---|---|
| confl | conflation (서로 다른 두 본문 융합) |

| | |
|---|---|
| dbl | double reading/translation (중복 본문/번역) |
| gloss | gloss (행간이나 난 외의 어구 주석) |
| metath | metathesis (낱말 안의 글자 자리 바꾸기) |
| om | omission (부재[不在] parablepsis) |
| spont | spontaneous (자발적) |
| transp | transposition (글월 안의 낱말 자리 바꾸기) |

IV. 우연히 생긴 변화를 대표하는 읽기

| | |
|---|---|
| ditt | dittography (중복오사[重複誤寫]) |
| hapl | haplography (중자탈락[重字脫落]) |
| homarc | homoioarcton (유사문두[類似文頭]) |
| homtel | homoioteleuton (유사문미[類似文尾]) |

V. 무지 혹은 과오에서 생긴 변화를 대표하는 읽기

| | |
|---|---|
| ign | ignorance (무지) |
| | ign-cultur (문화적 배경에 관한 무지) |
| | ign-georg (지리적 배경에 관한 무지) |
| | ign-gram (문법적 지식에 관한 무지) |
| | ign-lex (사전적 의미에 관한 무지) |
| err | error (오류) |
| | err-chron (연대의 오류) |
| | err-georg (지리의 오류) |
| | err-gram (문법의 오류) |
| | err-graph (자음본문 기록상의 오류) |
| | err-hist (역사적인 것과 관련된 오류) |
| | err-lex (사전적 의미의 오류) |
| | err-phonol (음운의 오류) |
| | err-synt (구문의 오류) |

VI. 본문 요인 혹은 언어학적 요인에 대한 반응에서 생긴 변화를 대표하는 읽기로서 두 종류로 나뉜다.

VI. A. 원천 언어 (히브리어와 번역 증거본문들과 그것들의 대본들)의 난해성에 대한 반응에서 생긴 변화

| | |
|---|---|
| facil | facilitation (쉽게 하기) |
| | facil-gram (문법 쉽게 하기) |
| | facil-lex (어휘 쉽게 하기) |
| | facil-seman (의미 쉽게 하기) |
| | facil-styl (문체 쉽게 하기) |
| | facil-synt (구문 쉽게 하기) |

VI. B. 수용 언어의 몇 국면에 대한 반응에서 생긴 변화

| | |
|---|---|
| transl | translational adjustment (번역상의 조절) |

VII. 전승자의 의도에서 생긴 변화를 대표하는 읽기

VII. A. 의도는 명기되지 않지만, 그 대신 변화의 형태는 명기되는 것

| | |
|---|---|
| lib | liberty (자유) |
| | lib-seman (의미론과 관련된 자유스런 변화) |
| | lib-synt (구문론과 관련된 자유스런 변화) |
| abbr | abbreviation (생략) |
| ampl | amplification (확대) |
| emph | giving emphasis (강조) |
| explic | making implicit information explicit (함축의미명시[含蓄意味明示]) |
| implic | making explicit information implicit (함축[含蓄]) |
| interpol | interpolation (십입[揷入]) |
| paraphr | paraphrase (바꾸어 말하기) |
| rest | restoration (회복) |
| shift | shift of meaning (의미 이동) |
| substit | substitution (대치) |
| transcr | transcription (유사 음) |

translit transliteration (음역)

VII. B. 변화의 결과와 관련하여 의도가 명기된 것

assim assimilation (동화)
assim-[reference] 특수 본문과의 동화 (참고 구절 제시)
assim-ctext (문맥 동화)
assim-cultur (문화 동화)
assim-par (평행본문 동화)
assim-styl (문체 동화)
assim-usu (표현양식 동화)
harm harmonization (조화)
harm-[reference] 특수 본문과의 조화 (참고 구절 제시)
harm-chron (연대 조화)
harm-ctext (문맥 조화)
harm-styl (문체 조화)
harm-synct (구문 조화)
modern modernization (현대화)
syst systematization (체계화)

VII.C. 변화의 목적에 관하여 명기된 것

exeg exegesis (주석)
euphem euphemism (완곡법[婉曲法])
interp interpretation (해석)
midr midrash (미드라쉬:유대교적 전통의 해석)
narr narrative (이야기)
theol theologically motivated (신학적 동기)
ideol ideologically motivated (이념적 동기)

VIII. 기타

bas base (기초 본문)
crrp corrupt(본문의 파손)

elus elusive (알기 어려운)
em scr emendation of the scribes (서기관의 수정)
tiq soph Tiqqun Sopherim (티쿠네 쏘프림: 서기관의 수정)
via
via √

## 본문의 성격규명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定意)와 약자(略字) 알파벳 순서 목록

abbr = abbreviation (생략) 이것은 서기관들이 긴 본문을 짧게 만듦으로써 생긴 본문이다. 서기관들의 본문 생략, 곧 본문의 삭제(deletion)를 말하는 것이다. 문학적 축약, 곧 편집상의 축약(redactional abridgment)과는 대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략은 필사자 혹은 번역자 쪽에서 생겼을 가능성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러한 발생 배후의 동기의 성격은 명기하지 않는다.

ampl = amplification (확대) 이것은 서기관들이 짧은 본문에 내용을 첨가하여 본문을 확대한 것으로서, 문학적 확장(expansion), 곧 편집상의 확장과는 대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대부연은 필사자 혹은 번역자 쪽에서 생겼을 가능성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러한 발생 배후의 동기의 성격은 명기하지 않는다. “ampl”과 “lit”은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한 책의 단일 편집 안에 들어 있는 본문이 전달 과정에서 발전된 것을 언급하는 것이고, 후자는 한 책의 단일 편집보다는 더 많은 편집의 잔존을 전제한다.

assim = assimilation (동화) 문학작품의 전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동화란, 유사한 본문 혹은 유사한 문맥이 있을 때 그것들 사이의 유사성의 정도를 증대시키거나 아예 같게 해 버리는 어떤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동화는, 유사한 문맥이나 문체나 표현 양식 등, 본문 사이의 내용과 형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다 발생할 수 있다. 성격별로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assim-[reference] 특수 본문과의 동화 (참고 구절 제시)
assim-ctext (문맥 동화)
assim-cultur (문화 동화)
assim-par (평행본문 동화)

assim-styl (문체 동화)
assim-usu (표현양식 동화)

base (기초 본문) 성서의 비평적 편집에서, 다른 사본들의 이독들을 비교해 보는 기초가 되는 본문을 일컫는다. “base”라고 표시된 본문은 반드시 현존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편집자가 어떤 본문에 “base”라는 표시를 줄 때에는, 그것은 기존 본문을 언급하는 것이던가, 그와 같은 본문이 번역 대본(*Vorlage*)에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읽기가 실제로 존재해 있었다고 하는 확실성의 정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via”(아래 정의을 볼 것)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confl = conflation (서로 다른 두 본문의 융합) 입증된 두 본문이 하나로 융합된 것으로 판단될 때 이 용어를 쓴다.

crrp = corrupt (본문의 파손) 정확한 의미를 해독해 낼 수 없을 정도로 본문이 파손되었거나 바뀐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 용어를 쓴다.

dbl = double reading/translation (중복 본문/번역) 같은 본문을 거듭 읽거나, 같은 내용이 두 가지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differ = difference (차이) 이 용어는 차이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다만 본문들 사이의 차이점에만 주목하도록 한다. “differ”에 여러 용어를 결합시켜, 차이의 성격을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러 형태로 구분하였다.
differ-div (본문 구분상의 차이)
differ-gram (문법상의 차이)
differ-graph (자음본문 기록상의 차이)
differ-orth (철자법상의 차이)
differ-phonol (음운론상의 차이)
differ-vocal (모음화의 차이)

ditt = dittography (중복오사[重複誤寫]) 글자나 말을 우연하게 반복한 경우를 일컫는다.

elus = elusive (알기 어려운) 이독(異讀)의 동기(動機)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 이 용어로 표시하였다.

em scr = emendation of the scribes (서기관들의 수정)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는 "티쿠네 쏘프림(Tiqqune Sopherim)" (아래 정의를 볼 것) 목록에 들어 있거나 안 들어 있거나, 서기관들의 수정이 분명한 경우를 일컫는다. "theol"(아래에서 볼 수 있는)의 경우를 참고하라.

emph = giving emphasis (강조) 이것은 본문 변화의 결과를 기술하는 것이다. 어떤 표현을 강조하기 위하여 필사자나 번역자가 변경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읽기를 가리킨다.

err = error (오류) 고대의 필사자나 번역자에게서 기인된 오류라고 판단되는 것을 일컫는다.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err-chron (연대의 오류)
err-georg (지리의 오류)
err-gram (문법의 오류)
err-graph (자음본문 기록의 오류)
err-hist (역사적인 것과 관련된 오류)
err-lex (사전적 의미의 오류)
err-phonol (음운의 오류)
err-synt (구문의 오류)

euphem = euphemism (완곡법[婉曲法]) 이것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표현, 곧 독자나 청중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표현을,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누구나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exeg = exegesis (주석) 이것은 사본의 복사 과정에서 주어진 어떤 낱말이나 표현의 의미를 발전시키려고 할 때 첨가된, 혹은 변경된 요소를 반영한다. 여기에서 "exeg"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다. "euphem (완곡법)", "interp (해석)", "midr (미드라쉬)", "narr (이야기)", "theol (신학적 동기)", "ideol (이념적 동기)" 등은 바로 이 "exeg (주석)" 의 범주를 더 세분한 것이다.

explic = making implicit information explicit (함축의미명시[含蓄意味明

示]) 이것은 본문에 새로운 정보를 첨가한 것이 아니라, 다만 본문 안에 함축된 의미를 겉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것은 "해석 (interp)"(아래 정의를 볼 것)과는 다른 것이다.

facil = facilitation (쉽게 하기) 난해구나 어색한 본문을 쉽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본문의 간편화로서, "조화(調和 harmonization)"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조화는 필사자나 번역자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본문을 서로 일치시켜보려 하는 것이다. 여기에 반하여, "쉽게 하기"라는 분류는, 난해한 본문, 혹은 어색한 본문, 해결할 수 없는 쟁점을 지닌 본문, 말하자면, 일종의 "거친 본문"이 "매끄럽게" 윤색(潤色)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단순히 "facil (쉽게 하기)"로 표시되기도 하고, 고대의 독자, 필사자, 번역자들에게 난해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본문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되어 표시되기도 한다.

facil-gram (문법 쉽게 하기)
facil-lex (어휘 쉽게 하기)
facil-seman (의미 쉽게 하기)
facil-styl (문체 쉽게 하기)
facil-synt (구문 쉽게 하기)

gloss (행간이나 난 외의 어구주석) 이것은 삽입의 결과로 생긴 본문을 일컫는다. 본래 행간(行間)이나 난외(欄外)에 있던 짧은 설명이 본문 안으로 들어 온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hapl = haplography (중자탈락[重字脫落]) 이것은, 유사한 글자나 연속된 글자 혹은 낱말이 우연히 삭제됨으로써 생긴 본문이라고 판단된 것을 일컫는다.

harm = harmonization (조화) 이 용어는, 증거 본문의 읽기를 발생시킨 특수한 힘이 본문을 어떤 외부적 참조 구조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읽게 만드는 추진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읽기가 이들 다른 자료들처럼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문제의 읽기가 다른 관련 본문들과 어떤 모로든지 본래는 일치되는 것이 아니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강조한다. 이런 종류의 본문들은, 유사본문을 반드시 똑 같게 만들려는 의도보다는, 다만 일관성(consistency)을 이루려는 방편에서 생겨난 것들이다. 본문에 따라서는 단순히 "harm (조화)"라고 표시되는 것도 있고, 조화의 구

체적인 참조 구조 (즉, 다른 본문과의 조화, 문맥과의 조화 등), 조화되는 본문의 국면 (구문, 문체, 연대 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표시되기도 한다. ("facil [쉽게 하기]"도 볼 것)

harm-[reference] 특수 본문과의 조화 (참고 구절 제시)
harm-chron (연대 조화)
harm-ctext (문맥 조화)
harm-styl (문체 조화)
harm-synct (구문 조화)

homarc = homoioarcton (유사문두[類似文頭] 탈락) 이것은, 한 문단 안에 같은 낱말로 시작되는 구나 절이나 행이 들어 있을 때, 필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실수로 잘못 읽어서, 같은 두 낱말 사이의 본문이 삭제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homtel = homoioteleuton (유사문미[類似文尾] 탈락) 이것은, 한 문단 안에 같은 낱말로 시작되는 구나 절이나 행이 들어 있을 때, 필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실수로 잘못 읽어서, 같은 두 낱말 사이의 본문이 삭제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ideol = ideologically motivated (이념적 동기) 이것은, 특수한 이념적 전망에 일치시키려는 의도에서 조정된 본문을 일컫는다. 그 동기가 반드시 신학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하더라도 어떤 이념이 반영된 변화를 일컫는다.

ign = ignorance (무지) 이것은, 문제 본문의 발생 기원이 필사자나 번역자의 무지에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일컫는다. 필사자나 번역자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대본 (*Vorlage*)에 대한 이해의 부족 혹은 자료의 부족 때문에, 그 대본을 잘못 읽음으로써 이독이 생겨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err (오류)"는 단순한 실수로 생긴 본문을 가리키는 데 반하여, "ign (무지)"는 본문 전달자의 지식의 결핍을 강조한다. 지식 결핍의 경우도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ign-cultur (문화적 배경에 관한 무지)
ign-georg (지리적 배경에 관한 무지)
ign-gram (문법적 지식에 관한 무지)
ign-lex (사전적 의미에 관한 무지)

implic = making explicit information implicit (함축) 이것은 본문에서 기존

의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겉으로 드러난 표현을 속으로 감추는 것일 뿐이다. 정보를 함축시켜 보관한다.

indet = indeterminate (불확정한) 이것은, 인용된 증거 본문이 문제되는 본문의 특별한 난점을 해결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정관사의 유무와 관련하여 라틴어 역본들, 동사 형태의 남성형과 여성형이 논란이 될 때 라틴어나 그리스어 번역본들)

insuff = insufficient (불충분한) 이것은, 한 사본이 파손되어 그 본문을 읽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인용된 본문이 확신을 줄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할 경우를 일컫는다. 이것은, 사본의 품질을 첨자(添字)로 표시한 "frag (단편)"(=fragmentary)와는 구별된다. "frag"의 경우는, 본문이 비록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지 않고 단편적이긴 하더라도, 그 부분적인 조각이 본래 본문의 조각이기 때문에 전와되지 않은 완전 본문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주는 점에 있어서 "insuff"와는 다르다.

interp = interpretation (해석) 이것은, 히브리어나 아람어의 본문에 본래부터 의미가 좀 모호한 말이 있는 경우, 고대의 사본들 중에서 그러한 모호문에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이 있음을 말하여 준다. 여기서 말하는 모호성이란 반드시 난해구나 어색한 본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본문에서부터 명확한 의미를 얻는 문제, 곧 기본적인 이해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interp (해석)"은 "facil (쉽게 하기)"와는 구별이 된다. "interp (해석)"은 (위에 제시된) "explic (함축의미명시[含蓄意味明示])"과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두 용어 "interp"와 "explic"는 모두 함축된 의미를 밖으로 드러내는 과정을 뜻한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explic"는 밖으로 드러낼 함축된 의미가 필사자에게나 번역자에게 분명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반하여, "interp"의 경우는 고대의 필사자나 번역자가 모호한 본문에 대하여 어떤 의미 결정을 해야하는, 의미의 모호성이 전제되어 있다.

interpol = interpolation (삽입) 이것은, 다른 자료나 같은 자료의 다른 곳에서 온 어떤 본문 문제와 관련된 본문이 삽입됨으로써 발생한 읽기를 성격규명한 것이다.

irrel = irrelevant (무관한) 이 용어는 한 특정한 증거의 읽기가 고려하고 있는

해당 문제에 부관한 것임을 표시한다.

lib = liberty (자유) 이 성격규명은 문제의 읽기를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요인이 원천 본문에, 혹은 원천 본문과 광범위한 문맥의 상호작용에, 혹은 한 번역본의 수용언어의 요구에 있다기보다는, 필사자나 번역자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제안한다. "Lib"는 그러한 변화가 어느 정도의 "의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이 의도성이 필사자나 번역자를 제외한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읽기 배후의 의도가 더 이상 달리 상술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Lib"는 홀로 나타나거나, 더욱 상세한 진술과 함께 나타나서 그러한 자유가 행사된 언어학적 측면을 밝힌다.

lib-seman 의미론과 관련된 자유스런 변화

lib-synt 구문론과 관련된 자유스런 변화

lit = literary (문학) 이 용어는 한 읽기가 분리된 문학 전통을 대표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말하는 분리된 문학 전통이란 어느 한 책이 둘 혹은 그 이상의 여러 판으로 나왔을 경우 그 중 하나를 마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된 문학 전통은 절대로 다른 증거 본문에 반영된 다른 문학 전통 곧 다른 계통이 다른 편집본의 본문을 교정하는 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사무엘기와 예레미야서가 이런 종류의 문제를 많이 제시한다.

metath = metathesis (낱말 안의 글자 자리 바꾸기) 이 용어는 한 읽기가 한 낱말 안에서 글자의 치환 때문에 발생한 경우 그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의 동기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이러한 치환은 의도적인 변경이라기보다는 우연한 변경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Metath"는 한 낱말을 구성하는 여러 글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위치 변경으로서, 문장 안에서 낱말들 사이의 위치 변경을 일컫는 "transp (글월 안의 낱말 자리 바꾸기)" (아래)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midr = midrash (미드라쉬) 이 용어는 그 읽기가 외부의 미드라쉬 전통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제안한다.

modern = modernization (현대화) 이 용어는 한 읽기가 번역자나 필사자 때에 지배적이던 사전상의 혹은 문법상의 용법에 동화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성격규명을 하는 것이다.

narr = narrative (이야기) 이 용어는 그 읽기가 이야기의 구조나 기법에 순응하느라고 이야기를 조정하는 데에서 발생한 것으로 성격규명을 하는 것이다.

om = omission (부재[不在] parablepsis) 이 용어는 필사자나 번역자가 본문의 어떤 부분을 우연히 빠뜨리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생겨난 본문이 부재를 가리킨다.

paraphr = paraphrase (바꾸어 말하기) 이 용어는 한 읽기를 같은 뜻의 다른 형태로 다시 진술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rest = restoration (회복) 이 용어는 한 증거 본문이 한 번역의 대본(*Vorlage*)이었던 전와(轉訛)된 본문의 회복을 시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가리킨다.

shift = shift of meaning (의미 이동) 이 용어는 한 번역이 본문의 주요 구성요소를 다시 씀으로써 본문 전체에 새로운 의미를 주려고 했다고 판단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본문을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 판단되는 것을 가리킨다.

spon = spontaneous (자발적) 이 용어는 독립된 증거 본문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특수 이독이 실제로는 이러한 증거본문들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가리킨다.

substit = substitution (대치) 이 용어는 한 본문 안에 있는 낱말이나 낱말들을 필사자나 번역자가 임의로 다른 낱말이나 낱말들로 대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대치의 배경이 되는 동기는 상술하지 않았다.

syst = systematization (체계화) 이 용어는 문제가 되는 읽기가 필사자나 번역자가 어떤 본문을 필사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본문을 통일된 문학적 구조로 제시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가리킨다.

theol = theologically motivated (신학적 동기) 이 용어는 문제의 읽기가 신학적 규범에 맞추기 위하여 조정된 읽기임을 말해 준다. (다음에 제시된) “tiq

soph (티쿤 쏘프림)"와 (위에 제시된) "em scr (서기관의 수정)"도 유의해 보라.

tiq soph = Tiqqun Sopherim (티쿤 쏘프림: 서기관의 수정) 이것은, 문제의 본문이 실제로 서기관의 수정이라고 판단되든 안 되든, 서기관들이 성서의 본문을 수정해 놓은 것이라고 하여, 전해져 오는 목록 안에 올라 있는 본문을 일컫는다. 위에 제시된 "theol (신학적 동기)"를 유의해 보라.

transcr = transcription (유사 음) 이 용어는 번역본문의 읽기가 번역 대본의 번역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번역 대본의 구어 형태를 (소리나는 대로), 수용언어의 음성학적 체계에 따라, 재생시킨 것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가리킨다.

transl = translational adjustment (번역상의 조정) 이 읽기의 성격규명은 수용언어가 제공하는 속박과 기회의 역할을 주목하여 보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아가, 이러한 국면들이 필연적으로 원천 본문과 원천 언어의 특성을 번역하는 방법을 주목하여 보도록 한다.

translit = transliteration (음역) 이 용어는 번역본문의 읽기가 번역대본의 번역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번역 대본의 기록 형태를 (곧, 철자를), 글자 대 글자 대응 관계에 입각하여, 재생시킨 것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결과적인 번역 형태가 대본의 소리를 흉내내었는지, 혹은 그것이 수용언어에서 철자법상 "이상하게" 여겨지는지 그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transp = transposition (글월 안의 낱말 자리 바꾸기) 이 용어는 한 읽기가 한 본문 안에서 자리를 서로 바꾼 두 낱말 혹은 낱말 모음에서 생겨난 읽기의 경우 그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리 바꾸기 동기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이러한 자리 바꿈은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Transp"는 낱말들 사이의 자리바꿈을 일컫는 것으로서, 낱말을 구성하는 여러 글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위치 변경을 일컫는 "metath (낱말 안의 글자 자리 바꾸기)"와는 구별된다 (위의 "metath"를 보라).

via 이 용어는 특수한 기존 읽기의 자극제 구실을 한 것으로 판단된 히브리어 형태를 표시한다. 한 형태를 그렇게 표시함에 있어서, 그 읽기가 실제로 대본에

그렇게 쓰여져 있었던 것이었는지 (실제 대본), 아니면 다만 필사자나 번역자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읽은 것이었는지 (허상 대본)에 대한 입장은 취하지 않았다.

via √ 이 용어는 표시한다. 특수한 기존 읽기의 자극제 구실을 한 것으로 판단된 히브리어 히브리어의 "어근"을 표시한다. 여기에서는 어근을, 필사자나 번역자가 그들의 대본을 이해하였던 방법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종의 해석학적 열쇠 구실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 소마소라에 사용된 용어 해설

| | |
|---|---|
| **א** | 알레프(*ʾalef*)로 시작되는 낱말, 알레프(*ʾalef*) 글자, 아트낙(*ʾatnaḥ*) 억양 |
| **א** | 하나, 한 번 |
| **א"ב, אלפא ביתּ** | 알파벳, 알파벳 순서, 시 119 |
| **א׳ ב׳ ב׳ ג׳ ג׳ ד׳** | 낱말의 첫 두 글자가 알파벳의 순서를 따른다 |
| **ארכר, ארכרה (=הזכרה)** | 하나님 이름 네 글자 |
| **או אור, אורי׳, אורייתא** | 「오경(五經)」 |
| **אות, אותיות** | 글자, 글자들 |
| **אות תלויות** | 위 첨자 |
| **אחרי׳** | 다른 |
| **אינון** | 대명사 "그들" |
| **איתּ** | 이다, 있다 |
| **איתּ בהון** | 거기에 있다 |
| **איתּ=איתּתא** | 여자 |
| **אמ׳, אמצעצ, אמצעא** | 안에, 가운데에, (낱말이나 절) 안에 |
| **אמ"ת** | (시 형식으로 편집된 세 책) 「욥기」, 「잠언」, 「시편」 |
| **א"גך** | 구약전서 |
| **גברא אנש, בר נש, שום בר נש, שם** | 남자 이름 |
| **אנת, אנתתא, אתת, אתתא** | 여자 이름 |
| **א"סף, אתנ וסוף פסו** | 아트낙(*ʾatnaḥ*)과 쏘프 파쑤크(*sop pasuk*) |
| **אפ"ס** | 한 절이 씨만(*siman*)이다 |
| **ארמ** | 아람어 |
| **את, אתא, אתין** | 글자, 글자들 |
| **אתנ, אתנח, אתנחתא** | 아트낙(*ʾatnaḥ*) |
| **אתת, אתתא** | 여자 이름 |
| **ב מ א (ב...), בר מן א (ב...)** | 하나 (둘 ...)을 제외하고 |
| **בהון** | 그것들 안에 |
| **ביה** | 그것 안에 |
| **ביניה, ביניהון** | 그것들 사이에 |
| **ברא, בראשית** | 「창세기」 |
| **ברנש, בר נש** | 남자 |
| **בתר, בתרא** | 후에, 뒤에 |

| | |
|---|---|
| 남자 이름 | גבר, גברא |
| 가야(*ga'ya*) | געי, געיא, גיעיה |
| 게레쉬(*geresh*) | גרש, גריש |
| 「역대기」 | דב הי, דב ימ, ד"ה |
| 후에, 뒤에 | דבתר, (ד)בתריה |
| 다게쉬(*dagesh*) | דגש, דיג, דיגשא |
| 이 것 | דין |
| 같은, 이것과 같은, 이것들과 같은 | דכ, דכו, דכות, דכותיה, דכותהון |
| 남성 | דכר |
| 불완전 | דלוג |
| 유사(類似) | דמיין |
| 열 다섯 (15) | ה |
| 이것들 | הלין |
| 힐렐 코덱스 | הללי |
| 여기 | הכא |
| 바브(와우 *waw*) 전접(前接) 낱말 | וא |
| 그리고 다른 | וא׳ |
| 그리고 하나 | וא |
| 바브(와우 *waw*) | ואו |
| 「민수기」 | וידבר |
| 한 쌍, 쌍들 | זוג, זוגין |
| 남성 | זכר |
| 소(문자[들]) | זעיר, זעירא, זעירין |
| 자케프(*zakef*) | זק, זקפ, זקף, זקפא |
| 자르카(*zarka*) | זרק, זרקא |
| 짝, 짝의 한 쌍 | חב, חבי, וחב, חברו, וחברו |
| 하나, 한 번 | חד, חדה, חדא |
| ... 가운데 하나, ... 가운데서 독특한 것 | חד מן |
| 일반적인 (세속적인) | חול |
| 「오경(五經)」 | חומש |
| 가야(*ga'ya*)가 없는 (즉 짧은) | חטף |
| 차이, 변화 | חלוף, חילופ, חילוף |
| 불완전한, 불완전하게 기록된 | חס, חסי, חסיר, ח, חסר |
| 이중 불완전 | חס וחס |

| | |
|---|---|
| 가운데, 절반 | חצי |
| 억양, 억양과 함께 | טע, טעם, בטע, בטעמא |
| 한 번 | יחד |
| 일반적이 아닌 | יחיד, מיחד, מיוחד, יחידאין, מיחדין |
|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 | יי, ייי, יה |
| 「여호수아기」, 「사사기」, 「시편」 | י ש ת |
| 여분의 | יתי, יתיר, יתירין |
| 여기 | כה, כאן |
| 닮음, 유사 | כות, כותהון |
|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 כ"כ, כתיב כן, כן כתיב |
| 모두 | כל, כ"ל, כול |
| 기록된 것 | כת, כתיב, כתוב, כתיבא, כתבן |
| 성문서(聖文書) | כתי, כתו, כתיב, כתיבין, כתוביא |
| 독특한, 유일한 | ל, לית, ליתא |
| 러가메(*ləgarme*) | לג, לגר, לגרם, לגרמיה |
| 형식, 의미, 언어, 성(性) | לש, לשנ, בלש, בלשנא, לשון |
| 위에 | לעיל |
| 아래에 | לרע |
| 바뀐, 뒤에 놓인 | מאוחר |
| 메러카(*mərəka*) | מארכ, מארכא, מאריכין |
| 에스더기 두루마리 | מג, מגלה |
| 동부(東部) | מרנ, מדנח, למד, למדנ, מדנחאי |
| 옳은 본문, 교정된 본문 | מוג, סיפ מוג, ספר מוגא |
| 중복된, 반복된 | מוכפ, מוכפל |
| 앞에 놓을 것 | מוקדם |
| 이문(異文), 이문들 | מחליפ, מחל, מחלפ, מחלפין |
| 오해되다 | מטע, מטעין, דמטע |
| 보통이 아닌 | מיחד, מיוחד, מיחדין |
| 낱말, 낱말들 | מילה, מלה, מילין, מלין |
| 수(數) | מינין |
| 그것들 한가운데 | מיסיהון |
| 완전표기 | מל, מ"ל, מלא |
| 두 번 나오는 완전 표기 | מל דמל, מ"ל דמ"ל, מלא דמלא |
| 밀엘(*mil'el*), 전종음절(前終音節)에 억양 | מלע, מלעיל |

| | |
|---|---|
| מלר, מלרע | 밀라(*milra'*), 종음절(終音節)에 억양 |
| מנה, מנחון | 그것들 가운데, 그것들로부터 |
| מנוגן | (’טע의) 음악적 의미 |
| מנוקר, מנוקדין | 모음부호를 붙인, 발음된 |
| מס׳ רבתא | 끝 마소라 (Masorah finalis) |
| מע, מער, מערבאי | 서부(西部) |
| מ"ק, מצע פסוק | 절 중간(節中間) |
| מפ, מפיק, מפיקין | 마픽(*mappik*), 낱말 끝에 붙은 ‘헤(*he*)’를 발음한다 |
| מצ׳, מצעא, מיצעא, מציעא | 안에 |
| מ ק | 소(小)마소라 |
| מ"ת, משנה תורה | 「신명기」 |
| משני, משנין | 다른 |
| מ׳ ש׳ ר׳ ת׳ | 「열왕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열두예언서」 |
| מתא, מתאימין, מתאמין | 같은 |
| מתח, מתחלפ, מתחלפין | 다른, 이독(異讀) |
| מ"ת, מצע תיבותא | 낱말 가운데 |
| נ"א, נוסחא אחרינא, נוסח אחר | 다른 본문 |
| נב, נביא, נביי, נבי, נביאי | 「예언서」 |
| נגן | (’טע의) 음악적 의미 |
| נון רבתי | 크게 쓴 눈(*nun*) |
| נון זעיר | 보통 크기로 쓴 눈(*nun*) |
| נ"ך | 「예언서」와 「성문서」 |
| נסיב, נסיב, נסיבין, נסבה, נסבא | 함께, 첨가되어 포함된 |
| נקוד, נקודות | 점(點) |
| נקיבה | 여성 |
| ס | 쎄데르(*seder*), 성구집(聖句集) |
| ס"א, ספרין אחריין | 다른 책, 다른 책들 |
| סביר, סביר, סבירין | 추측하여 읽은 것 (본문 안에 넣지 말 것) |
| סי, סימ, סימן, סימנהון | 기억을 돕는 표시, 참조 |
| סיפ, סיפרא | 책 |
| סיפא | 끝 |
| סכום | 합계 |
| סמיכ, סמיך, סמיכין | 연관된, 앞에 붙은, 뒤에 붙은, 결합된 |
| ס פ, ס"פ, סופ פס, סופ פסוק | 쏘프 파쑤크(*sof pasuq*), 절의 끝 |

| | |
|---|---|
| 낱말의 끝 | סת, סוף תיבותא, סופי תיבותא |
| 문맥, 문단 | עינ, עיניג, ענינא |
| 끝에 | עקב׳, ערבא |
| 차이, 구분, (의견의) 불일치 | פלג, פולג, פלוג, פלוגתא, פלגתא |
| 어떤 이 | פלוני |
| 절(節) | פסו, פס, פסוק |
| 파쎄크(*paseq*) | פס, פסק, פסיק, פסיקתא |
| 파라샤(*parasha*), 성구집(聖句集) | פרש, פרשה |
| 파탁흐(*pataḥ*) | פת, פתח, פתחין |
| 쎄골(*segol*) | פת קטן |
| 커레(qəre) | ק, קר, קרי, קריין |
| 첫째 | קד, קדמ, קדמא, קדמיה |
| 거룩한, 거룩한 언어(곧 히브리어) | קדש, לשון קדש |
| 카메츠(*qameṣ*) | קמ, קמצ |
| 쎄레(ṣere) | קמצ קטן |
| 벗어진 (전접사[前接詞] 바브 *waw*가 없는) | קרחי |
| 성서 | קריא, קרי |
| 곳 이름 | קריה, קרתא |
| 시작 | ר, ראש |
| 절(節)의 시작 | ר"פ, רא פס |
| 낱말의 시작 | ראש תיבותא |
| 큰 | רב, רבת, רבתי |
| 복수(複數) | רבים, לשון רבים |
| 레쉬(*reshi*), 시작 | ריש |
| 라페(*rafé*)(dagesh가 없는, 침묵후두[沈默喉頭]가 없는) | רפ, רפי, רפה, רפין |
| 나머지, 다른 것들 | שא, שאר, שארא |
| (사람) 이름, 이름들 | שום, שם, שמא, שמו׳ שמוא׳ |
| 명단, 목록 | שיטה, שטה |
| (낱말, 절, ...) 다음의 것 | שלא, שלאח, שלאחריו |
| 「사무엘기」 | שמו, שמוא |
| 토라(Torah) | ת, תו, תור |
| 낱말 | תיב, תיבו, תיבות, תיבותא |
| 「레위기」 | ת"כ, תורת כוהנין |
| 둘째 | תינ׳ |

| | |
|---|---|
| 첨자(添字) | תלוי |
| 「시편」 | תלים, תלין |
| 셋, 쎄골(*segol*) | תלת |
| 둘째 | תנינא |
| 구약성서 | תנ"ך |
| 둘째 | תר, תרי, תרתי, תרין, תרתין |
| 「열두 예언서」 | תע, תר עש, תרי עשר |
| 두 뜻 | תר לשון |
| 타르굼 | תרג, תרגום |